

월간

우리 문화

M A G A Z I N E



2001 **4**

월간 우리문화 · 2001년 4월호(통권150호) · 등록번호: 라-3627(1984.7.12)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우 121-715) · 값 3,000원



지령 1백 50호 기념 특집

‘우리문화 지킴이’ ... 150개월동안 ‘개근’

문화는 ‘위험’이 아니다 (차범석) / 남발되는 ‘문화’ 파괴되는 ‘문화’ (김정옥) / 남북 간 ‘문화상대주의’ 절실 (이종석) / 문화정책 뒷전... 객석엔 빈자리’ (이성림) / 주목받는 우리 문화유산 과박 물관 (김종규) / ‘공짜표’ 하나달라고? (문호근)



월간 우리문화 가 4월호로 지령 1백 50호를 맞았다.
(관련기사 10 ~ 18면)

2001년 4월호(제15권 4호 통권 150호) 등록 / 라-3627(1994. 7. 12) 발행처 / 전국문화원연합회 주소 / (우:121-7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화 / 704-2311~3 FAX / 704-2377
 천리안 / cc001fed(Go CCF) 인터넷 / www.kccf.or.kr 발행겸 편집인 / 李秀洪 사무총장 / 安辰洙 편집주간 / 柳長洙 인쇄소 / 크리홍보(주) 발행일 / 2001년 4월 1일 정가 / 3,000원
 *월간 「우리문화」는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차례

4 ◆ 권두칼럼	등잔밑 교육문화	김상수
6 ◆ 특별기고	분단 500년만에 남북 역사학자 마주앉아...	이성무
8 ◆ 우리문화논단	아버지 자리에 앉은 텔레비전	전상인
10 ◆ 지령 1백50호 기념 특집	창간호 부터 4월호 까지	강민철
	한국문화의 자화상 우리에게도 문화는 있는가?	치범석 등
	일반시민 1백명 대상 설문조사	강민철
19 ◆ 이달의 문화인물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신다" 외친 함석헌	편집부
20 ◆ 정체성 수호와 역사의식①	고구려인들의 세계관	이도학
22 ◆ 문화상품을 만드는 사람들 ㉔	'한지 수첩'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만들어	강민철
	- 한지 수첩 만드는 박제윤 미가린 대표	
24 ◆ 전통의 멋과 맛	주머니	편집부
27 ◆ 2001, 지역문화의 해 뉴스 파일	지역문화의 개성과 힘을 원하는 저 눈빛들 '지역문화의 해' 웹사이트 오픈 지역문화, '상상력' 이 살린다	편집부 편집부 이종한
35 ◆ 내고장 명물	덕숭산 수덕사	예산문화원
38 ◆ 초대석	박유철 독립기념관 관장	강민철
42 ◆ 작가의 편지	상주에 다녀오며 붓을 싣고 왔습니다	최기인
44 ◆ 이사람	"한국무형문화재 영상 아카이브 구축할 터"	강민철
	- '명성황후'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코리아 아트센터' 박성미 PD	
46 ◆ 세시풍속	삼진날 · 청명 · 한식풍습	박후식
48 ◆ 오픈북	외무부 총예산의 35%를 문화에 쏟아붓는 나라, 프랑스	편집부
52 ◆ 한국의 민속문화	도깨비의 세계	김의숙
56 ◆ 문화학교	정보 나누고 친목다진 '2박 3일'	김종열
58 ◆ 끊어진 전통의 맥	자치기	편집부
60 ◆ 문화원 소식		편집부
67 ◆ 신간안내		편집부
73 ◆ 제15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최우수상 논문	한양의 용문화 오방토룡제에 대한연구 ㉔	김영섭



등잔밑 교육문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그 생존을 위한 유무형의 교육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느나라건 교육을 중요시하지 않는 나라가 있겠는가? 우리나라도 교육입국이란 큰 제하에 국가·사회·가정 모두가 자녀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을 크게 보면 인간생활에서 축이 되는 정신문화교육과 물질문화교육으로 대분해 볼 수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신과 물질의 경중이 달라지게 된다. 그 경중에 우열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교육되어야 하는가는 분명하다. 일찍이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교육이 선행되고 다음이 기능교육이 수행되어 동방예의의 나라란 틀을 잡고 문화민족임을 자랑으로 여겨왔다.

인간의 덕성교육은 유년기에서부터

속담에 큰 나무될 재목은 떡잎부터 다르다는 말이 있다. 사람의 본바탕은 어려서 형성된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필자가 유년기 등잔밑에서 할머니로부터 받던 덕성교육을 회상해 본다.

필자가 어렸을 때(1930~1940)만 해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마을은 호롱불밑에서 할머니 어머니 고부가 바느질과 길삼을 했고 어린애들은 옹기종기 모여 할머니의 옛날얘기를 들으며 자랐다.

예컨대 ① '심청이와 심봉사' 이야기가 구수하게 전개되면 우리들은 귀가 쫑긋... 여기에서는 어버이를 향한 효 교육이 은연중에 이루어지고 ② '고려장과 아들' 이야기는 엄심하면서도 어버이의 자식사랑을 배우고 ③ '선비와 까치' 이야기는 짐승도 은혜를 갚을 줄 안다는 보은담(報恩談)으로 은혜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고 ④ '콩쥐 팥쥐' 이야기는 형제간에 의리를 가르쳐 주었다.

이외에도 흥부와 놀부, '초한전' '춘향전' 등이 안방교육 교재였다. 이렇게 시행된 할머니의 유년기교육은 다정다감했고 금은과 같은 소중한 참교육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그립기까지 하다.



김 상 수
함양문화원장

이같이 어렸을 때 가정교육은 안방의 할머니교육에서 사랑방 할아버지의 엄부교육과 병행되었다.

유년기 후반에 들면 문자교육이 시작되고 백수문(白首文)을 시작으로 글자 암기와 글씨교육이 이루어지면서 한문학습의 틀을 만들고 암기와 필법습득과 단문이해(短文理解)와 구문(構文)·용역(用役) 등에 대한 입문교육(入門教育)이 엄격하게 진행되었다.

일화(逸話)을 통한 교육문화

유년기에는 누구나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을 드나들면서 응석부리고 야단맞고 했지만 이때 일화도 많았다.

1)물좌방중(勿座房中):어느날 외출을 했다가 형제가 충충걸음으로 할머니 방에 웅기중기 모였었다. 할머니께서는 모두를 반겨주셨지만 고운눈이 아니셨다. 놀란 마음으로 눈치를 보는데... 어제 사랑방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어리둥절 했지만... “물좌방중(勿座房中)” 배웠으면 행동으로 실행을 해야지... 크게 야단 맞고 그 이후 앓음은 항상 조심스러워하는 습관이 생겼다.

2)만물유명(萬物有命):늦은 봄 초여름의 하루는 글읽기와 놀이에 바쁘고 풀 베러 가는 “머슴”아재에게 진달래꽃 꺾어오소. 송구나무(소나무의 어린 물오리 꺾질을 먹는 일) 벼오소 등등 주문이 많았다.

그 청을 듣고 “머슴”아재는 송구먹기 가장 좋은 소나무를 잘라와서 우리들에게 제공하였는데 큰 호통이 터졌다. 소나무의 가치를 잘라올것이지 허리를 잘라 오면 그 나무는 한 평생 목이 없는 나무가 아니냐. 만물유명(萬物有命)인데 지각없는 것이라며... 그 후 생명 소중의 관념을 지금도 자주 새겨본다.

3)조홍시(早紅柿)와 손주: 가을이라 감나무마다 잘 익은 구리 빛 감주리에 간혹 일찍 익은 홍시는 소년기 아이들에게 반가운 선물이었다. 달밭골 큰

밭에 우뚝선 고동시나무에 꽤 많은 홍시가 보였다. 높디높은 곳의 잘 익은 홍시는 우리들을 유혹했다. 앞뒤 볼 것 없이 올망태에 십여개를 따다. 제일 잘 익은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순으로 고르고 다음 내 몫이다. 이렇게 골라진 홍시를 드리면서 자랑스레 설명을 한다. 조잘조잘...

할머니의 하신 말씀... 아이구 우리 손주 제일이다... 회회만만 할머니의 모습 지금도 되살아 생각이 난다.

4)그 시절이 그렇다: 인간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일로 후세교육을 끄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사회·가정·모두가 아낌없는 투자와 정열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는 말라 쓰러져도 새싹은 튼튼하기를 바라는 것은 생명체의 기본 욕구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인간본연의 기본 틀로 상부상조(相扶相助)하고 광덕보인(廣德補仁)하는 품성을 중하게 여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같은 품성이 풍부해지길 바라며 소중히 길러 왔었으나 20세기 과학문명이 급진하면서 품성을 다듬지 못한 채 기능만 길렀으니 인간 상실에 대한 한숨소리가 높다. 학교교육이 붕괴되고 사제의 사랑과 신의가 추락되어 교육부재의 혼미 속에 있다 하니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깊게 생각하게 된다. 학부모가 교사를 경시하고 학생이 스승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바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까? 그 원인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일차적으로 가정교육의 부재요 다음이 학교교육의 오도요 셋째가 사회문화의 부당성이 아닌가 한다. 품성바탕을 다듬는 유년기에 조손유친의 심성을 다듬지 못했기 때문에 할아버지 뉘새를 기피하는 현실을 중년의 부모들은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그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재고되어야 할 과제다.

인간을 소득의 주체로가 아니라 격물치지(格物致知)하고 효우인보(孝友仁補)하는 존재로 인간미 풍만한 인격교육이 실시됐던 그 옛날 등잔 밑 교육문화를 생각해 본다. ㉞

분단 50여년만에 남북 역사학자 마주앉아...

지 난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8박 9일 동안 나는 남북역사학자 모임에 다녀 왔다. 북한이 조일회담에서 일본의 과거사를 규탄하여 사과와 보상을 받아내려는 목적에서 남북역사학자가 공동의 목소리를 내자고 하는 뜻으로 일제 강점자료 전시회와 남북역사학자 공동토론회를 열고자 한 것 같다.

‘민족21’ 주선으로 남한학자 6명·북한학자 5명 참가

그런데 마침 사운연구소장 이종학씨(전 독도박물관장)가 35년간 수집한 일제만행에 관한 1천여 점의 자료를 북측에 제공하여 이 일이 성사되었다. 남북 접촉은 ‘민족21’(회장 강만길)이 주선했다. 역사학자로는 한국에서 강만길(상지대 총장), 성대경(전 성균관대 교수), 이성무(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강영철(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 김광운(국사편찬위원회 연구사)등 6명이 참여했고 북한에서는 허종호(조선역사학회장), 주진구 일제강점자료전시회 준비위원장(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하여 정창규(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장), 원종규(근대사실장), 리종현(역사연구소 교수), 임미화(역사연구소 연구사)등 5명이 참여했다. 역사학자이외에도 KBS가 협찬하고 기업인들도 동행했다. 그래서 방북단은 21명으로 구성되었고 자료를 제공한 이종학씨가 단장을 맡았다.

‘조선은 일본의 개’ 적힌 지도 등 일제만행 자료 전시

이종학씨는 먼저 전시준비를 위해 미리 평양에 가 있었고 우리는 2월 26일 서울을 출발하여 북경에서 1박하고 27일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우리들의 입북소식은 이미 북한 중앙TV에서 전했다고 한다. 27일과 28일을 평양의 명소를 돌아보고 전시회와 토론회는 3월 1일에 열렸다. 10시부터 열린 전시회에는 이종혁 아태부위원장과 장정신 역사박물관장 등 평양의 역사관계 교수와 학생등 400여명이 참여했다. 북한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을 보아 북측에서는 이 행사를 상당히 중시한 것 같았



이 성 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다. 전시회 개막식에 이어 임미화 연구사가 자료를 설명했다. '조선은 일본의 개'라고 적힌 임난때 지도를 비롯하여 일제의 조선강점과 만행에 관한 자료들이 전시되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남북역사학자들의 토론회가 열렸다. 모두 일제의 조선강점이 강압에 의한 불법적인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때 한국에서는 '새 역사를 연구하는 모임'에서 제출한 일본 역사 교과서를 비난하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성명이 나와 북측은 대단히 고무되어 남북역사학자들의 일제의 조선강점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이 사안은 남북이 일치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쉽게 성사되었다. 그래서 인민대학습당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것은 북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일본기자들도 즉시 취재하여 NHK에서 방영했다. 일본이 당황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해 듣기도 했다.

정례적 남북 역사 학자 교류 제안해

나는 이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차례에 정례적인 남북역사학자 교류를 하자고 제안했다.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이질화된 국사와 국어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종혁 부위원장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물론 오랫동안 다른 체제를 유지해온 남북의 역사인식이 하루아침에 합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선 민감하지 않은 부분부터 조율해가면서 점차 본질적인 부분으로 논의를 확산시켜 간다면 언젠가는 민족대단합의 경지로 발전해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제안은 적극 검토된 듯 했다. 3월 4일 밤에 주진구 조직위 위원장이 개별면담을 제안하여, 내 제안을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했다. 나는 자료교환, 공동학술회의, 인적교류를 희망하고 남북역사학자 교류 기구를 두어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국편에서 이미 국사관계 학회장들을 모아 이러한 제

안을 문서로 북측 민화협에 제출한바 있고 이번에도 제출했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아직 그 문서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자료교환은 1대1이 되기는 어렵고 북한은 종이 사정 때문에 출판에 어려움이 있으니 연구해 보자고 했다. 공동학술회의에 대해서는 곧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나는 일본교과서 문제를 토론하려면 시일이 촉박하니 되도록 빨리 연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열리는 학술회의에도 북한학자들을 파견해 달라고 했다.

나는 또 북한의 우수한 역사학자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제안도 받아들여져 3월 2일 저녁에 우리가 묵고 있는 보통강 여관에서 남북학자들의 회식이 있었다. 북측에서는 허종호 조선역사학회장, 정창규 역사연구소장, 원종규 근대사실장, 리종현 역사연구소 교수, 임미화 연구사가 참여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사에 관한 얘기를 주고 받았다. 견해차가 있었지만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설명을 듣고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다. 학자들은 체제적인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학문에 대한 열의는 높았고 비교적 순수한 편이었다.

북한 학자 학문 열의 높고 순수해

우리는 분단 50여 년만에 처음으로 북한역사학자들과 마주앉아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이것은 통일을 향하는 단초라고 생각되어 앞으로의 지속적인 교류를 기대해 본다. 남북의 이질화된 역사관을 하루아침에 합일시키기는 어렵겠지만 민감하지 않은 문제부터 시작하여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통일된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통일을 대비하여 역사학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만남의 의의는 크다고 생각한다. 

아버지 자리에 앉은 텔레비전

일찍이 햄릿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To Be or Not To Be)가 문제였다면, 현대인에게는 '텔레비전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TV or Not TV)가 더욱 문제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이 죽기보다 살기를 선택하듯이, 텔레비전을 끄기보다 켜는 쪽으로 마음을 정한다. 사실상 인간이 발명한 수많은 문명의 이기(利器) 가운데 텔레비전처럼 일상적으로 친숙한 것도 드물다. 계급을 초월하고 남녀를 불문하며, 세대를 뛰어넘고 지위와 관계없이 이제 텔레비전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3시간을 넘는다고 하는데, 가족을 단위로 할 경우에 실제로 텔레비전이 켜져 있는 시간은 그 두 배를 훨씬 초과할 것이다. 국민의 60% 이상이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켜놓고 산다는 통계가 나와있을 정도인 바, 지금 우리 나라는 가히 '텔레비전 중독사회'이다.

텔레비전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오히려 정보의 전달, 문화의 전파, 그리고 오락의 제공 등의 기능을 통해 사회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측면이 많다. 비록 신문처럼 분석적이지는 않지만 속보성에서만큼은 텔레비전 뉴스가 앞선다. 그리고 안방에 편하게 앉아 세상 곳곳의 문화와 예술, 영화와 음악, 스포츠 등을 실제처럼 만날 수도 있게 하는 것이 텔레비전이다. 심지어 텔레비전은 그 자체로서 가족이나 친구가 되기도 한다. 가령 아무도 없는 집, 혼자 남은 방에서 텔레비전을 켜놓는 것만으로 곁에 사람이 있는 듯한 정서적 위로를 얻었던 경험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 못지 않게 텔레비전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해 많은 부정적인 역기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텔레비전은 자칫 가족관계를 파괴한다. 우리의 보통 가정에서는 식구들이 놀 때나 쉬 때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둘러앉는 경향이 있다. 말이 좋아 둘러앉는 것이지 사실은 텔레비전이 가장(家長)이자 상전의 자리를 차지할 때가 더 많다. 그리고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의 시청자 자격으로 그냥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텔레비전이 가족들간의 인격적 만남을 가로막는 것이다. 한 걸음



전 상 인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더 나아가 이 때 텔레비전은 상대방의 얼굴을 제대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도 차단한다. 이 뿐이 아니다. 텔레비전은 가족간의 위계 질서를 흐트러기도 한다. 가족들이 신문을 보는 것에는 대개 암묵적인 순서가 있다. 그러나 텔레비전 앞에서 모든 가족구성원들은 위아래 없이 평등하다. 또한 어른 앞에서와는 달리 텔레비전 앞에서는 아이들의 자세가 자유분방하기 그지없다. 그렇다고 해서 텔레비전은 엄숙하고 예절바른 자세로 보는 것이라고 야단치기도 어렵다. 사실은 이른바 ‘채널권’이라는 것조차 아이들에게 뺏긴 집안이 대부분 아닌가?

텔레비전은 또한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든다. 독서를 하거나 음악감상을 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노력과 수고는 필요하다. 책을 골라 펼쳐야 하고 음반을 선택해 돌려야 하며, 부팅을 기다려 사이트에 찾아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텔레비전은 그저 손가락 끝 하나면 충분하다. 리모콘 덕분에 텔레비전 앞으로 직접 다가갈 필요조차 없다. 그리고 텔레비전 앞에서 다른 일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결단이 아니다. 라디오를 들으며 설거지하는 것을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저 사람들을 텔레비전 시청에만 몰두하도록 만드는 데, 그 결과 다른 일을 함께 처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점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자기만의 시간을 빼앗아간다는 사실이다. 바쁘고 지친 일상생활에서 현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발전이나 자기반성의 시간이 크게 부족하다. 그런데 텔레비전은 결코 기도나 사색, 명상 등과 공존할 수 있는 가구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바깥 세상 소식과 남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나 아닌 남에 대한 관심도 찰나 찰나로 바뀐다. 이 방송에서 저 방송으로, 이 프로에서 저 프로로 옮겨 다니는 동안 사람들의 정신은 더욱 더 불안해지고 피폐해지는 경향이 있다.

텔레비전의 보다 심각한 폐해는 성인 어른이 아

니라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가해진다. 자신의 주관이나 정체성이 미처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텔레비전에 비친 세상을 세상의 전부로 착각하기 쉬운 까닭이다. 특히 방송사들이 시청률 경쟁에 혈안인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유익한 텔레비전 프로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업적이고 선정적이며 또한 폭력적인 화면 앞에 아이들은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하기가 하루 종일, 혹은 일주일 내내 학교와 학원에 다니느라 파김치가 되어 있는 자녀에게 있어서 그나마 거의 유일한 휴식이 텔레비전 시청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정서나 교양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어른 입장에서조차 별다른 대안이 없다. 어른들 스스로도 텔레비전 없이 사는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입장이라, 그저 자녀들의 텔레비전 중독을 방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죽하면 많은 가정에서 어른들끼리만 외출할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할까? “텔레비전 보면서 잘 놀고 있어”라고.

흔히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 비판하지만 실상은 텔레비전 스스로가 바보는 아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 바보로 만들어질 수 있을 뿐이다. 바로 이 점에서 텔레비전은 문명의 이기(利器)가 되기도 하고 해기(害器)가 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문제의 본질은 텔레비전이라는 기술문명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사회문화적 성숙도인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 방송문화의 전반적인 개선도 필요하고 텔레비전 없이 살 수 있는 대안적 삶의 문화도 절실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기 전에 일단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에서 텔레비전을 꺼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의외로,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동안 텔레비전 앞에서 잃어버린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들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차피 처음 만나는 남들 사이가 아니라 피를 나눈 가족이기 때문이다. **문**

‘우리문화 지킴이’ ... 150개월동안 ‘개근’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이번 4월호로 지령 1백50호를 맞은 ‘월간 우리문화’의 생년월일은 1988년 11월 1일이다. 당시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전신인 한국문화원연합회는 4년여에 걸쳐 격월간으로 18호까지 발행해 오던 ‘전국문화원’을 폐간하고 △민족문화의 창달 △전통문화의 계발과 보호 △민족문화의 창조라는 3대목표 아래 새로운 제호의 ‘우리문화’를 월간으로 창간했다. ‘월간 우리문화’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분포해 있는 문화원의 소식을 전달하는 한편 서울과 지방을 잇는 문화예술교양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말 못할 인적·물적 어려움이 커 현대적인 디자인을 채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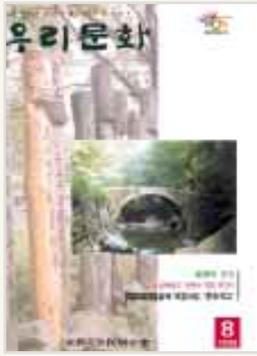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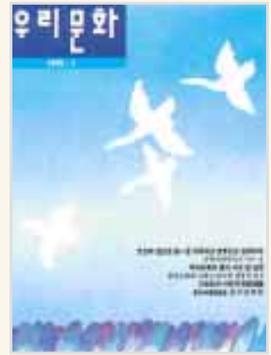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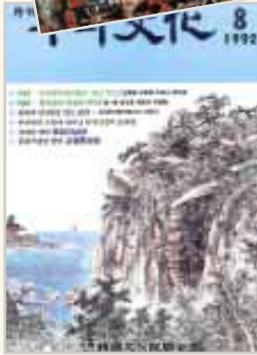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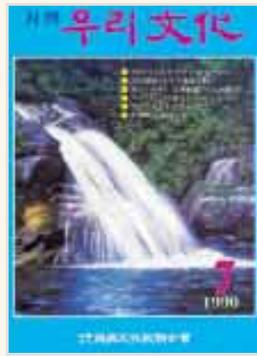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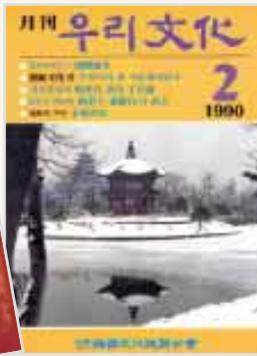
지 못하는 것은 물론 월간지의 불륨을 줄일 수 밖에 없었는가 하면 때론 폐간의 위기까지도 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화와 세계화속에 우리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지켜나가는 월간지 하나 만큼은 있어야 한다는 주위의 격려속에 월간 우리문화는 이처럼 온갖 난관을 겪으면서도 1백50개월동안 한달도 빠지지 않고 발간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우리 전통문화 잡지계에서 좀처럼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월간 우리문화’는 지령 1백50호를 기념해 한국문화의 자화상이란 제목으로 국내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옥고와 한국문화의 상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신는다.

다시보는 창간호

1백 68페이지 국한문 혼용체 ... 한국·일본·중국 역사 현장 특집으로 꾸며

지난 88년 11월에 나온 창간호는 한자가 한글보다 많아 보이는 국한문 혼용체로 묵직한 느낌을 들게 한다. 1백68페이지. 컬러페이지가 8페이지로 화보를 실었다. 특집기획으로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국내, 일본, 중국’을 꾸몄다. 또 앙케이트 ‘전통향풍을 진작시키자’ 코너에서는 박성봉(당시 경희대 교수·전통문화연구소 소장),반영환(당시 서울신문 주간국장·문화재 전문위원), 신찬균(당시 연합통신 논설위원실 부실장·문화재위원), 이철(당시 국회의원·문공위원회 위원), 이기화(당시 분회 부회장·고창문화원장)씨 등의 좌담을 중계했다. 또 초대석으로 지역문화발전에 헌신하면서 신변장신구도 개발해 대통령상을 받은 당시 유광렬 인천문화원장을 인터뷰했다. 그리고 당시 유홍렬 학술원 원로회원은 ‘한국인의 정체성과 고유문화 창조활동’을 특별기고했다. 이밖에 ‘우리말 바른말’과 함께 ‘고전 입문’ ‘역사의 재조명’ ‘우리문화 소식’, ‘여성씨름-전통민속혼례’, ‘건강메모’, ‘연재만화’ 등 다양한 코너를 마련했다. 당시 강주진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의 창간사와 함께 정한모 문화공보부 장관·정대철 국회의원공보위원장·여석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의 창간축사를 실었다.



문화는 ‘외심’이 아니다

문화란 고정준봉도 아니오 밀립지대도 아니다. 문화란 결코 특정한 계층이나 사람들의 전유물도 아니다. 문화란 만인이 공유하며 교차되면서 더 가깝고도 친근하게 일상 속에서 향유하는 정신세계이자 문명의 구체적 소산이다. 그러므로 문화는 일상적인 생활과 분리시킬 수도 없고 단절될 수도 없는 생활 그 자체를 토대로 해서 형성되고 발전해 왔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전 까지만 해도 문화는 지식인이나 부유층 사람들의 전유물이며 일반시민하고는 거리가 먼 특수한 개념으로 인식해 왔다. 그 이유는 봉건사상의 잔재, 일본제국주의의 침식, 그리고 전쟁과 정치적·경제적 빈곤과 혼란이 빚어낸 수치스러움에서 비롯되었음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할 것이다. 먹고 살기에도 급급한 사람에게 문화라는 개념은 전혀 실감도 만나거니와 넘어다볼 수도 없는 별개의 세계인양 길들여온지가 반세기를 넘었다.

그러나 근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속에서는 문화라는 낱말만큼 피부 가까이 느껴지는 말도 드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자신이 과연 문화민족인가라고 반문했을 때 자신있게 대답할 사람은 없는 실정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직도 문화가 정신이나 의식에서 우러난 결과가 아닌 어떤 외형적인 형식이나 물질적 소산으로 저울질하려는 습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문화란 어떤 인위적이거나 과시적인 의도의 소산은 아니다. 서양문화와 동양문화가 그 형태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인간을 중시하고 인간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인간과 자연이 하



차범석

대한민국예술원회장 · 극작가

나로 맞닿는데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주인이었다. 백성이 주체였다. 그래서 그들이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오랜 세월을 두고 갈고 닦고 다듬어낸 조화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정은 문화가 하나의 즉흥적인 발상으로 시작되고 일시적인 정책으로 끝난 경우를 자주 보아왔다. 지난 반세

기 동안의 격동의 세월 속에서 정치적인 힘을 겨루는데 문화가 이용당하거나 그 힘의 강도를 돋보이기 위해서 굽직한(?) 피조물을 세움으로서 문화를 과시한꼴이 되고 말았다. 그것은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들의 만족도는 있을지언정 대다수 국민들의 욕구하고는 거리가 멀었음을 자각해야할 것이다.

지방도시에 가보라, 어디에 불만한 공원이 있고, 박물관이 있고, 미술관이 있고, 극장이 있는가. 아니 더러는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진정 국민생활에 얼마만큼 만족과 융화와 일체감을 이루고 있는지 되돌아보자. 관이 주도하는 문화행사는 있었다. 그러나 민이 원하는 문화는 아직도 부족하다. 전통문화를 되살리자는 소리는 크지만 예산 타령으로 비바람 씻기우고 허물어진 채 방치된 문화재가 몇군데나 되는지 돌아보라. 시민들이 편히 들어설 도서관이 몇군데이며 그 장서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라. 내 고향에서 배출된 예술가나 정신적 지도자들의 동상이 과연 몇군데나 있는지 헤아려보라.

문화는 아주 작은데서 시작하여 순리에 따라 자라난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화는 아직도 전설같고 섬같은 느낌이다.

남발되는 ‘문화’ 파괴되는 ‘문화’

文化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文化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文化나 文明은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제철회사에서 만든 철판이나 공장에서 대량생산된 도자기는 文明의 소산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文化를 찾아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조각가가 그 철판을 이용해서 어떤 조각을 만들었다면 또는 어떤 도예가가 하나씩 손으로 빚어서 도자기를 만들었다면은 거기에 文化를 또는 예술적 감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인간이 만든 것은 다 文化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뛰어난 개성이 있는 것 또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그 뒤에 그것을 만든 사람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文化를 느끼는 것이다.

文化란 인간이 그 중심에 있고 동시에 인간의 개성이, 지역의 특성이 다양성을 만들어 낸다고 볼 수 있으며 人類가 공유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文化에 대한 일반론적인 생각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文化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정확히 말해서 韓國人에게 文化란 무엇인가? 우리 社會에서 文化라는 어휘는 잘못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文化란 일부 엘리트계층의 독점물이며 다분히 장식적 성격의 것이며 부수적인 것으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으로 흔히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말하자면 여유가 있을 때 생각해보는 배부른 사



김정욱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람들의 소일거리라는 생각이 없지 않다.

그러나 최근 文化라는 말이 부쩍 많이 쓰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世紀는 文化의 世紀라 하니, 文化外交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文化가 뒷받침해줘야 한다, 交通文化를 바꿔야 한다, 軍事文化다, 놀이文化다, 음식文化다 해서 文化라는 어휘가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남용되고 있다.

文化라는 어휘가 유행적으로 쓰여서 나쁠 것 없지만 다만 그런 경우에 文化가 인간의 生存에 本質로 파악되지 않고 수단으로 파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에 아프카니스탄에서 종교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해서 유네스코의 인류문화 유산으로 인정되는 石佛을 다이어마이트로 파괴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세계적 우려가 보도되었다.

人間은 文化를 지향하는 존재로 그래서 동물과 구별되지만 때로 反文化的이 되고 동물보다도 더 야만해진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야만하지 않다고 자위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프카니스탄에서 일어난 反文化的 파괴가 우리와는 정말로 무관한 것일까? 과거에도 때로는 무지로 해서, 때로는 편견으로 우리의 文化유산이 알게 모르게 수없이 파괴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계속 그러한 파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文化의 현주소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남북간 ‘문화상대주의’ 절실

우리 남한 사회에 북한예술이 제한적으로나마 소개되기는 10년 남짓 됐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북한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전개될 남북 문화 교류의 전망을 예측해 볼 때 한두가지 문제점을 우선 짚어봐야 할 것 같다. 첫째가 남한 사람들이 북한 문화예술에서 갖게되는 이질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문제이다.

다 아는 바대로 북한의 문화예술은 문화대중들의 기호나 성향보다는 사회적 통제나 동원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서 기능해왔다. 북한의 문화예술은 북한사회의 집단적 목표인 사회주의 경제 건설과 주체 사상의 심화 확대를 위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 생산되는 남한의 문화예술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틀에 맞춘 규격화된 북한의 미술작품이 남한 관객들의 분방한 상상력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항일 운동기의 영웅들을 주인공으로 한 혁명가극이나 사회주의 건설에 봉사하는 문학작품이 남한 독자들의 미적 취향을 만족시킬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마찬가지로 남한사회에서 생산된 문화예술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이해에는 더 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북한의 시각으로 볼 때 남한의 문화예술은 서구모델의 주체성을 상실한 퇴폐적이며 비생산적 예술양식으로 간주되기 십상이다. 사회통제나 사상적 결속을 위해서는 백해무익한 이같은 남한의 문화예술을 북한사회가 용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더욱 1인지도체제의 완벽한 통제사회에서 지도층의 동의 없이 남한문화예술이 북한 주민들에게



이종석

한국문화정책개발원장

수용될 가능성은 전무한 것이다.

이같은 남북한의 이질적 문화 예술의 교류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게 마련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쌍방 정부의 주민설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남한 안에서 북한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문화대중들의 정서적 거부감을 해소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차원의 교육을 통해서 가

능하다.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재편집된 북한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심한 거부감을 예로 들 수 있다. 북한방송의 뉴스의 소재나 아나운서의 과격하고 거친 말투가 생경감을 주기 때문에 남한 시청자들은 거부감과 함께 흥미를 잃고 만다. 그동안 우리가 접해온 북한미술품도 마찬가지이다. 이른바 사회주의 리얼리즘계 작품들의 획일화된 소재나 기법이 남한관객들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는 너무나 규격화돼있다.

우리는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북한의 뉴스방송에서 북한사회의 변화의 모습을 읽고 규격화된 미술품이 북한주민들의 미적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는지 알아야 북한문화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남한의 문화예술을 수용하기 위한 북한당국의 노력은 더욱 많은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저들은 먼저 문화예술이 단순히 그 사회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만 존재한다는 정치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간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정서의 함양과 문화예술에 의한 정신적 재충전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재생산하고 결집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닫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문화정책 ‘뒷전’ ... 객석엔 ‘빈자리’

21세기는 문화의 경쟁력이 나라의 힘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문화예술의 감상과 향유가 일부 부유한 특권층만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됐었습니다. 하지만 방송매체 및 운송수단의 눈부신 발달에 따른 지구촌의 글로벌화는 문화상품의 대량보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외되었던 서민층에서도 다양한 문화의 접근 및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이란 인간이 지닌 순수한 본연의 감성을 다양한 방식과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며 그 창조물은 힘들고 어려울 때 위안을 주는 안식처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숭고한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 지금 세계 각국은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우리 정부 또한 문화복지국가의 구현이라는 국정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만든 디즈니 만화영화 한편의 수익금이 우리나라 연간 총 자동차의 수출액보다 많다는 자료가 증명하듯이 고부가 가치산업인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문화예술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관과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와 예술인등 문화의 주체들만이 문화를 이해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할 뿐이며 문화의 객체인 국민들은 문화의 중요성을 등한시한 관계로 새로운 문화의 창조행위가 줄어들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국민들이 문화를 자주 접할 기회가 줄어들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성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둘째, 문화예술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는 많은 창작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많은 장소에서 관객들의 호응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실정은 공연장이나 전시관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그나마 중앙에 편중되어있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관객들과의 자연스런 만남이 어렵습니다.

셋째, 정부당국의 문화정책이 너무 소극적입니다. 문화에 대한 투자의 결실은 단 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투자의 효과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하며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크며 당장 눈앞의 실물경제 위주의 정부 정책에서 우리의 문화정책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넷째, 일부 유명인의 공연이나 기획전을 제외하고는 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도가 부족합니다.

다섯째, 우리 스스로 우리 문화에 대한 가치를 저평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우리문화예술의 현실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지만 본인 또한 예술인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우리나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한 순수예술인들의 집합체인 예총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많은 책임감과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향기가 울려 퍼지는 밝고 건강한 사회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문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심합시다.

주목받는 우리 문화유산과 박물관

지난 80년대 국립중앙박물관이 앞장서 벌인 우리문화·문화유산 알리기사업 끝, 문화강좌의 박물관대학과 월례답사회(세째주 일요일)는 우리 것에 대한 일반인들의 향유와 이해에 불을 지핀 촉매제로 그 공로는 길이 기억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구보다 공이 큰 해곡 최순우(兮谷 崔淳雨, 1916~1985)관장의 주옥같은 글과 심미안, 나아가 인품이란 힘의 넓은 자락이 있어 가능했다는 사실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그리하여, 90년대는 온 국토가 반만년의 유구한 문화유산임을 자랑삼는 궁지 속에, 수많은 문화계답사bum이 일어나고, 우리것 찾기 열풍이 출판에 까지 미쳐, 낙양의 지가를 올렸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이에 따라 국가의 조사발굴로 국립은 물론 공립과 시립박물관에서 문화재를 새롭게 수집·전시하게 됐음은 물론 뜻 있는 이가 사재를 털어 여기저기에 건립한 사립박물관등이 속속 문을 열어 백화난만 시기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불국사·석굴암과 팔만대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화성 나아가 고인돌과 경주 그리고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려져 우리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지고있다.

이제, 우리 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깨어지고 열려있게 됐다. 나라와 지방마다, '(그 지방)문화가 곧, (그 지방의)산업이고 (그 지방이)살아 남는 길이다', '가장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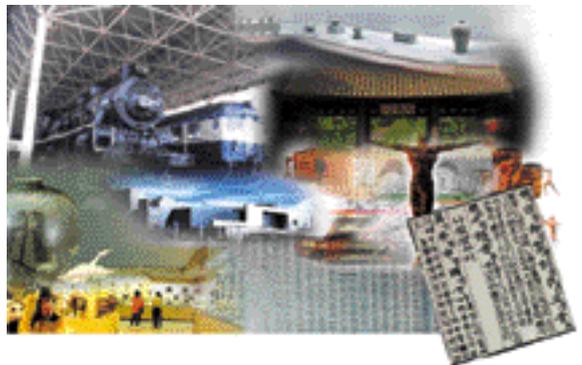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

적인 것이 바로 세계적인 것이고, (가장)그 지방적인 것이 바로 한국적인 것이다' 라는 신념은 곧,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로 모두가 확신하기에 이른 것이다.

때문에, 농촌은 농업박물관, 어촌은 어촌박물관을 지역마다 세우고, 정년퇴직선생은 다시, 열린교육의 학교박물관, 병원은 의학박물관, 철도는 철도박

물관, 맥주회사는 맥주박물관, 나아가 소리 박물관, 잠사박물관, 책·출판박물관, 탈박물관과 각 절마다의 성보박물관 등으로 가지가지 박물관을 저마다 사명감으로 힘을 내어 세우고 또, 세워가고 있다.

이에, 한국박물관협회까지 태동해, 국제박물관기구(아이콤:ICOM)와 연대해 우리 것을 제대로 지키고, 알리며, 도움주는 역할과 기능까지 펼치고 있어, 유구한 우리 문화와 유산을 통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선도할 주도적인 미래는 밝기만 하다.



‘공짜표’ 하나 달라고?

친구가 식당을 개업했다고 하자. 친구들이 축하하러 간다. 음식을 시킨다. 잘 먹는다. 지갑에서 돈을 꺼낸다. 친구는 받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돈 내고 나오는 것이 도리다.

친구가 극단을 차렸다고 하자. 어려운 조건 속에서 공연을 한다. 친구들이 전화를 건다. 초대권을 달라고 한다. 공연장으로 몰려 온 친구들도 표를 사는 사람은 없다. 공짜로 들어가려 한다.

왜? 음식은 먹는 만큼 축이 나지만, 공연은 사람이 많건 적건 어차피 하는 거니까?

공연을 공짜로 보려는 것은 음식 먹고 음식값 안 내려는 심뻐다. 음식보다 예술이 값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문화인식이다.

왜 이런 풍토가 조성되었을까? 가난했던 시절, 먹는데 돈을 썼지 문화에는 돈을 쓸 여유가 없었다. 그것이 풍토가 되었다.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는데도 이 풍토는 계속된다. 룬살롱에서 팁 주는 돈이면 살 수 있는 표도 공짜로 얻으려 한다.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니는데는 돈 아까운 줄 모르면서도 문화에 돈 내려면 그



문호근

예술의 전당 공연예술감독

렇게 아까울 수 없다..

돈 안내는 사람들의 머릿 속에는 이런 의식도 자리잡고 있다.

“우리아 문화를 아냐? 친구가 한다니까 인사치레로 가 주는 건데 뭣하러 돈까지 내?”

이건 이미 옛날에 사라져버린 ‘엽전 의식’이다. 자기비하, 무식한 걸 자랑으로 삼고, 무식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정 주고 받으면서 살던 때를 그리워하는 정서,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문화후진국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아직 국민 대다수가 같이 즐기면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 잠재력은 매우 크다. 정치인이 꼭 내 맘에 들지 않더라도 투표권을 행사했을 때 나라의 주인이 되어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내라고 요구할 수 있듯이, 문화내용이 꼭 내 맘에 들지 않더라도 돈을 내고 참여했을 때 문화의 주인이 되어 더 수준 높은 예술을 만들어 내라고 예술종사자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술인들은 고마워서라도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게 된다. 그렇게 문화를 키워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자랑스러운 문화국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에서는 표 사는 사람을 ‘패트론’이라고 부른다. ‘후원자’라는 뜻이다. 문화는 선진국에서도 시민의 ‘후원’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다. 좋은 문화는 결코 공짜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문화의 3대 상징 ‘한복’ ‘김치’ ‘한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복과 김치·한글을 한국문화의 3대 상징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간 우리문화가 지령 150호를 맞아 일반 시민 1백 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 상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3가지를 들라’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20여가지의 항목 중에서 한복(19.33%)을 가장 많이 선택한데 이어 김치(17.66%)·한글(17.33%)을 꼽은 응답 건수도 상당수에 이르러 이들 3개 항목의 총 응답건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4.32%나 차지했다. 이 3가지 항목을 모두 꼽은 신라문화진흥원의 최동락씨는 “우리민족과 같이 내려온 이 3가지는 한국하면 첫번째로 연상되는 것들로 우리 한국문화를 가장 잘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3가지중 문화재가 아닌 음식인 김치가 꼽힌 것은 주목할 만 하다. 한 응답자는 “여러곳을 여행하면서 만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은 88서울올림픽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나눌 때 가장 즐거웠던 것은 김치와 라면, 태권도였다”며 ‘김치’를 한국문화의 상징물로 선택한 동기를 밝혔다.

다음으로는 태권도(10.33%), 아리랑(9.00%), 석굴암·태극기(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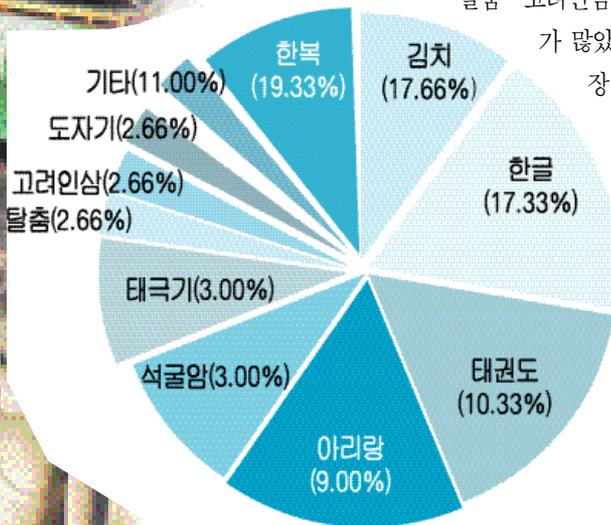
탈춤·고려인삼·도자기(각 2.66%)순으로 응답건수가 많았다.

이밖에 응답자들은 불고기·고추장(2.00%),

종묘제례악·제주도(1.00%),

한강(0.6%), 한옥·라면·장승·민요·제사·불교·선비·민화·종묘·무궁화·거북선·사물놀이·아파트(0.33%)를 꼽았다.

한편 이번 설문에 응답한 김모씨는 “자녀들이 결혼을 해 분가를 해도 인근의 아파트 단지에 살며 종래의 대가족 개념과 현대의 핵가족 개념을 잘 절충해 나가는 위성가족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문화가 되고 있다”며 ‘한글’·‘김치’와 함께 ‘아파트’를 꼽기도 했다.☞



일반시민 1백명 대상(3개 복수응답) 한국의 문화상징 조사결과

"생각하는 백성이어야 산다" 외친 함석헌

함 석헌(1901~1989)은 평북 용천 사람으로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1919년 관립 평양고보 졸업반 때 3.1만세사건에 적극 참여한 후 3.1만세사건에 참여한 잘못을 뉘우치라는 학교당국의 '반성문' 제출조건을 거부하고 자퇴했다.

그 후, 평안도 정주에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설립한 오산학교에 편입해 남강 이승훈, 다석 유명모를 스승으로 모시고 삶과 민족과 역사에 눈을 떴다. 그는 일본 동경사범학교에 입학하고, 동경 유학시절 우찌무라 간조의 무교회성서연구모임에 김교신과 더불어 참여했다. 1928년 귀국 후에는 모교인 오산학교에서 역사교사로 강단에 섰으며, 1933년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를 집필했다. 그는 일제시대에 여러 차례 감옥생활을 경험했으나 감옥을 '인생대학'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화두는 '민족, 종교, 과학'으로, 민족사랑, 진리사랑, 이성적 사고를 강조했다.

조국해방 후, 해방정국에서 함석헌은 평북문교부장관에 추대되기는 했으나 소련군에 의해 수감되었고 1947년 남하했다. 1950년 6. 25한국전쟁을 계기로 함석헌의 사상은 또 한번의 꺾질을 벗고 근본적인 깊이와 높이를 더하게 되었다. 그의 사상의 밑바탕에는 늘 성서사상 곧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으나 정통주의 기독교의 교리주의나 형식주의에 반대하고 노장사상, 공맹사상, 화엄사상 등에도 깊은 종교적 진리와 구원의 지혜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의 대표적 저서를 <뜻으로 본 한국역사>로 개창하고, 말년에 그의 웨이커에 가입해 평화운동에 진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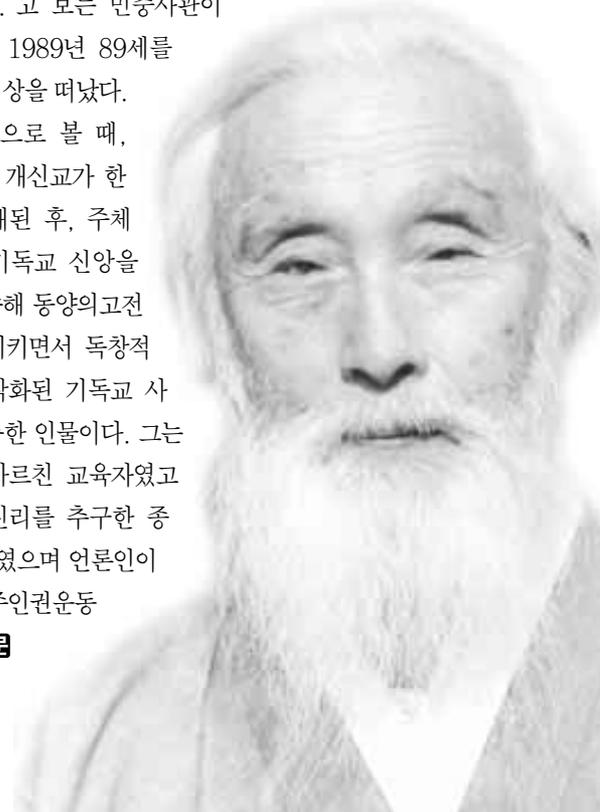
남하한 후 함석헌은 자유당정권, 군사정부치하에서 민주주의 운동, 인권운동 측면에서 '재야의

중심인물'로서 시민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했고 장준하선생이 발행하던 월간 '사상계'에 '생각하는 백성이어야 산다' 등 중요한 문필 활동을 했다. 1970년 월간 <씨알의 소리>를 창간해 그의 독특한 '씨알사상'을 본격적으로 서술하기 시작했고, 1976년 소위 '명동 3.1 사건'에 참여해 윤보선, 김대중, 정일형, 윤반용, 문익환, 안병무, 이문영 등 여러 사람과 함께 민주수호 양심세력의 중심인물이 됐다.

함석헌은 종교시 300여편을 남긴 탁월한 종교시인이며 문필가였지만, 그의 핵심은 행동하는 지성인, 진리구도의 종교사상가, 거짓과 비겁에 저항하는 시대의 양심이었다. 그의 중심사상은 '씨알사상'으로 대표되는데 '씨알'은 민중중에서도 순수한 사람됨을 지향하는 순수 우리말 표현이다. 그의 역사관은 영웅사관이거나 유물사관이거나 유심사관이 아니고, '역사의 담지자의 주인은 씨알이다.'고 보는 민중사관이

다. 그는 1989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총체적으로 볼 때, 함석헌은 개신교가 한국에 전래된 후, 주체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소화 흡수해 동양의교전과 대화시키면서 독창적이고 토착화된 기독교 사상을 이룩한 인물이다. 그는 역사를 가르친 교육자였고 인생의 진리를 추구한 종교사상가였으며 언론인이면서 민주인권운동가였다. **문**



우리 나라 역사상 가장 강대한 국력을 자랑했던 국가를 꼽는다면?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면 망설임없이 고구려를 꼽는데 별반 이견이 없을 것 같다.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는 민족 자긍심의 표상으로 오랫동안 회자되어 왔었기 때문이다. 고구려 영역이었던 만주 지역을 고토로 간주하면서 그 수복에 대한 열망이 가슴 속에 뜨겁게 일렁이지 않은 한국인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전성기 때 고구려는 동쪽으로는 오늘 날의 북간도를 비롯한 연해주 일대까지, 서쪽으로는 요하를 넘어 대능하선을 돌파하여 북중국의 북위(北魏)와 대치하였다. 고구려는 북경 근방에 '고려'라는 지명을 남겼을 정도로 중국 대륙을 넘보았다. 북으로는 부여 왕국이 있던 송화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다. 또 유목국가인 유연(柔然)과 더불어 지금의 내몽골 지역인 대흥안령 산맥 부근에 거주하고 있던 거란족의 한 갈래인 지두우(地豆于)에 대한 분할을 시도했었다. 그럴 정도로 그 영향력은 몽골 고원 지대

까지 찌렁 찌렁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남으로는 소백산맥 이남의 영일만까지 영역을 확보하여 치책에 두고 신라 수도를 압박하였다. 백제에 대해서는 그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켜 금강 유역까지 밀어붙였다. 이러한 고구려의 남진은 역사 기록에 적혀 있는 것보다 훨씬 남쪽까지 진척되었다. 대전의 유성 일대까지 진격해 와서 주둔했던 흔적이 포착된 바 있

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구려의 5만 대병력은 바람처럼 낙동강 유역까지 성큼 도달하여 백제와 가야, 왜의 동맹군을 격파하였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정세를 주도해 갔던 고구려의 웅자(雄姿)를 그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강성한 위세를 지녔던 고구려는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았다. 484년에 북위에 파견되어 온 사신의 서열이 남제(南齊)가 1위, 고구려가 2위였다. 고구려는 동아시아와 북아시아 전역에서 북위 및 남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국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489년에는 북위에 온 남제 사신이 고구려 사신과 동급으로 취급받자 불만을 가지고 항의할 정도였다. 고구려 장수왕이 사망했을 때였다. 부고(訃告)를 받은 북위의 황제가 상복(喪服)을 입고 동쪽 교외(郊外)에 나아가 애도식(哀悼式)을 거행하였다. 그리고 북위는 사신을 고구려에 보내 조문했다. 북위에서는 지금의 산동성 광효현 일대인 청주(靑州)에다 고구려 시조를 제사지내는 사당인 고려묘(高麗廟)를 세우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북위가 고구려에 대하여 최상급 대우를 하였음을 알려준다.

강대한 국력을 배경으로 한 고구려인의 웅자는 '양직공도(梁職貢圖)'에 그려진 고구려 사신의 모습에 인상깊게 전한다. 백제나 신라 사신의 다소곳한 자세와는 달리 고구려 사신은 가슴을 완전히 뒤로 젖힌 위풍당당하고도 호기롭게 서 있는 것이다. 5세기 중엽에 세워진 중원고구려비는 고구려가 신라를 동이(東夷)라고 칭칭하면서 신라왕 및 그 신료(臣僚)들에게 의복(衣服)을 하사했다. 고구려는 신라에 대해

고구려인들의 세계관



이 도 학

국립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

중주국(宗主國)으로 자처하면서 주변 제국(諸國)을 호령했던 것이다.

고구려는 이같은 국력에 걸맞는 독자적인 세계관이랄까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자국 시조를 '천제(天帝)의 아드님', '해와 달의 아드님', '황천(皇天)의 아드님'과 같은 최고 최상의 수식어를 총동원해서 기렸던 점에서 엿볼 수 있다. 성좌(星座)의 으뜸인 태양에서 왕가(王家)의 연원을 찾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까지 했다. 광개토왕릉비에 보면 고구려 왕가의 출신 계통을 이와 같이 신성화시켰고, 광개토왕 뿐 아니라 고구려왕에 의한 지배의 정당성과 절대성을 강조하였다. 가령 건국설화의 많은 부분은, 일시적으로 고난에 빠진 적이 있지만 시조왕의 영웅적인 분투로서 군사적인 원정이 성공리에 마무리되고 나라가 세워졌다. 그러므로 이 토지를 왕가가 점유하고 통치할 수 있다는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해서 광대한 영역을 가진 현재 왕국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시조인 주몽왕의 고난스러운 이동을 일종의 설화적인 형태로서 서술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집중시켰다. 동시에 영원히 기억으로부터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심한 결과 거대한 비석을 세운 것으로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광개토왕릉비문'에는 시조인 주몽왕은 하늘(天)과 물(水)이 결합된 체현자(體現者)로서 최후에는 지상계의 통치자인 고구려 왕이 되었다. 그러한 시조왕의 후손인 고구려왕은 천제(天帝)로부터 위탁받은 영토를 통치하는 신성한 존재임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사실 주몽왕의 도하설화(渡河說話)는 위기일발의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주몽왕은 왕으로서의 초능력을 부여받아 이러한 시련을 통과해서 불사신의 신체(身體)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이는 건국자의 능력증명서가 되겠기에 주몽왕의 사망을 하늘이 황룡을 보내어 맞아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모티브를 채용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광개토왕릉비가 세워지게

된 또 하나의 목적은 천제에 연원을 둔 고구려 왕가의 성덕(聖德)이 광개토왕에게 계승되어 왕에 의하여, 회교사회에서 말하는 헤지라와 같은 성전(聖戰)의 결과 주변 여러 나라와 민족이 왕의 덕(德)에 귀순하였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에 있었다. 여기서 주몽왕의 건국설화는 그의 후손인 광개토왕이 무력 수단에 의지하여 한껏 펼치는 정복사업의 정당성에 대한 배경이랄까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따라서 건국설화와 정복전쟁이라는 2개의 접속된 문단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서로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게 된다. 요컨대 고구려 군대의 힘은 여기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아울러 고구려인들의 자긍심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광개토왕릉비문」에는 "위무(威武)를 사해에 떨쳤노라(威武振被四海)"라고 했다. 「모두루묘지명」에서는 "천하 사방이 이 나라 이 고을이 가장 성스러운을 알지니(天下四方知此國都最聖)"라고 하였다. 사해 사방적 천하관은 중심국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말할나위 없이 자국인 고구려를 가리킨다.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은 그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호칭에서도 입증되어진다. 중원고구려비에서 신라왕을 '동이매곰'이라고 일컫는 것이 저명한 사례가 된다.

또 고구려는 주변의 종족을 '예맥(濊貊)' 따위로 기록하였다. 고구려인들은 중국인이 부여한 예맥과 같은 멸칭적인 종족 이름('예'는 '더러움'의 뜻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는 고구려가 '예맥'을 거느리고 전투에 참전한 '삼국사기' 기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예맥과 같은 멸칭을 자기 나라 주변의 종족이나 세력에게 부여하였던 것이다. 고구려는 이들을 통어(統御)하는 우월적인 존재인양 내세웠다. 고구려 중심의 소우주관(小宇宙觀)을 확립했던 것이다.

고구려인들의 이러한 자긍심은 찬연히 꽃을 피운 민족 문화의 뿌리가 되었다. 그랬기에 우리 민족은 슬한 국난(國難) 속에서도 외래 문화에 쉽게 동화되지 않고 민족의 정체성을 꺾이지 지켜 올 수 있었다. ㉞

한지 수첩 만드는 박제윤 미가힌 대표

‘한지 수첩’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만들어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미 가힌 공예방 대표 박제윤씨(48)는 한지수첩 제작가로 이름이 나 있다. 서울 강서구 가야 3동 주공아파트. 두어평 남짓한 안방이 그의 사무실이자 공방이다. 이곳에서 하루종일 종이를 자르고 구멍을 뚫고 실을 매고 풀칠을 한다. 한두시간 몰두한 끝에 수첩 하나를 만들어낸다. 겉으로는 간단하게 보이지만 알고보면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

우선 한지를 사와 자를 대고 직접 칼질을 한다. 자칫하면 손가락을 베기 십상이다. 각진 종이 모서리도 둥글게 다듬는다. 일정한 면수로 정리한 다음 그 사이사이에 색종이를 끼어넣으면 한결 수첩이 고와진다. 제본 역시 수작업. 일일이 구멍을 뚫은 다음 실로 연결한다. 포지는 마와 종이를 배접해 고풍스런 분위기를 자아낸후 그위에 글자와 문양을 실크 인쇄한다. 문양은 우리 동화속에 나오는 ‘까치호랑이’를 비롯 ‘버드나무와 새’, ‘도깨비’, ‘떡살’, ‘월상문’, ‘학’, ‘잉어’ 등으로 여기다가 빨강색·파랑색 물감으로 붓칠을 해 포인트를 준다.

이 모두 혼자서 해낸다. 하나 하나의 한지 수첩에 혼과 정성이 배어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양반 꽤 할 일 없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수첩 하나 만들어 얼마 번다고?’

한지 수첩 만들기 3년이라는 그에게 ‘심오한 답’을 기대하며 “왜 한지 수첩을 만드느냐”고 묻자 만

면에 웃음을 띠며 특하니 던지는 말이 마치 선문답처럼 들린다. “그저 호구지책이죠”

한번 더 동기를 묻자 3년전쯤에 전화번호수첩 사러 동네문방구에 들렀는데 아무리 뒤적여 봐도 맘에 드는 게 없어 직접 만들어본 게 한지수첩 제작가로 나서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 한지 수첩 만드는 박제윤 미가힌 대표

그에게 넌즈시 왜 기계로 만들지 않고 손으로 만드느냐고 물어봤다. “한지는 인쇄소에서든 받기지 않는 종이에요. 양지와 달리 추스리기가 힘들어 작업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인쇄소에서 보면 생산성이 없다는 거죠”

동네문방구에 맘에 드는 수첩 없어 직접 제작

하지만 그가 한지 수첩을 손으로 직접 만드는 이유는 한지에 대한 매력과 함께 수작업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지는 사람의 손을 거쳐야 제대로 빛을 낸다. 시중에서 파는 수첩들과 달리 박씨의 수첩은 정감이 어린다. 한지수첩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다 보면 ‘이건 차라리 작품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가 만든 한지 수첩은 3천원(小), 5천원(中), 7천원(大)에 납품된다. 색종이가 들어가면 이보다 5백원씩 더 비싸다.

서울 충무로 ‘한국의 집’이나 명동의 명품관, 인사동의 ‘통인’ 등에서 판매되고 기업체의 판촉·홍보물로도 주문제작된다. 시인이나 화가라면 자신의 작품을 담아 선물해도 좋을 듯 싶은 것들이다.

그러나 판매량이 썩 많지는 않다. 박씨는 한지수첩을 일주일에 보통 2백여개, 하루에 20~30개 만든다. 그는 지금까지 문화상품을 만들며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은 ‘판로’라고 말한다. 처음에 만든 한지 수첩을 갖고 면세점을 찾아갔는데 상대방이 판매가의 3분의 1로 납품해야 거래를 틀 수 있다고 말해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쓴 경험을 갖고 있다.

요즘 박씨는 한지 수첩만 고집하지 않고 한지 서랍장이나 원목나이트 액자등 폭넓게 샘플을 만들어 보고 있는 중이다. 벽장에는 아직도 팔리지 않는 한지수첩이 쌓여있다. 그가 독신이 아니고 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면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졌을 게 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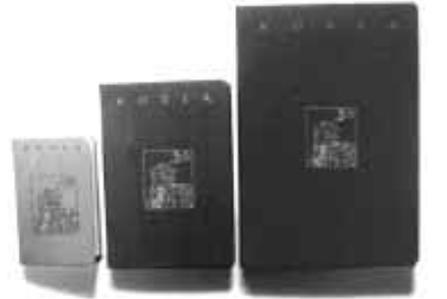
방 모퉁이에 한지수첩을 포장한듯한 물건이 있어 물어봤다. “이건 한지수첩인가요?” “아, 그거요? 인

터넷 경매에 한지수첩을 올렸는데 몇군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받느니 주소를 보니 지방의 학교 선생님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이다. 그러나 고작 해봐야 1만원 안팎의 주문일 따름이다. 그의 땀방울이 배어 있는 한지수첩이 제 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다시 포장물에 눈길을 던진 박씨가 무슨 생각이 난듯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말한다. “안팔리는 것 같으면서도 여기저기서 좋아라하고 주문이 오고 취재도 오고 … 참 신통방통해요. 하하하”

미기현의 문화상품들

한지 수첩은 수제품이라는 점에서 다른 시중의 수첩과 다르다. 서울 충무로 ‘한국의 집’이나 명동의 명품관, 인사동의 ‘통인’ 등에서 판매된다. 기업체로 부터 판촉·홍보물로 주문받아 제작되기도 한다. 시인이나 화가라면 자신의 작품을 담아 선물해도 좋을 듯 싶은 것들이다.



주머니

편집부



숲에숲에 영당숲에 / 뿌리없는 나무셨네 / 그끝
에나 여는열매 / 해도열고 달도열고 / 가지벌려 열
두가지 / 잎은피어 삼백이요 / 해는따서 줍치짚고 /
달은따서 안을받쳐 / 상벌따서 상침놓고 / 중벌따서
중침놓고 / 무지동대 끈을달아 / 무지개로 선을둘러
/ 서울이라 동백남개 / 연듯이라 걸어놓고 / 그줍치
를 누집었노 / 그줍치를 잘집었네.

이 노래는 거제지방에 전해지고 있는 주머니요
이다.

주머니는 조그만 소지품, 돈 등을 넣고 입술에 주
름을 잡아 졸라매어 허리에 차거나 손에 들고 다니
는 지금의 지갑이나 핸드백 같은 장신구의 일종이
다. 비단 형질로 만들어 수를 놓거나 금박을 올리
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지녔던 것
이다.

특히 우리 한복에는 조끼를 제외하고는 물건을
넣을만한 호주머니가 없어 실용적인 면에서 더욱
필요하였다.

주머니의 역사

주머니를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는지는 확실치 않
으나 「삼국유사」 경덕왕조에 “왕이 왕위에 오를 때
까지 항상 부녀(婦女)의 행동을 좋아하여 비단주머
니를 즐겨 차고 다녔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
아 신라시대 여인들이 주머니를 많이 찾던 것을 짐

작할 수 있다.

‘고려도경’에 의하면 “고려 귀가(貴家)의 부녀자
들은... 감람특건에 체조금탁을 달고 금향낭(錦香
囊)을 찻는데...”라고 적혀 있어 고려때에도 주머니
를 애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것으로는
후기의 유물이 많이 발견되는데 「낭발기」 등에 주머
니에 대한 기록이 많다.

명칭과 용도

명칭만 하더라도 십장생줍치, 오복꽃광주리낭,
오방낭자, 십장생낭자, 수낭, 고목주줍치, 오방염
낭, 황룡자낭, 봉자낭, 부금낭, 자리줍치 등 많은 종
류가 있었다. 임금은 용무늬의 봉자낭을 지녔다. 부
금낭은 지배계급의 권위를 상징하는 주머니이고 오
방낭은 청·황·적·백·흑의 5색 비단을 모아 만
들어 오행문을 상징하는 것이며 수주머니(수낭)인
십장생줍치는 매사에 길상(吉祥)을 기원하는 뜻이
담긴 주머니라 궁중에서는 가례때나 정월 첫 해일
(亥日)에 대내와 왕비의 친정, 기타 종친들에게 염
낭이나 줍치를 보냈다.

주머니는 비록 조그마한 물건이지만 손이 많이
가고 아끼자기하며 부적과 같은 뜻을 지녔기 때문
에 그 당시로서는 무척 귀중하게 여긴 선물이었다.

주머니 속에는 매번 누런콩을 볶아서 붉은 종이
에 싸서 넣어 보냈는데 이것을 해일(亥日)에 차면 1

년 내내 귀신을 물리치고 만복이 온다는 민속에서였다. 평민층에서도 돌잔치, 환갑잔치때에 주머니를 선물하는 것이 통례였고 새댁이 첫 근친을 갔다시댁으로 돌아오면 손수 정성껏 만들어 온 효도주머니를 시댁 어른들에게 드렸는데 이것을 복주머니라 하였다. 실용과 미를 겸한 장신구인 주머니는 형태, 용도, 입술을 접하는 방법과 그 소재에 따라 명칭이 각각 다르다.

형태는 크게 나누어 모난것(귀주머니 또는 줌치)과 둥근것(두루주머니 또는 염낭)이 있고 장식에 따라서 금박주머니, 수수주머니 등이 있으며 용도별로는 향낭, 약낭, 필낭, 수저집, 안경집, 싹지, 도장주머니 등이 있다.

민가에서 썼던 귀주머니는 세모주름을 잡았고 궁중의 것은 육모주름을 잡았다. 또 재료에 따라 갑사주머니, 숙고사 주머니, 모본단 주머니, 호박단 주머니, 가죽 주머니 등이 있다.

서민들은 대부분 옷감을 마르고 남은 자투리를 이용했고 궁중에서는 주머니 감을 필(疋)로 마련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여 만들었다.

남자용은 보라색, 옥색, 회색, 금향색의 사(紗)나 단(緞)으로 하여 길, 귀, 배꼽을 모두 같은 색으로 만들었고 여자용은 다홍, 분홍, 연두색 바탕에 귀와 배꼽은 꽃자주나 남색을 썼다. 안감은 보통 흰색을 썼으나 금향색 갑사에 연분홍 안을 받쳐 안이 비치면서 미묘한 색상이 나게 만든 남자용 귀주머니도 있는 것으로 보아 남자들이 주머니를 실용과 장식을 겸해 지녔던 것 같다. 평상시에는 호화로운 주머니를 차다가 상(喪)을 당하면 남녀 모두 흰

무명주머니를 찼다. 주머니에 놓는 금박이나 수(繡)의 도안은 십장생무늬, 불로초무늬, 매화무늬, 난초무늬, 박쥐무늬, 국화무늬, 배꽃무늬, 나비무늬, 수(壽), 복(福), 희(囍)자 무늬 등이다.

주머니의 종류

주머니를 종류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귀주머니(줌치) : 꾸밈새에 있어 남녀용이 같은데 가장 닳기쉬운 양쪽 귀와 중앙부 아래쪽 배꼽 부분을 따로 감싸듯 한 겹 더 대고, 가장자리는 곱게 상침해 주머니 원형에 부착시켰다. 주머니 입술에도 상침을 놓고 폭을 3등분 해 양편 솔기를 중앙으로 향해 접어오므로 6모주름을 잡고 안단을 댄 목 위치에 2개의 송곳자리를 내어 주머니끈을 꿰었다. 끈을 뒤에서 앞으로 꿰고 매듭을 맺어 주머니의 앞면을 장식했다.

❖ 두루주머니(염낭)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지니는 주머니였다. 색조는 귀주머니와 같으나 모양이 둥글다. 입술에 잔주름을 잡고 양편에서 서로 엇바꾸어 끈을 꿰고 각각 도래매듭·국화매듭·나비매듭 등을 맺어 늘어뜨린다.

❖ 어깨주머니 : 두루주머니에서 어깨를 떼어낸 모양이다. 주머니 입술에는 주름잡을 여분이 적고,



귀주머니와 같이 육모주름을 잡아 주머니 중심부에 구멍을 2개 뚫고 뒤에서 앞으로 끈을 꿰어 매듭을 맺는다.

❖ 황낭(黃囊) : 일반적으로 주머니에 노란색을 쓰지 않으나 혼례 때만은 노란색으로 두루주머니를 만들었다. 자주색 매듭끈을 꿰고 아들 아홉과 딸 하나를 두라는 덕담으로 팔알 아홉 개와 씨 박힌 목화 한 송이를 넣었다. 신랑이 장가갈 때 옷 속에 차고 가는 풍습이 있었다.

❖ 향낭(향주머니) : 규방이나 내실(內室)에서 또는 궁내 나인(內人)들이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형태가 다양하고 호사도 대단하여 귀족적 취향을 표현하였다. 수향낭은 장신구로 옷 밖에 차고, 갑사향낭은 대개 겉옷 안에 찼다. 향은 주로 사향(麝香)을 썼는데, 주머니에 넣지 않고 사용하는 줄향·비취발향과 같은 장신구도 있었다. 줄향은 홍·백·녹·황 등 네 가지 색으로 하여 실에 꿰어 염주(念珠) 모양으로 만든 것인데 궁궐내의 상궁(尙宮)들이 치마 속에 찼다고 한다.

❖ 진주향낭 : 너비 21cm, 길이 14.5cm의 대형 향낭으로 홍색운문단(紅色雲紋緞)에 금실로 수를 놓고, 그 위에 4mm 정도의 진주 263개를 앞뒤에 가득히 박았으며 입술 양편에 7개씩 주름을 잡았다. 끈은 쪽빛 원다회를 끼워 도래매듭·생쪽매듭·가지방석매듭을 맺고 낙지발 술을 달았다. 속에는 잘게 다진 향과 고운 가루향이 가득 들어있어 옛 여인들의 호사스러운 생활을 알 수 있는데, 주로 궁중에서 쓰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 매미수향낭 : 다홍과 쪽빛 단(緞)으로 너비 6cm, 길이 7.5cm의 매미 모양으로 만들었다. 매미의 머리는 금·은실로 구름무늬를 수놓아 두르고 눈알은 꽃자주색실로 도둑하게 수놓았다. 날개는 은실과 색실로 양색이 나게 수를 놓고, 매미의 입에는 6모주름을 잡고 가느다란 노란색 원다회를 끼웠다. 연두·자주·노랑·연보라 네 가지 색의 봉술을 앞뒤에 쌍으로 두 줄씩 늘어뜨린 매우 정교하고

아름다운 주머니이다.

❖ 사향낭(紗香囊) : 평상시에 항상 몸에 지니는 소형 주머니이다. 별 장식없이 귀주머니·두루주머니·어깨주머니로 접은 홍갑사 민주머니이다. 왕이 썼던 것으로 보이는 홍갑사향낭의 한가운데에는 금실로 '明'자를 수놓았고, 다홍빛 원다회로 도래매듭·생쪽매듭·국화매듭·잠자리매듭을 맺었다.

❖ 수저집 : 시집가는 색시가 손수 수놓아 마련하는 혼수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품목이었다. 행복과 기쁨을 상징하는 다홍색 양단이나 공단·모보단에 십장생이나 화조를 수놓고 안쪽에 옥양목을 여러겹 붙인다. 또 백지를 배접해 안을 대고 남색 솜실로 사를 뜨며 주머니 입술에는 상침을 놓아 매듭을 맺고 술을 달았다. 보통 은수저 두 벌을 넣을 수 있는 크기로 만든다.

❖ 십장생수안경집 : 옛날에는 멋으로 쓰던 풍안(風眼)이라는 안경이 있었는데 이것은 경주 남석을 갈아 안경알을 만들고 대모·물소뿔로 테를 만들었다. 이러한 풍안이나 돋보기를 넣기 위해 안경집을 만들고 그 위에 십장생무늬를 수놓아 화려하게 꾸몄다.

그 밖에 붓 종류를 넣게 만든 필낭(筆囊), 구급약 환약 등을 넣던 약낭(藥囊), 부시와 부싯돌을 넣는 부시쌈지와 담배를 넣는 담배쌈지 등이 있다. 주머니끈은 남자용으로는 8사(絲), 16사 등 원다회로 쪽빛, 진보라빛, 고동색을 쓰고 여자용은 다홍, 쪽빛, 자주색 등을 주머니 바탕색에 맞추어 꿰었다.

남자용 끈은 도래매듭, 생쪽매듭, 국화매듭, 잠자리매듭을 맺는데 뒤에서 앞으로 먼저 주머끈을 매어 놓고 맺는다.

여자용은 나비매듭·병아리매듭·국화매듭·생쪽매듭·도래매듭으로 구성하고 날개매듭으로 술처럼 늘어뜨리는데 매듭을 먼저 맺고 앞에서 뒤로 끈을 꿰게 되어 있다.☞

이 글은 민족문화사발행 「한국민속대사전」에서 추려온 것입니다.



지역문화의 개성과 힘을 원하는 저 눈빛들

청도의 소싸움은 소재가 독특하다는 것만으로도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박진감 넘치는 황소의 힘 자랑과 함께 함성을 지르며 삶의 스트레스를 풀고 봄날의 나른함을 날려 버리는 기회란 흔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시 축제란 일상성을 뚫고 나오

는 힘이 있어야 제맛이다. 청도 소싸움 축제는 오는 5월 2일 부터 6일까지 청도군 이서면 서원리 서원둔치 행사장에서 열린다. <뉴스파일 편집팀>



2001. 지역문화의 해 뉴스파일 27~34면



‘지역문화의 해’ 웹사이트 오픈!

인터넷에 꽃핀 인국의 지역문화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위원장 이 중환)는 3월 31일에 인터넷에 ‘지역문화의 해’ 홈페이지(www.region2001.org)를 정식 오픈하였다. 이미 1월 31일부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든 내용을 볼 수는 있었으나, 기타 세세한 부분을 수정하고, 네티즌의 반응을 반영하는 등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거쳐 보다 충실한 사이트로 모습을 드러낸 것.

홈페이지에는 ‘2001, 지역문화의 해’에 시행될 10대 사업의 취지와 기획이 일목요연하게 소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의 과정이나 결과물을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인들이 사업내용에 다가서지 못했던 단점을 극복하려고 애썼다.

예를 들면 지난 1월 18일과 19일에 대전 유성에서 열렸던 ‘지역문화 대토론회 - 백가쟁명’의 발제문과 토론 결과를 텍스트로 올려놓았고, 주요 장면

은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도록 꾸며 놓았다.

초기화면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금주의 지역문화」 코너. 여기서는 매주에 벌어지는 전국 각지의 향토 축제와 문화행사들을 꾸준히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굳이 인터넷을 헤매고 다니지 않아도 이곳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게 된 셈.

또 지난 10년간의 ‘문화예술의 해’ 사업의 발자취를 둘러볼 수도 있고, ‘지역문화의 해’에 대한 네티즌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토론장인 자유게시판도 마련되어 있다. 그밖에 각종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홈페이지도 링크시켜 검색의 편의를 도모했다.

향후 지역문화의 대표사이트로 기폭 예정

추진위원회가 홈페이지 구축에 가장 신경을 쓴 문제는 사이트의 지속성. 예년의 문화예술의 해 홈페이지는 사업이 끝나고 해가 바뀌면서 대개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는 올해가 지나가더라도 ‘2002 월드컵’ 등 굵직한 국가적 행사가 있기에 앞으로도 꾸준히 홈페이지의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지역문화 포털 사이트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무리 잘 만든 사이트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런 폐단을 막고자 추진위원회는 네티즌들이 반길 각종 공모사업과 사이버 이벤트를 개최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청소년층의 관심과 호응을 끌어낼 생각이다.

특히 군 단위의 지역에서는 청소년층의 인구 급감으로 인해 지역문화의 미래가 밝지 않



< '2001, 지역문화의 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은 상황인데, 이를 위해 '지역문화의 해'에서는 청소년층이 주축이 되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문화를 영상물로 제작하여 응모하도록 하고 그 중 우

수작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인들이 살펴볼 수 있게 하는 등 영상과 웹에 지역문화라는 콘텐츠를 결합하는 이상적인 모델로 가꾸어 갈 예정이다.

'지역문화의 해' 맞아 각계에서 깊은 관심

“지역'은 무엇이고, 왜 2001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선정했습니까?”

'지역문화의 해'에 대한 언론과 방송의 관심이 뜨겁다. 매일 밤 8시 45분부터 15분간 방송되는 EBS 교육문화뉴스에서는 '2001,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매주 금요일밤 '지역문화' 특집시리즈(담당 김현중 PD)를 연중기획하여 내보내고 있을 정도.

지역의 방송사들은 더욱 열의를 보이고 있다. TJB 대전방송에서는 1월 18, 19일 대전 유성에서 개최된 「지역문화 대토론회 - 백가쟁명」의 결과 발표 부분을 2월초에 방송하기도 했다.

방송과 언론사 뿐만 아니라 문화관련 시민단체들과 학자들의 논의와 기고도 차츰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1월 3일(수)에 있었던 충북민예총 주관으로 「지역문화의 해와 지역문화」 세미나가 열렸었고, 월간 『민족예술』에서는 2월호부터 5회에 걸쳐 '지역과 문화'라는 심층보도를 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아직 홈페이지를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아 네티즌들의 반응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가상공간에서도 젊은 네티즌들의 지역문화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함께 토론하는 이슈포럼

지역정서 없는 지역문화 축제, 무엇 때문에 지속하는가?

이 말은 '2001, 지역문화의 해' 이슈포럼 메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론의 의제로 다소 도발적이기는 해도 남발하고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할 만하다. 현재 글이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지역축제에 대한 관의 개입을 따끔하게 질책한 글에서부터 어느 지역을 가도 비슷한 내용이라 재미와 특징이 없음을 지적한 글 등이 올라 오고 있다.

흥미있는 것은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추천을 하는 기능이 있어 자신의 글이 얼마나 호응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점.

앞으로는 매월 한 차례씩 토론 주제를 바꾸어 지역문화 현안을 토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많은 추천을 받은 글의 경우 본지의 뉴스파일에 실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문화, 상상력이 살린다

이 중 한 |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장

여행의 첫날은 누구에게나 어느날보다 길게 느껴진다. 그날 하루는 온종일 새로운 경험들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이 새 느낌이 곧 지역문화의 특수성에서 오는 것이다. 외국사람들이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긴 첫날과 또는 그 다음날을 기억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자신이 국내여행을 하면서 어딘가 좀 다른 마을의 분위기를 찾을 수 있는가. 이런 느낌의 문제를 생각해보자는 것이 '지역문화의 해'의 할 일이다.

하지만 지역문화의 해를 진행하면서 확인하는 것은 특수성이 아니라 획일성이다. 나만 가진 것을 아끼고 키우기보다는 모두가 가진 것에 비슷비슷해지기를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추구해 오지 않았나 싶다. 그 추구의 기준도 도시화에 있다. 그러나 전국을 도시화한다는 일은 불가능한 추구이고, 이 때문에 야기되는 정서적 빈곤감만 키우게 마련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비슷비슷해지기 속에서 지역단위 상상력의 역사가 와해되어 사라진다는 것이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말한다. 이 말은 구호가 아니라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논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을 익숙하게 쓰면서도 그 문화의 시대를 무엇이 만들고 이끌고 있는지를 말하는 사람은 적다. 이 답안에도 지역문화가 등장한다. 지역단위의 독자적 상상력이 바로 문화의 시대를 창조하는 원천이다. 인문학적 수사처럼 있어왔던 '상상력'이라는 어휘가 오늘처럼 실질적 용어가 된 것은 이 변화의 시대에 가장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은 지금 문화영역에서가 아니라 기업경영 영역에서 더 상용된다.

'수평선 너머를 보는 것, 틀에 박히지 않은 무언

가를 찾아내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런 문장이 기업 경영도서에 상투적으로 등장한다. 우수한 기업들에는 '상상가'라는 직책까지 만들어졌다. 이 직책을 맡기 위해서는 '친숙한 것'이라는 장애물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윌트 디즈니는 아예 '상상력 집단'을 운영한다. 이들이 하는 일은 꿈꾸는 일이고, 그 꿈꾸는 일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모든 꿈 아이디어는 실패해도 좋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최고 경영자의 역할이다. 과제는 그 상상력을 어떻게 증진해야 하느냐에 있다. 훈련된 상상력, 규정된 창의력, 지성적 직관이 어디 눈에 띄는 곳에 있다면 좋겠으나 물론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독창성과 특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의 원자재들을 찾으려 나서는 것이다. 그 상상력의 원자재들이 곧 지역단위의 문화 속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화산업·문화콘텐츠산업·관광산업이라는 말들도 익숙하게 되었다. 우리에게서



△추진위원회 회의 장면

도 이제는 정책의 기본용어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산업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에는 허점이 크다. 우리는 지금 무슨 단지나 센터같은 것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땅을 넓게 잡고 번듯한 건물을 세우는 것이다. 새 산업도 여전히 장치산업과 비슷하다고 보는 셈이다.

문화영역 산업은 이런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과는 관련이 적다. 상상력의 소재를 찾아야 하고 그것을 찾으면 제품의 생산은 일류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면 된다. 자기 공장이 필요없는 것이다.

자신의 전통에 기반한 상상력을 갖지 않으면 문화산업의 세계화라는 거창한 캐치 프레이즈 밑에서 강한 문화의 패권적 영향만을 받게 된다. 일설 문화적 혼합도 새 상품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나의 경제력이 되기는 어렵다. 때문에 거대 문화산업에 선점된 시장에 방어력을 만드는 길도 자국문화의 특수성을 유지하고 세련화시키는 데 있다는 생각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문화의 해'는 운영해 볼 만한 좋은 출발점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문화는 어떤 차이를 만들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해 보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의 진정한 상상력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나의 주변에 있는 어떤 물건이 나의 것인가도 반성해 보아야 한다.

우리의 관광지에는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타이완, 메이드 인 필리핀이라는 표시가 명료한 한국 민속품들이 산적해 있다. 여행중 음식 하나의 지역 특성을 찾기도 어렵다. 어느 해안 특산 생선회가 도시를 거쳐서 온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맛마저 사라지면 지역풍정은 소멸하는 것이다. 지역문화의 해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것들이다.(문화일보 2001년 3월 10일 토요일자 7면)

상반기 각종 지원사업 결정

삶의 질을 높이고 왕성한 창작욕을 표현하려는 지역주민과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

이 있다. 어떤 행사를 기획할 것인가, 행사의 재원은 어디서 조달해야 하는가, 문화시설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하는가 등등 그들 앞에 많은 난관이 펼쳐져 있게 마련이다.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들은 이러한 지역의 오래된 갈증 해소에 조그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역문화 컨설팅,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지역사회 소규모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 지원, 지역문화 현장 탐방 및 대화 등 4종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지원사업들의 심의 과정과 기준,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보고이다.

1. 지역문화 컨설팅

추진위원회에서는 3월 15일 현재 52건의 컨설팅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추진위원 22명과 외부 전문가 60명 등 총 82명의 자문단을 구성하였다. 컨설팅 신청접수는 연중 계속될 예정이며, 컨설팅트 위 속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컨설팅의 분야는 축제기획, 공연기획, 전시기획, 기타 이벤트 기획, 예술단체 운영, 자금 확보 방안, 홍보, 공연장 운영,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운영, 문화인력 교육, 문화유산, 디자인, 문화강좌, 관객 개발, 여성프로그램 등 15개 세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컨설팅은 현장을 찾아가는 직접 면담, 전화, 서면, 교육·워크숍을 통한 강좌 및 실습프로그램, '지역문화의 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된다.

그 첫 시작인 3월의 컨설팅은 그간 접수된 것 중 행사시기가 촉박하고 특수성이 두드러진 사안을 지역별로 우선하였다. 그 대상은 강원지역의 지역축제 발전방안 마련(춘천 10개 축제, 강릉단오제 등), 농촌 중소도시의 전통중가 발굴·계승 및 관광자원 활용화(전북 김제), 문화마을 조성(경남 합천), 문화시설 운영(강원 삼척) 등 16건에 대하여 현장컨설팅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또한 기 접수된 사



안과 앞으로 들어오는 신청서는 유형, 시기,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월 15~20여 건)으로 컨설팅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컨설팅 활동을 '지역문화의 해' 사업인 '지역문화현장 탐방 및 대화'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가급적 현장성을 높여갈 예정인데 이 사업이 중앙의 안목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특별히 컨설턴트 구성에 있어 전국적인 고른 안배와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또한 일방적 모범답안 제시를 지양하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정서에 어울리는 최적의 프로그램 구성 및 지역문화시설 운영 등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에 최대한 초점을 맞춘 '눈높이 컨설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 기회에 전국의 문화전문가들의 네트워크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며 컨설팅 결과는 '지역문화의 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연말에 매뉴얼 북으로 엮어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이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2.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활성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총 80개 단체의 활동을 연중 지원할 계획인 이 사업에는 상반기에만 104개 단체가 신청하여 54개 단체의 프로그램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오는 5월 15일까지 2차 신청을 받아 26개 단체를 더 선정할 계획이다.



△심의회 의 장면

선정대상은 참신한 내용과 짜임새있는 기획, 주제와 작품성이 두드러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되 <영호남 마당극 교환공연>과 같이 지역간화합을 위한 교류프로그램, <도서지방 순회공연>과 같이 문화향수기회가 적은 곳을 순회하며 지역주민 화합과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정기발표회 등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다.

또한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이 소극적인 문화향유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문화창작자로서 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펼치는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산청한시가족동호회>, <칠갑산사진동우회>, <장목회> 등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동호인모임의 프로그램도 다수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풀뿌리문화활동의 활성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지역사회 소규모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 지원

이 사업은 '지역문화=지역축제'라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이 삶 속에서 가꾸어온 지역의 개성을 담은 소규모 문화활동을 발굴·육성하여 지역정체성을 정립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기획된 것으로서 전국 시군으로부터 100여 건을 신청받아 이 중 65건을 심의 선정하였다.

지원대상은 이미 널리 알려져 다른 공공기금을 지원받아온 프로그램은 가급적 배제하고 <연도여자상여소리>, <곰머리 벽구놀이>, <갯마을축제 조사연구>와 같이 그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갖춘 것, <문화가 있는 거리 조성>, <은행나무축제>와 같이 지역사회의 통합성 및 고유성을 보여주는 것, <한바들해바라기축제>와 같이 소재의 차별화가 두드러진 프로그램, <외국인근로자 유적답사>나 <아파트단지 가족문화예술 한마당>과 같이 축제 일련도의 지역 문화 사업에서 벗어난 일반 주민들을 위한 생활밀

착형 문화프로그램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에서는 오는 5월 15일까지 2차 접수를 받아 30여 건을 더 지원할 예정이다.

4. 지역문화현장 탐방 및 대화

지역문화 현장의 고충을 듣고 각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관련 공무원들이 만나 세미나와 초청강연, 지역문화행사 탐방 등이 주된 내용이다. 첫번째 탐방지역은 강원도에서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열린다.

첫날은 원주에서 대화소설 <토지>의 저자 박경리 씨의 강연을 듣고, 영서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세미나가 있을 예정이고, 이튿날에는 고성

에서 영북지역의 문화예술인과 세미나를, 출향인사와 일본의 지역문화 전문가가 초청강연을 할 계획이다. 또 영동지역에서는 강릉에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으로 이때는 강릉단오제의 컨설팅도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지역문화현장 탐방 및 대화」는 지역정서와 문화상황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며,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문화전문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역전문가들의 의사소통과 네트워크 구성 등의 면에서 컨설팅 사업과 유관하기에 연말까지 꾸준히 연계되어 진행될 것이다. 추진위는 현재 4월의 탐방대상을 충청남도도 정하고 지역의 문화활동가들이 모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선정 결과

지 역	예 술 단 체	프 로 그 램 명
경기 수원	꿈꾸는어린이극장	초등학교 순회연극공연
경남 양산	(사)문화마을들소리	문화마을 들소리 순회공연
강원 태백	음향태백지부	태백합창단 공연
광주	서구문화원	서창동 만드리 농요발표회
대구	극단 함께사는세상	문화소외지역 순회공연
서울	아트노우	모세혈관 문화운동
대구	기루뱅이농악보존회	청소년 전통문화 활성화교육
충북 영동	감골소리국악관현악단	지역간국악교류
전북 군산	군산시립예술단	순회공연 및 김천시 방문공연
경남 진주	진주청소년 챔버오케스트라	순회연주회
경남 남해	남해사진동우회	영·호남사진전시회
전북 장수	장목회	문화학교 서예작품 전시회
전남 나주	극단 예인방	예술단체 공연
충북 충주	풍물굿패 물개	화음즉흥음
강원 속초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연주회
울산	동해민속예술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울산	동해민속예술원	청소년풍물한마당
경남 사천	예총 사천지부	향토사랑 구천가요 조사 및 보급
전남 진도	군립민속예술단	도서벽지 위안공연
경기 부천	부천문화원	민속5일 장터와 문화유적 답사
인천	인천여성문화회관	인천지역 순회공연



지 역	예 술 단 체	프 로 그 램 명
울산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예술단
강원 고성	고성문화원	공연 및 시조경청대회
전남 담양	담양군예술인협회	예술작품전시회
제주	음협제주도지회	음악 순회공연
경북 김천	김천문화원	김천무주문화교류전
광주	극단 진달래피네	연극 〈서툰사람들〉 공연
인천	풍물패 더늠	순회 풍물굿 공연
경기의정부	이미속도듬무용단	지역축제 순회공연
부산	강서예술인연합회	문예창작촌 개촌기념 전시회
대전	대전중구문화원	시민을 위한 국악한마당
충북 보은	보은개나리합창단	개나리합창단 지역순회공연
인천	은울탈춤보존회	어린이반 지역순회공연
경남 산청	문화가족노래사랑	강살리기 음악회
인천	인천시립교향악단	도서(섬)지방 순회공연
서울강남	강남문화원	강남압구정문화재현
충남 예산	풍물패 아사달	신명나는풍물한마당
충남 부여	충남국악단	오지 순회공연
전북 전주	(사)호남오페라단	지역간 순회공연
충남 아산	아산시립합창단	시립합창단순회공연
충남 금산	활동사진모임	단편영화 작품전
충북 청주	충북민예총 예술사업위원회	충북·제주간 문화예술교류
울산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울산시립무용단교류
제주	극단 가람	청소년 연극순회공연
전북 김제	전북조각회	동해시·구미시 순회교류
경기 광명	광명문화원	광명비디오영상전
전북 임실	국악협회 임실지부	찾아가는 장터국악공연
인천	인천시립합창단	국제공항·항구도시간 문화교류
대구	예총 대구지회	영호남음악대축제(광주)
전남 광양	연극협회 광양지부	하동군·남해군 순회공연
충북 충주	민예총 충주지부	어울림 한마당
충남 청양	칠갑사진동우회	칠갑사진동우회전
대구	민예총 대구지회	영호남 미당극 교환공연
대구	연예협회 대구지회	청소년을 위한 열린음악회

※ 1개 광역시·도별로 5개 이하의 단체가 선정된 시·도에서는 5월 15일 까지 하반기 지원 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덕숭산 수덕사

예산문화원 제공

예 산군 덕산면 사천리 덕숭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수덕사(修德寺)는 백제때 건축양식인 대웅전과 그 벽에 걸쳐져있는 고려시대 벽화 때문에 일반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교계에서는 그 이전에 만공 월면선사(1871~1946)의 주석처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가야산 남쪽 지봉인 덕숭산 남쪽 중턱에 위치한 수덕사는 백제 제29대 법왕 원년 지명법사가 창건하고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현현이 삼론(三論)을, 송제가 법화경을 강론하던 고찰중에 고찰이다.

신라통일 후 원효대사가 중수하고 수도를 하였고 고려 때는 나옹화상이 근세에 와서는 경허선사가 주석하였으며 특히 만공선사가 주석하면서 선풍(禪風)을 크게 떨친 국내 유수의 수도도장이다.

대웅전

수덕사 대웅전은 백제계 고려시대의 건축물로 손꼽히는 이 지역의 대표적 건축물로 여러 법당들이 이 대웅전을 본떠 세웠기 때문에 표본이 되는 모범적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국보 제49호로 지정돼 있다.

수덕사 대웅전은 1308년 중진된 정면3칸 측면3칸 맞배지붕으로 백제계 건물답게 주간(柱間)이 넓고 상대적으로 기둥이 낮아 광활하고 평퍼짐하며 안정되어 대지를 연상케 한다. 산곡에서는 볼 수 없

는 형상이기도 하다. 간결미와 필요미가 연출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중요한 특징은 가운데가 슬적 부풀어 탱탱한 팽창감을 느끼게 해주는 배흘림 기둥에 단순하고 간결한 구조속에 정숙하고도 단아한 아름다운 조형을 이상으로 삼은 것은 백제계 고려건축의 대표이다.

벽면은 아무런 수식이 없고 백색과 노란색 단청은 조용한 아름다움으로 돋보인다.

정면 문짝 창살무늬 마름모꼴의 사방연속 무늬도 역시 단순한 구조이지만 공을 들인 목공의 치밀한 손끝에는 감탄없이 바라볼 수 없는 재주가 있다고



△ 수덕사 대웅전

수덕사 대웅전은 백제계 고려시대의 건축물로 손꼽히는 이 지역의 대표적 건축물로 여러 법당들이 이 대웅전을 본떠 세웠기 때문에 표본이 되는 모범적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국보 제49호로 지정돼 있다. 수덕사 대웅전은 1308년 중건된 정면3칸 측면 3칸 맞배지붕으로 백제계 건물답게 주간이 넓고 상대적으로 기둥이 낮아 광활하고 평평잡해서 안정되어 대지를 연상케 한다. 산곡에서는 볼 수 없는 형상이기도 하다. 간결미와 필요미가 연출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유홍준(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는 서술하고 있다.

패 불

장정 30명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는 패불은 높이 13미터 폭 7.5미터 크기의 패불상 탕화로서 원만보신, 노사나불, 제불보살과 제대아리한 및 제천 등 권속들이 전후 좌우에서 웅위 협시한 대회도(大會圖)라고 한다.

이 패불은 강희(康熙) 12년(1673) 계속 맹하 현종14년 4월에 수덕사에서 조성하였다는 화기(畵記)가 분명한 것으로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가 1992년에 조사 결과 밝혀졌다.

수덕사와 애환의 두 여인

● 김일엽(金一葉)스님 : 수덕사 하면 김일엽스님과 수덕여관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김일엽스님(1899~1971)의 본명은 김원주이다. 목사(牧師)의 딸이었던 스님은 조실부모한 후 23세 때 이화여전(이화여대 전신)을 졸업하고 3·1 운동후 일본에 건너가 동경 영화학교를 다니다 귀국하여 「신여성(新女性)」이란 잡지를 창간하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 최초의 순수문학자인 「조선문단(朝鮮文壇)」의 시(詩)부분에 등단하고 시인으로서 신문화운동, 신여성운동에 참여하였다.

일엽스님은 당시 사회적 도덕률에 도전하는 글과 처신으로 술한 화제에 올라 소문난 여자이기도 했다. 한참 정열이 넘쳐흐를 때의 ‘그대여 웃어주소서’ 라는 시를 옮겨 본다.

으서적라 찌안기던 그대의 몸
숨가쁘게 느껴지던 그대의 입술
이 영역은 이 좁은 내 가슴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고운 모습들을 싸안은 세월이
뒷담을 넘는 것을 창공은 보았다잖아요.

뜨거운 정열을 소진하고 난 다음에 오는 허망을 노래한 듯 싶다.

스님은 38세(1933)때 수덕사로 와서 만공선사를 만나 견성암(見性庵)에서 머리를 깎고 출가하였다. 대웅전 아래쪽에 환희대(歡喜臺)라는 작은 절집이- 지금은 법당을 세웠다- 그 옛날 견성암이었다.

일엽스님은 인생회고록 책 제목처럼 「청춘을 불

사르고」 살다가 1971년 세수 76세 법랍 38년으로 열반하였다.

- 수덕여관 할머니 : 수덕여관의 명성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쓸쓸하고도 조용한 주인 할머니는 우리나라 현대미술사에 있어서 걸출한 화가 고암 이응로의 부인이다.

고암은 작가적 열정이 대단한 화가로서 다양한 작품세계를 섭렵(涉歷)하였고 방대한 작업량을 자랑하여 고암만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화가도 없던 성싶다.

그리고 고암만큼 정치적으로 파란을 겪은 화가도 또한 없다 하겠다. 1957년 고암은 자신의 예술을 국제무대에서 펼쳐 볼 의욕으로 파리로 건너갈 때 이화여대 제자 박인경 여사와 함께 갔다.

오래 전부터 본부인을 버렸고 본부인 또한 버림 받은 채 살아왔다고 한다. 그렇게 버림받은 고암의 본부인은 초가집 수덕여관을 운영하며 일생을 수절 했으면서도 남편에 대한 원망이나 섭섭한 내색은

얼굴에 비치지 않는다.

1968년 이른바 동백림공작단 사건으로 고암이 중앙정보부원에게 납치되어 1년 여를 옥살이할 때 옥바라지를 한 분이 버림받은 이 본부인인 수덕여관 주인 할머니였다.

6·25때는 본부인과 같이 이곳에서 지냈으며 또한 출옥한 고암은 이곳에서 얼마동안 머물러 있을 때 수덕여관 뒤뜰에 있는 너럭바위에다 문자(文字) 추상화를 새겨 놓고 '1969년 이응로 그리다' 라고 낙관도 새겨 놓았다(지금은 여관 앞뜰에 옮겨 놓았다). 그러나 출옥한 고암은 이내 파리로 돌아갔다. 이것을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해야할 것인가, 슬픈 이야기라고 할 것인가. 어쩌면 한국여인의 고답적인 체념어린 순종을 그 분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쓸쓸한 얘기를 만들어 낸 고암의 행태는 예술가적 기질이라는 명목으로 면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문**



◁ 수덕사 전경

연간 관람객 1백20만명...그래도 민족혼 일깨우는데는 '부족' “혹시 오늘 관람객이 없으면 어쩌나”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3.1절이 일주일 남짓 지난 9일 충남 천안시 목천면 남화리 독립기념관. 1백만평의 드넓은 대지위에 독립기념관이 여느때와 다를 것 없이 웅자(雄姿)를 드러내고 있었다. 매표소로부터 현관까지 나 있는 1백여 미터의 진입로를 걸어 들어가는데 봄을 시샘이라도 하듯 한 줄기 매서운 바람이 칼날처럼 빠르게 가슴팍을 후비며 지나갔다. '그러나 꽃샘추위 때문에 웅크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독립기념관이 다가

오자 자못
'답살스런' 비
장감 마

저 들었다.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36년간의 길고도 혹독한 '겨울'. 이것을 독립기념관은 고스란히 보여준다. 유관순등 항일 운동가들을 거꾸로 매단 채 매질과 물고문을 하고 이것도 모자라 움작 달싹 못하게 만든 목관에 가둔 채 몇날 몇일을 세워두었던 당시의 고문장면을 재현한 것을 보노라면 몸이 부르르 떨려온다. 지난 87년 설립된 독립기념관의 하루 방문객은 3천여명. 연간 1백20만명이 오간다. 그중에는 일본인도 상당수에 이른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만족할수 없다는게 박유철 관장의 속내다. "더 많이 찾아오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찾은 나라인지를 일깨워주기 위해, 일본인에게는 올바른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 아직도 할 일이 많다" 그래서 박유철 관장은 우산장수와 소금장수를 든 노모처럼 바람이 불어도 날씨가 더워도 걱정이다. '혹시 오늘은 관람객이 없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 때문이다. 바쁘게 통화하는 박 관장의 방을 노크했다.

오늘 신문을 보니 묘한 느낌의 두 기사가 실렸더군요. 하나는 방일종인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가 일본 모리 총리에게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에 관해 한국민과 정부의 우려

◁박유철 독립기념관 관장

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일본 모리 총리가 대입센터시험 외국어 선택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된다고 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일본의 대표적인 언론인 산케이신문이 '독도는 분명히 일본 영토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오히려 한국정부에 대해 독도의 '불법점거'를 해소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더군요. 이런 일본을 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허 참. 글썄 말이에요. 일본과 우리는 '동양'이라는 점에서 상통하는 바가 큰 이웃 국가인데 말이죠. 국제 사회에서도 그 어느 국가보다도 가까워야 할 동반자 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이중성이예요. 이것은 일본을 대한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해 일본은 우리보다 강국이고 동양에선 리더라 할 수 있는데 어스럼짓가 못해요. 일본이 과거의 잘못된 역사는 덮어놓고 21세기를 운운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며 '어깨동무' 하자고 해야 할텐데 일본은 이같이 엄연한 사실을 밝히자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는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할 뿐 좀처럼 달라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같은 일본의 태도는 우리에게서 물론이고 일본에게도 도움이 안됩니다. 이걸 그동안 쌓았던 한일간의 유대관계를 허물어 뜨리는 또하나의 잘못입니다”

이번에 독립기념관의 전시물 일부를 교체하면서 분황사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다는 것 때문에 지역 차별이라는 말까지 나돌았던 미륵사 모형을 50분의 1에서 30분의 1로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구상해 왔는지요?

“약 4년전입니다. 전북에 계신 스님들이 보고 지적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최근에 미륵사 유물들도 추가로 발굴돼 역사적 사실대로 복원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2천5백만원을 투입해 모형을 제대로 복원하게 됐습니다”



△ 김좌진
윤봉길
안중근의 동상



◁ 통일염원의 동산



첨탑▷
전경▽



한국어와 영어로만 쓰여졌던 패널에 늦게나마 중국어와 일본어도 병기키로 했는데 찬반 논란은 없었습니까?

“예. 처음에는 찬반 대립이 커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었는데 막상 일본어 병기안을 내놓자 국내에서도 일본에서도 찬성쪽이 훨씬 많더라고요. 대부분이 일본인 관람객에게 과거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도 일본어를 반드시 병기해야 한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요즘들어 밀물듯 들어오는 일본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문화는 받아들여야겠죠. 하지만 문제는 나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혼에 있습니다. 혼은 다시말해 정신은 풍습·문화·언어에 있습니다. 자기집 주소 모르고 남의집 주소 알려고 하면 혼돈만이 초래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나라가 어떻게 찾은 나라인지,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알지

못한 채 무턱대고 외래문화를 받아들인다면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문화교류’ 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 보면 처음엔 좋은 문화가 들어오다 나중에 가서는 마약같은 문화가 들어오는게 현실입니다. 자기문화를 모르는 국민이, 나라가 없는 국민이 가장 불쌍한 국민입니다. 일제시대 나라가 없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사람뿐만 아니라 중국사람에게도, 소련사람에게도 학대를 받았었습니다. ‘자기것’ 부터 알아야 합니다. 예전엔 무기로 침략했지만 지금은 문화로 침략하는 시대 아닙니까?”

독립기념관을 둘러본 일본인들은 무슨 말을 할까?

“그들의 소감은 대체로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학생과 종교인은 자신들이 못 배웠다고 한탄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복받친 울음을 터뜨리곤 합니다. 종교인들은 사죄를 합니다. 반면 정치인은 “21세기에 이런 전시를 하면 되느냐”고 되레 호통을 치곤 합니



△미륵사
◁상징탑



다. (웃음) 그렇지만 정치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한일간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라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고 오히려 우리를 설득하는 정치인도 더러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우리 독립기념관은 많은 관람객들을 유치하고 홍보하는게 중점사업입니다. 현장에 나가 교육감이나 교육장을 만나는 것도, 이들을 세미나에 초청하는 것도, 열린음악회나 노래자랑을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의 목적, 더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 특히 청소년을 불러들여 그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나라의 중요성을 심어주는 것 입니다”

독립기념관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 가운데는 독립기념관 같은 기관이나 단체를 걸으면만 보고 입장료 수입등으로 자금자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전에 세계 추세는 어떤가 알아본 적이 있는데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대학 살 박물관도 국가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입장료가 비싼 루블박물관 역시 총예산의 25%만 입장료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독립기념관은 예산이 1백억원에서 70여억원 가량으로 깎였습니다.”

국민과 정책당국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독립기념관은 우리의 정신을 일깨워 주는 곳입니다. 놀이터로 생각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찾아주는 곳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부모로서의 의무이고 국민으로서의 의무입니다. 한번씩 오는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관람객들

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전시물을 다양하게 하고 편의시설을 갖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깊은 역사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짧은 안목에서 벗어나 긴 안목으로 자기나라를 밝힐 도량을 길러내는데 모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문화원과의 관계정립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까지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한 지방문화원은 90년대 들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체가 실시됨에 따라 향토를 배경으로 해야할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의 발굴·보존·계승을 위해 힘쓰는 문화원과 우리나라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과 정신을 심는 독립기념관은 동일한 맥락에서 일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문화원에서 행하는 향토문화유적지답사 행사때에 우리 독립기념관도 방문해 향토애와 함께 국가애를 심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독립기념관과 문화원이 돈독한 유대관계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유철 관장은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인 고 박은식 선생의 손자로 광복회 회장을 지낸 박시창씨가 부친이다. 덕분에 38년 중국 상해에서 태어난 박 관장은 연세대 2년을 수료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美 조지아 공대를 졸업한 후 72년과 83년 각각 美 MIT 경영대와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92년 영국 험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땀다. 그리고 미국 체류기간중 美포드자동차에서 근무했고 74년 한국에 돌아와서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위원과 건설부 지역계획과장·해외협력과장·장관비서관등을 지냈다. 박관장은 건설부 공무원 교육원장과 감사관을 역임하다 95년 9월 현 독립기념관장으로 부임했다. 



상주에 다녀오며 봄을 실고 왔습니다

최기인 | 소설가

전국문화원연합회 주최, 상주문화원주관으로 지난 2월 20일 상주에서 개최된 독서 생활화를 위한 강연회에 초청 연사로 참가했던 소설가 최기인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소감문을 다시 월간 우리문화에 보내왔기에 그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註)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운영자 개인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춘이 지나고 며칠 동안 클릭을 하며 보냈습니다. 상주 문화원에 다녀오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았거든요. 문학강연이란 명목이지만 문화원에서 갖는 자리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제도 자유라고 했습니다. 운영자는 지방과 인연이 많은 지라 더러 강연인지 강의인지 모를 자리에 초대된 적이 있기에 분위기를 대강 짐작하지요. 강동, 영등포, 용산문화원에 초청되어 간 적이 있군요. 장계, 정읍, 부안, 동진, 익산, 복진주, 죽산농협과 원주시지부 등지에 초청되기도 하였고요. 군산대학원, 현대(장항)에 간 기억도 납니다. 서울의 보광동지점, 익산시지부에서 주부대학을 주재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얼른 다 생각이 나지 않지만 참석자들이 어떤 분들인지 대강 짐작하게 되었지요.

대개 독서주간에 갖는 초청의 자리에는 아무래도

감명 깊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게 편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식견이 있는 분들이고 무엇을 공부한다기보다 누구라는 사람의 특색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거든요.

그리고 농협같은 데서 갖는 자리는 대개 주부교실이어서 딱딱한 이론은 질색입니다. 교육적인 효과는 두 번째고 무조건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농협 교육원 부원장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참여한 분들의 수준이 천차만별이어서 강의를 하는게 무척 어려웠습니다. 200명 수강생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부담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상주문화원에서 초청한 그 자리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 사실은 잘 알수 없었습니다. 상주라는 곳이 유서깊은 전통의 고장이며 근대화된 도시라는 것, 또 참석자도 남녀가 혼성된 어른들이라는 게 정보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문학 쪽이 아닌 문화라는 쪽에 렌즈를 갖다대기로 했습니다. 요즘 문화라는 말을 붙이기도 쉽지는 않죠.

우리의 향토문화를 어깨에 멘 문화원들이 의욕과 신망, 그리고 정말 문화가 무엇인지 식견을 갖춘 분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고 그나마 자비로 감당하지 않으면 해낼 수 없다니 가상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더군요.

그러나 인터넷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고 클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는 무궁무진했습니다. 검색창에 궁금한 키워드를 쳐넣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해 3월만 해도 없던 자료들이 열 배는 불어난 것 같았습니다. 나 자신도 궁금하게 여기던 자료들이 너무 많아 탈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빌 게이츠의 이야기는 얼마고 시간을 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베이의 신화를 만든 오미디라르의 자료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13살 웹디자인 키스 페이리스 이야기는 신문에서 얻은 것입니다.

하여튼 며칠동안 고생한 것은 자료를 찾기보다 한 시간에 맞춰 털어내고 요약하고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깬 브레이스의 '불확실성 시대',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등을 설명하자니 쏟아져 나왔던 자료들이 짐이 되었습니다.

가서 보고 잘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지역의 유지분들이 100여명이나 자리를 메워주셨습니다. 문화원의 임원 및 회원들이라는 참석자들의 수준이 다양한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250명이나 된다는 성모병원의 성부홍 원장님도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대학교수, 신문지국장도 소개 받았습니다. 저는 달변이 아닌 데도 참석자분들이 조금도 시선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사히 시간을 채우고 내려왔습니다.

문화원 이사시라는 자동차학원 박정식 원장님은 자신의 차로 나를 경천대에 데려가 보여주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용맹을 떨친 정기룡 장군의 싸움터이고 기념관을 겸한 충의사를 둘러 보았습니다. 전설적인 용마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가는 길에 요즘 인기 역사 드라마 '왕건' 때문에 잘 알려진

사벌주국 왕릉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손님한테 자기 고장을 소개해 주려는 그 마음씨가 고마웠습니다.

참, 삼백의 고장이라는 상주는 자랑할 게 또 있습니다.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게 가로가 정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보여준 자전거문화가 정겹게 여겨졌습니다.

상공부 국장까지 지내셨고 75세라는 높은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으로 젊은 연세로 사신다는 이만희 원장님의 열정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입에 올렸습니다.

잘 보고 배우고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안내한 전국문화원연합회 장상호 부장도 아름다운 마음과 정열을 가진 남자로 보였습니다. 전국문화원연합회라는 기관의 형편이 그토록 어렵다는 것을 이번에만 알게 되었습니다. 의욕은 태산인데 몸집은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제가 들려드린 내용은 인터넷 문화, 고급문화로인가 저급문화로인가라는 주제였습니다. 우리의 향토문화를 어깨에 멘 문화원들이 의욕과 신망, 그리고 정말 문화가 무엇인지 식견을 갖춘 분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고 그나마 자비로 감당하지 않으면 해낼 수 없다니 가상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더군요.

지방에서 올리는 향토자료들이 DB(데이터베이스)화 될 때 우리의 구명난 자료들이 매워지겠지요. 문화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2월 20일) 아침 5시, 서울을 출발할 때 중부고속도로는 안개가 자욱했는데 상주에 도착하니 화창한 봄이었고, 그 봄을 신고 당일 오후 서울행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2000. 2. 21. 

‘명성황후’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코리아 아트센터’ 박성미 PD “한국무형문화재 영상 아카이브 구축할 터”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1년 전 세미나에서 만난 다큐멘터리 PD 박성미씨(33)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봤다. “꿈이요?, ‘영상실록향토지리지’를 만드는거죠” 다소 옛되게 보이는 그녀의 한마디가 당차게 들려왔다.

“선조들이 종이와 붓으로 조선왕조실록을 후세에 남겼다면 21세기에는 카메라와 테잎으로 조선왕조실록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1년 KBS ‘전통문화 라이브러리’ 팀에서 처음으로 방송일을 시작한 그녀는 서울다큐멘터리 영상제에서 ‘올해의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하는등 10년동안 다큐멘터리

PD로 맹활약하며 ‘내공’을 쌓았다.

그런 박PD의 주 테마는 우리의 5천년 전통문화유산.

“처음엔 전통문화라이브러리 작업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곳에

서 고집스럽게 우리문화를 지켜오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문화가 현대인과 단절된 채 전수자 한명 없이 사라져버리고 있어 뭐라 말로 못할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영상실록 향토지리지를 만드는 일.

‘영상실록 향토지리지’ 만드는게 꿈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 하지 않았다. ‘영상실록향토지리지’ 제작이라는 대항해의 꿈이 얼마못가 암초에 걸려 궤도를 수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처음엔 경기도부터 영상실록 향토지리지를 제작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자칫하면 전국 팔도를 전부 영상기록으로 남기겠다는 꿈이 그야말로 ‘꿈’으로 끝날 상황이었다. 그래서 최종목적지로 가기위한 중간 경유지를 다시 설정했다. 그것은 바로 무형문화재를 기록화 하는 거였다. 이런 대전제 아래 가장 사라질 위험이 높은 지방의 무형문화재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상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경기문화재발견’ 시리즈. 그녀는 경기문화재단의 지원금을 가지고 98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의 무형문화재를 하나하나 기록해왔다. 이들 영상물은 모두 iTV를 통해 전국



으로 방송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홍보물을 만들어 어디에 다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저는 이것을 ‘아카이브’라는 형태로 보관해 ‘한국무형문화재 영상아카이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만 지자체에서는 만들어진 영상홍보물의 활용이 문제인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명확한 목적을 갖고 영상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성황후 영상홍보물 제작중

그녀는 지난해 12월 뜻맞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코리아 아트센터’를 설립했다. 동영상 제작업과 무형문화재 아카이브 구축·문화상품 판매 등을 사업 아이템으로 한 코리아 아트센터는 첫 사업으로 여주군의 ‘명성황후 영상홍보물’을 용역받음으로써 그 거대한 꿈을 향한 첫걸음을 뗐다.

“지금도 지역에서 영상홍보물이라고 하면 관광안내나 특산물을 소개하는 비디오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후 KBS등에서 드라마로 연출된 역사인물다큐멘터리가 방영돼 인식이 바뀌긴 했지만 이 또한 지역민에게 호응을 얻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제작되는 ‘명성황후’ 다큐멘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재미’입니다. 기념관을 찾은 사람들이 모두 반할만한 영상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작팀의 아이디어 회의는 새벽이 다 되어도 끝날 줄을 모른다. 최근에 가장 인기가 있는 ‘역사스페셜’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 분석을 거듭한다. 그렇다고 ‘역사스페셜’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은 물론 아니다. 몇 년이 지나도 잘 만든 다큐멘터리로 남기 위해 다방면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온갖 아이디어를 짜낸다. 우선 영상 홍보물에 등장하는 진행자 부티가 유행을 타지 않는 옷을 입도록 신경써야 하는 것은 물론 점차 방송기술이 발전해가는 것을 고려해 최첨단의 카메라와 컴퓨터그래픽을 사용해 최고의 영상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더구나 명성황후에 대한 자료가 아예 전무한데다 심지어 나쁜 인식을 갖고 있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본논문과 고문서기록을 샅샅이 뒤져가며 확인한 결과 일본인에 의해 우리의 근대사가 철저히 왜곡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민비 역시 대원군과의 암투를 일삼은 왕비로 곡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민비를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근대사를 다시 쓰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일본현지촬영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새로운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과 연구개발 프로젝트까지 만들어냈다. 훌륭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선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는 각오다.

코리아아트센터의 목적은 ‘문화재단’

“이제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영상홍보물은 방송사에서 제작되는 프로그램과는 현격히 달라져야 합니다. 영상물을 만드는 주체와 목적·활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손수 후손들에게 전하는 지역사와 향토사라는 인식을 갖고 영상 작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야무진 꿈은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진 한국의 역사문화를 디지털기술을 이용해 저장하고 전세계에 공급하는 일이다. 초기 제작비가 워낙 엄두가 나지 않아 모두들 고개를 내젓지만 그녀는 이미 한발자국을 내디딘 셈이다.

“코리아아트센터의 꿈은 문화재단입니다. 누구나 영상물을 통해 우리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우리의 역사문화를 기록하려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문화재단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그녀는 앞으로 전세계인들에게 우리문화를 알릴 수 있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겠다고 꿈하나를 더 추가했다” 



삼짇날 · 청명 · 한식풍습

박 후 식 | 전국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

청 명과 한식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게 아니지만 보통「청명 한식」을 붙여서 부른다. 청명 다음 날이 한식일 때가 많고 같은 날 드는 경우가 있다. 올해는 4월 5일(양력)이 청명날인 동시에 한식날이다.

청명(淸明)

24절기의 하나다. 보통 양력 4월 5일경으로 태양이 황경(黃經) 15도에 도달한 날이 청명입기일이며, 음력으로는 3월절(三月節)이다. 춘분(春分) 15일 후 곡우(穀雨) 15일전에 청명입기일이 있다. 농가에서는 이날을 기해 봄일을 시작하므로 이날에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궁중에서는 이 날 내병조(內兵曹 : 궁내 국방부 분실)서는 입절이 되는 시각을 기다려 느티나무와 버드나무에 구멍을 뚫고 삼으로 끈 바(삼노)로 꿰어 양쪽에서 톱질하듯이 잡아당기면서 그 마찰로 불이 일어나게 한다. 이 때 이 불을 임금께 올리고 또 그 불을 화에 붙여 각 관아와 모든 현관집에 나누어 주는 풍습이 있었다. 이같은 것은 중국의 옛날 제도에서 전해진 것으로 불을 소중히 여기는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옛 중국사람들은 청명 15일동안을 5일씩 구분하여 처음 5일에는 오동 나무가 꽃피기 시작하고 다음 5일에는 들쥐 대신 종달새가 나타나며 마지막 5일에는 무지개가 처음 보인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하여 공휴일로 돼 있는데 날이 풀리고 화창하여 식목에 적합한 시기이다. 또 한식도 이날 또는 다음날이 된다.

●청명주 : 청명날에 빚는 술을 말한다. 청명날 밀술을 담고 보름이 지난 곡우날 덧술을 만든다. 따라서 21일이 되어야 술이 되는데 단맛이 세어서 술을 마실줄 모르는 사람도 즐겼다고 한다. 청명주는 조선말기에 유명하였으며 특히 경북 김천이 명산지로 알려져 있다. 청명주를 빚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곱게 빵아 곱게 체로 친 누룩가루 3홉과 밀가루 1홉을 빚어 밀술을 만든다.

따로 참쌀 7되를 잘 씻어 지에밥을 써서 차게 식힌후 밀술과 함께 빚어 넣는다. 술항아리는 찬데 두고 이레후 위에 끼었던 이불(곱)을 벗기고 맑아지면 청주로 떠서 마신다.

삼짇날

음력 3월 초사흘날을 「삼짇날」이라고 부른다. 이날 들판에서 꽃놀이를 하고 새풀을 밟으며 봄을 즐기기 때문에 답청절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날은 여러 가지 민속을 행하며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삼월 삼짇날은 9월 9일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온다고 하며 또 이 때 나비도 나온다. 이날 흰나비를 보면 그해에 상복을 입게되고 노랑나비를 처음 보면 운수대통한다고 믿었다.

삼짇날에는 전국 각처에서 한량들이 활터에 모여 궁술대회를 여는 풍습이 있었고 닭싸움을 붙이기도 하였다.

이날 썩이나 소나무 속껍질을 넣어 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는데 이것을 「고리떡」이라 했고 들놀이 때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명절의 하나로 꼽았는데 음력 2월 또는 3월에 든다. 2월에 한식이 드는 해는 철이 이르고 「3월에 한식이 들면 꽃이 피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

화전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한식(寒食)과 성묘(省墓)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서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명절의 하나로 꼽았는데 음력 2월 또는 3월에 든다. 2월에 한식이 드는 해는 철이 이르고 「3월에 한식이 들면 꽃이 피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

한식은 24절후에 들어있지는 않으나 습속으로 전해내려오면서 다음과 같은 유래가 전해지고 있다.

고대 종교적 의미로 매년 봄철에 나라에서 새불(新火)을 만들어 쓸 때 그앞에 어느 기간동안 묵은 불(舊火)을 일체 못쓰게 하였던 습속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중국의 옛풍속으로 이날은 풍우가 심하여 화재의 위험이 많았으므로 불을 금하고 찬밥을 먹는 습관에서 그 유래를 찾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한식의 유래는 개자추전설(介子推傳說)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진나라 문공(文公)이 국란을 당하여 개자추 등 여러 신하를 데리고 국외로 탈출하여 방랑할 때 배가 고파서 거의 죽게된 문공을 개자추가 자기의 넓적다리살을 베어내 구워서 문공을 먹여 살린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후에 왕위에 오른 문공이 개자추의 은공을 생각하여 높은 벼슬을 시키려고 하였으나 개자추는 그를 마다하고 면산으로 숨어 버렸다. (일설에는 개자추가 문공을 19년동안 섬겼으나 복록을 주지 않으므로 면산으로 들어가 숨었다고도 전한다) 나라에서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으므로 왕은 개자추를 산에서 나오게 할 목적으로 면산에 불을 질렀

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나오지 않고 홀어머니와 함께 큰 벼드나무 밑에서 불에 타죽고 말았다. 그 뒤 그를 애도하는 뜻에서 또 불타 죽은 개자추에게 더 운밥을 주는 것이 도리에 어긋난다고 해서 불을 금하고 찬음식을 먹는 풍속이 생겼다」

중국에서는 한식날 문위에 벼드나무를 꽃기도 하고 들에서 야제(野祭)를 지내 개자추의 영혼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특히 개자추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비가 내리는 한식을 「물한식」이라 하며 한식에 비가오면 그 해에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다.

이날 나라에서는 종묘와 각 능원에 제향하고 민간에서도 술과 떡, 과일, 포, 탕, 적 등의 음식을 장만하여 선영에 제사 지내고 성묘한 후 조상의 묘소가 겨울동안 헐었으면 봉분을 개수하고 주위에 식수도 한다. 한식날 성묘는 중국 당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 하며 우리나라에 이 풍습이 전해진 것은 신라 때로 알려져 있다.

고려시대는 한식이 대표적 명절로 중요시되어 관리에게도 성묘를 허락하고 죄수의 금형(禁刑)을 실시하였다.

조선시대 내병조에서는 벼드나무를 뚫어 불을 만들어 임금에게 올리면 임금은 그 불씨를 궁전안에 있는 모든 관리와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한식날부터 농기에서는 씨앗을 뿌리는 본격적인 농사철로 접어드는데 흔히 이날 천둥이 치면 흉년이 들 뿐만 아니라 국가에 불상사가 생긴다고 믿어 매우 꺼렸다.☞

외무부 총예산의 35%를 문화에 쏟아붓는 나라, 프랑스

편집부



이 글은 한길사가 최근 펴낸 '프랑스 문화예술, 악의 꽃에서 샤넬 No.5까지' (고봉만·이규식 등 17명 著)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역사, 연극, 문화정책, 회화, 사진, 영화, 건축, 패션, 향수 등 프랑스를 안다고 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 17명이 공동으로 집필한 이 책은 프랑스의 문화전반을 폭넓게 다루면서도 나뭇가지와 줄기, 잎 그리고 그 뿌리까지도 속속들이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혹 프랑스로 여행을 간다면 어느 가이드북 이상으로 프랑스를 이해하는데 한 몫을 할 책으로 보입니다.

다소 생경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는 페이지 옆에다 설명을 붙이는 친절도 베풀고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진이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으로 프랑스는 62만명을 잃었고 국토의 상당 부분이 폐허해졌다. 프랑스 국내의 상황 역시 불안했다. 전후 회복은 어렵고 더디었으며 미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해야 했다.

인도차이나 전쟁(1946~54)은 패배로 끝났으며, 탈식민지화의 움직임으로 인해 해외영토의 대부분을 상실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해외영토의 상실은 프랑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대외문화정책을 개발하도록 했다.

프랑스는 자국의 영토가 축소되는 시점에서 강력한 대외적 문화의지를 천명하였고, 정부는 기업 및 각종 재단과 손을 잡고 조직적으로 프랑스의 문화예술을 세계시장에 홍보하기 시작했다.

알제리 독립전쟁의 종결과 함께 본격화된 문화부의 대외 관련 업무가 식민성(Ministre des Colonies)의 해체와 시기적으로 일치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해외영토에서 본국으로 송환된 관료들 가운데 상당수가 문화부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앙드레 말로는 전세계를 여행하며 프랑스 문화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했다. 미국, 브라질, 이집트, 아테네 등지에서 펼쳐진 각종 전시회를 통해 앙드레 말로는 프랑스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도록 했으며, 과거의 영광을 복원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문화적 노력을 통해 프랑스의 산업과 경제는 문화적 이미지와 문화적 부가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문화의 다양성이 바로 '프랑스 문화의 힘'

문화대국 프랑스의 힘은 내부 문화의 다양성과 외부 문화에 대한 포용력에 있다. 프랑스는 이국적 문화요소들에 대해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해 프랑스 문화로 통합함으로써 프랑스 문화를

다양화하고 문화적 경쟁력을 제고했다. 또한 과거의 영광에 고착된 시대착오적인 문화외교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폐성을 극복하고 국제문화의 입체적인 교차로로서의 사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거듭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케 도르세(Quai d'Orsay : 외무부 소재지)가 있었다.

프랑스 외무부가 케 도르세에 자리를 잡은 것은 1853년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단지 하나의 독립된 관청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뿐,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국무대신은 있었다. 프랑스는 1589년 루이 드 르볼(Louis de Revol)을 최초의 외무대신으로 임명한 이후 크루아시(Croissy)나 탈레랑(Talleyrand)과 같은 뛰어난 외교관들을 배출했다. 그리고 16세기부터 이미 수많은 문인들을 외교관으로 발탁해 프랑스의 문화외교를 담당하게 했다. 로마에서 외교관 생활을 한 뒤벨레(Joachim du Bellay)와 몽테뉴가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1769년부터 1794년까지 로마 주재 프랑스 대사로 일한 베르니스(Bernis) 추기경은 프로이센에 대해 오스트리아와 새롭게 동맹을 맺는 프랑스 외교혁명(1756~57)을 주도했으며, 프랑스 정부와 로마 교황 사이에 벌어진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문인을 외교사절로 임명하는 것은 프랑스 외교의 오랜 전통 가운데 하나이며, 이 점은 프랑스의 대외문화정책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계몽주의 시대에 '백과전서' 편찬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디드로는 예카테리나 2세 치하의 러시아에서, 볼테르는 프로이센 궁전에서 프랑스 언어와 문화를 전파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1883년에는 다른 나라에 프랑스 문화를 선양할 목적으로 '프랑스의 친구들' (Amis de la France)을 중심으로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창설했다. 문화외교관인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오늘날 전세계에서 1,085개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프랑스 문화외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체계화된다. 1945년 4월 13일 프랑스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교수, 도서, 강연회 등의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외무부 내에 대외적인 문화관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문화관계 총괄사무국' (DGRC : Direction generale des relations culturelles)을 신설했다. 당시 외무부 장관이던 조르주 비도(Georges Bidault)는 "문화는 프랑스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초창기 사무국의 직원들은 교육부의 교수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영향권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기관, 즉 프랑스 문화원이나 초·중등학교,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설립하거나 그 조직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문화관계 총괄사무국'의 활동을 통해 프랑스 문화는 해외에 적극적으로 소개되었고 문화의 대외 조직망이 전문화되었다. 그리고 이런 기구들은 프랑스와 다른 나라들 사이의 문화예술적 협동관계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프랑스의 문화적 포용력

프랑스는 20세기에 이미 재능있는 젊은 외국 화가들을 데려다 재우고 먹이고 전시공간을 마련해주는 등의 지원 끝에 결국 그들을 프랑스 사람으로 만드는 전략을 구사했다. 피카소는 에스파냐 사람이고, 샤갈은 러시아인이며, 고흐는 네덜란드 출신이고, 쿤데라는 체코인이다. 바스티유 오페라 음악감독에 정명훈을 발탁했던 프랑스이다. 자크 랑은 '파리에서는 언제나 어느 나라 음식이든, 어느 나라 영화든 먹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전역 30여 도시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장르의 영화제가 열린다. 자크 랑은 "프랑스의 힘은 문화적 포용력에서 나온다"라고 강조한다 ('21세기 생존전략. 세계는 이렇게 뛰고 있다-프랑스', 『조선일보』, 1999년 11월 23일).

문과관계 총괄사무국

1945년 4월 13일 법령에 따라 프랑스외무부는 이 기구를 두고 대외문화관계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이때 최초로 프랑스 행정용어집에 '문화적(culturel)'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었다.

오늘날 프랑스는 전세계에 800명의 문화 및 기술 담당 참사관을 파견하고 있고, 132개의 문화원과 연구소가 프랑스의 문화와 언어를 외국의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20개 국가에 25개의 사회과학 및 인문학 연구소가 분산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47개 국가에 160개의 고고학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문화사절단이 파견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프랑스 문화의 대외업무를 웅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어권의 보호와 확대를 위한 위와 같은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프랑스는 막대한 재정적 투자를 하고 있다. 외무부의 총예산 가운데 35퍼센트가 문화에 쓰인다. 1995년의 경우 외무부의 문화 관련 지출은 53억 프랑이나 되었다. 몇몇 대외 문화 협력에 관한 숫자를 열거해보면 알 수 있다. 외국 도서관에 80만권의 도서를 지원하고 1만 5천여 권의 정기 간행물을 구독한다. 문화교류의 하나인 프랑스 작가, 편집인, 번역자들의 외국 파견이 연 300회에 달하며 아울러 같은 회수의 외국인 작가, 편집인, 번역가들이 프랑스에 초청된다. 매년 20개 외국어로 300여 종의 프랑스 저서가 출간되며 매년 1만여 건의 프랑스 문화활동이 외국에서 전개된다. 150회의 전시회가 개최되고 500회에 달하는 프랑스 예술인의 외국 방문 공연이 이루어진다. 매년 3만 5천여 개의 프랑스 영화 필름이 복사·유통되고, 프랑스는 세계 각국 120여 종류의 영화 페스티벌에 참여한다. 프랑스 영화의 해외 진출에 관계하는 기관은 외무부의 대외협력국 이외에도 국립영화센터(CNC), 프랑스영화연합회(Uni-France-Film)등 많은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또한 과학 및 기술협력 분야에서 1만 2천여 건의 협력계획이 120개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120억 프랑의 예산이 집행된다. 그리고 21개 국가에서 44개의 비정부기관과 함께 100여 개의 프로젝트를 공동재정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간 1만 7천여 명의 외국인 장학생들을 프랑스로 초청하며, 6천여 명의 프랑스 전문가들이 외국과의 공동연구를 목적

으로 파견된다.

프랑스는 자국 문화의 해외 전파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94년 시청각 위원회(Conseil audiovisuel extérieur de la France)를 만들었다. 이 위원회는 프랑스 국제방송공사(RFI : Radio-France International)와 4개의 인공위성의 도움으로 지구촌 100여 개 국가에 불어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TV 5, 그리고 1989년부터 불어권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프랑스가 제작한 교육 및 문화에 관한 프로그램을 인공위성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프랑스 국제채널(CFI : Canal France International)을 운영하고 있다. 1991년 5월부터는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프랑스 문화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문화는 안된다' 미국문화 독점 견제

프랑스 문화의 보호와 확대를 위한 프랑스 정부의 대외적 노력은 1981년 사회당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권좌에 오른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다. 문화부 장관 자크 랑은 국제적인 문화활동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의 외무부가 관장하던 대외 문화업무를 문화부의 국제업무부를 통해 더욱 강화했다. 또한 그는 프랑스 문화를 외국에 수출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외국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시책을 추진했다. '세계문화의 집', '국제시청각기금' 등이 창설되었고 이 분야의 예산도 꾸준히 증액되었으며, 특히 아프리카 음악과 영화는 파리를 통해 상품화되고 국제화될 수 있었다. 자크 랑은 문화를 보수적이고 과거지향적으로 놓아두지 않고 이를 경제논리와 집목시킴으로써 국가가 문화의 산업화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영화와 문화산업진흥기금'(IFCIC)이나 '영상산업재정회사'(SOFICA)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가 개입하는 재정지원 통로를 다원화하고 기존 기관들을 변형시켰으며 기업들의 메세나를 고무했다.

또한 프랑스는 자국의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

며, 나아가 그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전파하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무국적 물개성의 미국 문화에 맞서 프랑스 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자크 랑은 1982년 7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연설을 했다.

문화란 보편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평준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 우리는 오늘날 단 하나의 세계문화가 존재하지 않음을 잘 인식하고 있다. (.....) 문화적 권리 중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각국 민중들의 자결권이다. (.....) 우리는 수동적으로, 너무나 수동적으로 문화적 침략을 감수했으며, 외부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와 균일화되고 상투화된 음악에 의해 침윤되어왔다. 그 결과 민족문화가 상실되고 전세계적으로 강제된 획일적인 삶의 양식이 횡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한 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이 되고 있으며, 보다 정확히 말해서 각국 시민들의 의식과 관련된 보다 심각한 간섭방식이다. (.....) 거대한 이윤의 제국에 딸린 속방이 되는 것이 정녕 우리의 운명인가?

각 문화의 다양한 능력과 문화적 자결권을 강조한 이 연설문은 미국 문화의 패권적 확산을 저지하고자 하는 프랑스의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이후 사회당 정부의 대외 문화정책의 토대를 제공했다.

사회당 정부가 창설한 아랍연구소(Institut du Monde Arabe), 라틴아메리카의 집(La Maison de l'Amérique Latine), 다문화간 대화모임(Association Dialogue entre les Cultures) 등은 미국 문화의 독점을 견제하고 각 문화의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프랑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반영하며, 최근의 '문화적 예외' (exception culturelle) 논쟁은 그러한 노력이 집약적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3년 미국이 주도한 가트(GATT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협상에서 예술인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프랑스 대통령과 정부는 문화적인 예외를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당시 유럽 집행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자크 들로르의 지지에 힘입어 프랑스는 총력을 기울여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설득했고, 결국 문화부문의 재화와 서비스는 다른 상품과 똑같이 취급될 수 없으며 외국과의 교역시 특별히 취급되어야 하고 이 분야에 대한 각국의 보호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공동입장을 이끌어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자유무역의 시장개방 정책 앞에서 영화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프랑스의 노력과 '문화적 예외'의 입장은 이후 프랑스 영화와 시청각 예술의 보호는 물론, 프랑스어 문화권의 주체적인 문화정책의 본보기가 되었다. 

문화적 예외 논쟁

뜻은 간단하다. 국제적으로 모든 분야가 세계화하고 있지만 문화만큼은 예외라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라는 거대 일극체제가 주장하는 자유교역주의의 장단에 맞춰 모든 나라의 문화가 개방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문화만큼은 절대 안된다는 프랑스 국민들의 외침이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정부는 1998년 10월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자간 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협상에 불참을 선언했다. 리오넬 조스팽 총리는 의회연설을 통해 "프랑스는 국제적 투자 자유화 추진은 지지하지만 문화부문은 예외로 인정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MAI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한겨레신문*, 1998년 10월 15일).

도깨비의 세계

김 의 숙 | 강원대 국문학과 교수(민속학)



도깨비의 정체

(1) 도깨비의 어원

우리의 설화에는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한 사나이가 장터에서 얼큰하게 취한 후 식구들 생각해서 고기를 사들고 밤중에 산길을 걸어 귀가하고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김서방, 그 고기 나 주게.” 하므로 거절하였더니 씨름을 하자고 하여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나무에 묶어놓고 다음날 보니 닳아빠진 빗자루였다는 투의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그 ‘어떤 사람’은 빗자루가 변신한 도깨비임은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도깨비는 신출귀몰한 귀신에 속하는 존재이지만 선신(善神)이든 악신(惡神)이든 간에 무섭고 두렵게만 느껴지는 귀신(鬼神)에 비하여 덜 무섭고 덜 두려운 신령 곧 사람이 가까이 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서

도깨비는 사람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고 놀리기도 하나 대체로 신통력을 발휘하여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우호적이고 단순한 존재이다.

도깨비는 돛가비(돛 + 아비)에서 비롯한 말인데, 능청스럽게 변덕을 부리는(돛)아비라는 뜻이다. 도깨비를 달리 허새비, 독각귀(獨脚鬼), 허주(虛主), 망량이라고도 하며 ‘참봉’ 또는 ‘영감’으로도 부른다.

(2) 도깨비의 성격

도깨비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다가 버린 헌 물건들 곧 신발, 부지깥이, 빗자루, 절구, 키, 흥두깨 등에서 변신하는데 특히 여성의 피가 묻어있는 것에서 잘 생긴다고 한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 머물 곳을 찾고 있었다.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나 자기집으로 가자고 하여 따라갔다. 그래서 대접을 잘

민속학적으로 볼 때 오래된 나무와 바위처럼 오래된 빗자루와 홍두깨 그리고 생산력을 지닌 여성의 피(월경)는 신성한 것이므로 그것이 변신한 도깨비는 비록 신령일지라도 지극히 인간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깨비는 유난히 사람에게 장난치기를 좋아한다. 솔뚜껑을 종이처럼 구겨놓거나, 솔 안의 떡시루를 뒷간에 갖다놓기, 국수를 뒷동산 소나무에 걸어놓기, 외양간의 황소를 지붕 위에 올려놓기 등을 자행한다.

받고 왔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쳐서 깨어보니 자신은 다리 밑에서 몽당 빗자루를 베고 누워 있더라는 것이다. [용천담적기(김안로)]

민속학적으로 볼 때 오래된 나무와 바위처럼 오래된 빗자루와 홍두깨 그리고 생산력을 지닌 여성의 피(월경)는 신성한 것이므로 그것이 변신한 도깨비는 비록 신령일지라도 지극히 인간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깨비는 유난히 사람에게 장난치기를 좋아한다. 솔뚜껑을 종이처럼 구겨놓거나, 솔 안의 떡시루를 뒷간에 갖다놓기, 국수를 뒷동산 소나무에 걸어놓기, 외양간의 황소를 지붕 위에 올려놓기 등을 자행한다.

어떤 사람이 밤을 새워 게를 잡았다. 그런데 새벽녘에 누가 “김서방, 게 많이 잡았소?” 해서 돌아보니, 키가 9척이나 되는 큰 사람이 킬킬거리며 달아났다. 동이 터서 망태기를 보니 게는 하나도 없고 쇠뿔만 가득 담겨 있더라는 것이다.

또 도깨비는 씩씩하기를 좋아하는데, 자기를 이기는 사람에게는 소원을 들어준다.

그리고 도깨비는 무엇이든지 만들어내는 요술방망이인 ‘도깨비방망이’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초능력을 발휘하여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혼을 내준다.

제주도의 마을에서는 특히 도깨비를 재산의 신, 풍어의 신, 가업 수호신, 대당간신, 마을 수호신 등의 속성을 지닌 당신(堂神)으로 모시고 ‘영감놀이’라는 굿판을 벌인다.

그리고 제주도의 도깨비는 해녀나 미인을 좋아하여 같이 살자고 덤비는 버릇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해녀가 정신 착란을 일으키면 “도깨비가 지폈다”고 하여 <영감놀이>라는 굿을 하였다. 이 놀이는 여자에게 붙은 아우 영감을 형 영감 둘이서 햇불을 들고 데려가는 모의극이다.

(3) 도깨비의 생김새

삼국시대에 귀신을 쫓기 위해 만든 벽사용(辟邪用)의 귀면와(鬼面瓦 - 도깨비 얼굴을 조각한 기와)를 보면 도깨비는 머리에 뿔이 나있고, 눈은 푹 붙어지고, 유달리 큰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며, 날카롭고 긴 송곳니가 드러나고, 손발의 발톱이 긴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용재총화》에 보면 도깨비는 키가 하도 커서 옷을 해 입을 수가 없어 허리 아래는 백지로 둘러 치마로 삼고 있으며, 상반신은 구름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도깨비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숲 풀 속이나 옛성, 동굴, 황야, 절벽 등에서 사는데, ‘도깨비불’이라고 하는 인광(磷光)으로 밤에 허공을 떠돌아다닌다. 그러나 변신술이 능해서 때로는 농부, 미녀, 노인, 나그네 등으로 자유자재로 변신한다.

도깨비 설화

(1) 도깨비의 대장 비행랑



도깨비 설화가 처음 나오는 책은 《삼국유사》이다. <도화녀비형랑>조에 보면 도깨비의 정체와神通력이 잘 나타나 있다.

신라 제25대 진지왕의 혼령이 밤에 과부인 도화녀라는 여자에게 나타나므로 함께 지내었다. 그래서 비형랑이 태어났다. 비형랑은 밤마다 나가서 새벽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서천(西天) 가에서 도깨비들과 놀다가 돌아왔다. 26대 진평왕이 그것을 알고 신원사 북쪽 개천에 다리를 놓으라고 하니, 비형랑이 도깨비를 이끌고 하룻밤 사이에 돌다리를 놓았다. 이를 귀교(鬼橋) 또는 대석교(大石橋)라 하였다. 또 도깨비 중에서 선발된 길달은 흥륜사의 누각문을 지었는데, 그가 여우로 변신해 도망하자 비형랑은 다른 도깨비를 시켜 죽여 버렸다.

(2) 도깨비 감투

능텅감투라고도 하는 도깨비감투는 사람이 쓰면 보이지 않는다는 신기한 감투이다. 어떤 사람이 어찌다가 도깨비감투를 얻었는데, 그는 투명인간이 되어서 남의 가게의 물건을 훔치거나 제삿상의 음

식을 훔쳐 먹으면서 살았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감투가 낡아 실밥이 빨갱게 드러났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모르고 계속 도둑질을 하였다. 한번은 가게 주인이 물건이 없어지면서 빨간 것이 왔다갔다 하므로 빗자루로 그것을 낚다 갈겨 버렸다. 그러자 감투가 벗겨져 온 몸이 드러났으므로 꽤 망신하게 되었다.

(3) 심술꾸러기 도깨비

도깨비가 심술을 부려 어느 농부의 눈에다 돌을 가득 쌓았다. 도깨비의 장난인 것을 안 농부는 “올해는 돌이 많고 물이 없으니 농사가 잘 되겠다.”고 하루종일 중얼거리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튿날 와 보니 돌이 하나도 없이 치워져 있고 눈에는 물이 가득 차 있더라.

(4) 말 피를 무서워하는 도깨비

한 여자가 있었는데, 도깨비와 친하면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깨비가 좋아하는 메밀묵을 쑤어 도깨비에게 먹였다. 과연 도깨비와 친해져서 금은보화를 얻어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도깨비가 귀찮아진 여자는 도깨비가 말 피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방에 말 피를 들여놓아 쫓아내었다.

(5) 흑 떼러 갔다가 흑 붙인 이야기

○ 옛날 강원도 춘천땅 산골에 오른쪽 턱 밑에 커다란 흑이 달린 노인이 살았다. 어느 날 ‘흑부리 영감’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는데 비가 많이 와서 빈 절간으로 들어가 비를 피하다가 날이 저물었다. 그래서 할수없이 절간에서 밤을 새우기로 하였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난데없이 파란 불과 붉은 불이 다가오더니 절간 안으로 들어왔다. 놀란 노인이 몸을 숨기고 보니,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두들겨 술, 떡, 밥을 가득 쌓아놓고 신나게 먹고 마시고 춤을 추었다. 그것을 보던 노인도 신바람이 나서 함께 어

민속학적으로 볼 때 오래된 나무와 바위처럼 오래된 빗자루와 흥두개 그리고 생산력을 지닌 여성의 피(일경)는 신성한 것이므로 그것이 변신한 도깨비는 비록 신령일지라도 지극히 인간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깨비는 유난히 사람에게 장난치기를 좋아한다. 솔뚜껑을 종이처럼 구겨놓거나, 솔 안의 떡시루를 뒷간에 갖다놓기, 국수를 뒷동산 소나무에 걸어놓기, 외양간의 황소를 지붕 위에 올려놓기 등을 자행한다.

올려 마시고 춤을 추고 놀았다. 그러다가 닭 우는 소리가 나자 도깨비들은 “신나게 노는데, 닭이 울다니... 내일 와서 다시 노세.” 하면서 갈 차비를 차렸다. 그리고 노인에게 “영감님 덕분에 잘 놀았소. 내일 밤에 와서 또 놀시다.”고 하였다. 그때 노인이 머뭇거리자 대장 도깨비가 “올 생각이 없는 모양이군. 그렇다면 이 혹을 떼어서 우리가 보관하면 할수없이 오겠지.” 하면서 혹을 떼어 갖고 갔다.

노인은 보기 싫은 혹이 떨어지자 좋아서 집에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마침 마을에는 왼쪽에 혹이 달린, 심술긋은 노인이 살았다. 그는 혹을 떼고 돌아온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절간으로 가기도 했다. 과연 도깨비들이 왔으므로 함께 춤추고 놀았으나 도시 흥이 나지 않았으므로 팔만 오무렸다 폼다 하였다. 그것을 본 도깨비들이 “우리가 어제 혹을 떼어 갔으므로 흥이 나지 않는 것 같으니 다시 혹을 주자.”고 하면서 오른쪽에다 혹을 붙여 주었다. 그래서 혹을 떼러 간 노인은 오히려 하나를 더 붙이게 되었다고 한다.

○ 턱에 혹이 달린 김첨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날이 저물자 빈 절간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심심해서 노래를 불렀다. 노래소리를 듣고 도깨비들이 모여 들었다.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르는 방법을 물었다. 김첨지가 그것이 혹 때문이라고 말하자 도깨비들이 금은보화를 주면서 사자고 하였다. 그러라고 하니 혹을 떼어갔다. 부자가 된 김첨지의 이야기를 들은 박첨지가 자기에게 달린 혹도 팔고자 하여 그 절간으로 갔다. 과연

도깨비들이 있는지라 자기의 혹을 사라고 하였다. 도깨비들은 전번에 혹을 샀으나 노래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화가 난지라 그 혹을 박첨지의 턱에다 붙여버렸다. 그래서 박첨지는 혹 하나를 더 붙이게 되었다.

(6) 약속을 어긴 어부가 도깨비에게 봉변을 당함
어떤 어부가 도깨비에게 약속하기를, “고기를 많이 잡게 해 주면 시루떡을 썰 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도깨비가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었으나 어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화가 난 도깨비는 사흘째부터는 송장 빠다귀, 개빠다귀만 그물에 가득 걸리게 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이놈아, 입으로 거짓말을 했으니 입이 비뚤어지거라.” 하고 고향을 쳤다. 그러자 어부의 입이 비뚤어졌다.

(7) 6.25 전쟁때 다 사라진 도깨비

한적하고 괴괴한 야밤과 여기저기 호젓한 길에 자주 출몰하던 도깨비가 사라진 것은 총소리·대포소리가 강산을 뒤흔든 6.25전쟁 때부터였지. 본래 귀신이나 도깨비들은 큰 소리와 쇠소리를 무서워하고 싫어해. 정초에 화약을 터뜨리고 상여 앞에서 방앗씨가 칼을 휘두르는 것도 귀신을 쫓기 위한 거야.

그런데 6.25때 얼마나 소란하고 시끄러웠나. 총소리, 대포소리, 육박전의 아우성. 도깨비라고 배길 재간이 있나. 그래서 다 영계(靈界)로 도망을 가 버렸지. 이제 도깨비 턱에 부자(富者)되긴 다 틀렸어... **문**

정보 나누고 친목다진 '2박3일'

김종열 | 한국문화학교 사무국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동안 대전 한국통신연수원에서 2001년도 한국문화학교 운영관계자 교육이 열렸다. 99년도까지 매년 1박 2일로 실시되어오다가 작년에 중단되었던 교육을 올해는 2박 3일로 기간을 늘려 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였다.

문화관광부 전통지역문화과장 이세섭님이 대전 중구문화원 문화학교 우경식님에게 교육생 선서를 받음으로써 시작된 교육은 이세섭님(문화관광부 전통지역문화과장), 최기인님(소설가), 이중한님(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장) 세 분의 특강과 친교의 밤 순서로 첫날을 보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친교의 밤 행사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흥겨운 레크레이션을 통해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둘째 날은 박강수(배재대학교 총장)님의 특강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울산남부도서관 문화학교 김미령님,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문화학교 안광선님, 대구 대덕문화전당 문화학교 김성해님, 서울 송파문화원 문화학교 전하익님의 문화학교 모범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문화원 문화학교, 도서관 문화학교, 박물관 문화학교, 기타 문화학교별 분임토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분임토의는 각 문화학교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으며 마지막 날 토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둘째 날 오후에는 문화학교 수료생 공연이 있었

다. 천안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생들의 실내악 합주, 대전 서구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생들의 한국고전무용, 국립부여박물관 문화학교 수료생들의 영남농악, 청원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생들의 중창공연이 펼쳐졌다. 공연을 해 준 문화학교 수료생들 대부분이 주부들이었는데 문화학교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조금이라도 더 잘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물론 전문가들의 공연이 아니라 조금은 실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자연스러



△ 이세섭 문화관광부 전통지역문화과장이 대전 중구문화원 문화학교 우경식님으로 부터 교육생 선서를 받고 있다.(위)
안진수 한국문화학교 사무국장의 강연 모습.(아래)





△ 중원문화원 문화학교의 중창공연



△친교의 밤



△분임토의

운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였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한밭교육박물관과 뿌리공원을 돌아보는 문화유적지 탐방 시간을 가졌다. 다소 시간이 짧아 두 곳을 꼼꼼하게 둘러볼 수 없는 아쉬움이 남긴 하였지만 한밭교육박물관에서는 우리 나라 교육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었고 뿌리공원에서는 성씨에 따른 각자의 뿌리를 확인하고 자긍심과 긍지를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둘째 날 저녁에는 한국문화학교 홈페이지 활용교육이 이어졌다.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된 홈페이지 활용교육에서는 각 문화학교들이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직접 수정하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항상 최신의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한국문화학교 홈페이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각 문화학교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강좌 개발과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날에는 정갑영님(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연구위원)과 이진배님(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사무총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안진수님(한국문화학교 사무국장)이 문화학교 운영지침을 시달하고 둘째 날 있었던 분임토의의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과 그간의 교육을 평가하는 설문조사 시간을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번 한국문화학교 운영관계자 교육에는 전국의 307개 문화학교 중 약 180여 문화학교 운영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많은 문화학교들에서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2박 3일간의 짧지도 길지도 않은 일정 속에서 다양한 강의를 통해 실무를 익히고 전국의 문화학교 운영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고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교육이었다. 이 지면을 빌려 항상 문화학교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문화학교 운영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자 치 기

● 편집부

우리 나라 전통 어린이놀이 주 자치기가 있었다. 적당한 길이의 긴 막대기와 짧은 막대기 2개를 가지고 노는 놀이다. 마당이나 골목에서 주로 놀았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자치기는 이렇다할 장남감이 없었던 옛날 어린이들이 어울려 가장 손쉽게 벌일 수 있었던 놀이로 둘 또는 그 이상의 어린이들이 편을 갈라 땅바닥에 원을 그려놓고 긴 막대기로 짧은 막대기를 쳐서 날려보낸다. 또는 땅바닥에 흙을 파고 흙위에다 짧은 막대기를 가로로 얹어 놓고 긴 막대기로 날려 보내기도 한다. 원 또는 흙앞 적당한 거리에서 이것을 받거나 받지 못하면 주어서 원이나 흙쪽으로 던진다. 서로 정한 약속에 따라 긴 막대기로 짧은 막대기를 쳐 올려 한번 또는 그 이상 튕겨서 날려 보낸다. 이것을 상대방이 잡으면 편을 바꾸고 못 잡으면 날아가 떨어자 짧은 막대기와 원 도는 흙까지의 길이를 긴 막대로 한자 두자... 재어서 자수(100자 또는 그 이상) 내기를 한다. 이와같이 놀이기구와 방법이 단순하며 어린이들에게 널리 성행하였다. 특히 남자 어린이들 사이에서 많이 놀아졌는데 지금은 자취를 감추지 않았다.

땅바닥에 금을 긋거나 구멍을 파서 나무막대기를 가지고 가지고 노는 자치기는 가장 손쉬운 놀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도 알 수 없으나 옛날 별다른 놀이기구가 없을 때 소년들이 상상력은 흔해 빠진 나무막대기를 훌륭한 놀이기구로 삼아 막대기가 지닌 기능을 최대한 살려 재미있는 놀이로 만들어낸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놀이 내용

① 준비 : 땅바닥에 적당한 크기의 원을 그리고 손에 잡고 때리기 좋은 긴 막대기와 짧은 막대기를 준비한다. 짧은 막대기는 땅바닥에 놓고 긴 막대기로 그 끝을 내리치면 튕기어 공3으로 뜰 때 이것을 긴 막대기로 쳐서 멀리 날려 보낸다. 땅바닥에는 원을 긋거나 또는 구멍을 파기도 한다.

② 놀이방법 : ◆ 원긱고 놀기 : 1명 또는 2명 이상이 편을 지어 막대기를 날려보내는 편과 그것을 받는 편이 순으로 공격·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원 앞에 그은 선에 서서 수비편으로 막대기를 쳐서 날려 보낸다. 이 때 수비하는 편은 날아오는 막대기를 주어서 떨어진 자리에서 이것을 원을 향해 던진다. 이 때 공격측은 날아오는 막대기를 긴 막대기로 쳐낸다. 미리 정한 약속에 의해 원 밖으로 쳐낸 막대기를 1번 또는 2, 3번 긴막대기로 튀겨서 또 쳐내는 것이다. 이 때 역시 수비측이 그것을 받으면 공격과 수비를 봐주고 못 받아내면 원에서 쳐낸 작은 막대기까지의 거리를 긴 막대기로 1자, 2자씩 잴다.

막대기를 쳐내지 못하여 막대기가 원안으로 떨어지거나 또 빗맞아 뒤로 떨어질 때도 역시 공격과 수비를 교대한다.

원의 모양은 1, 2, 3 동그라미 등으로 적당히 정한다. 3동그라미일 경우에는 막대기가 맨 가운데의 원에 떨어지면 한번 만 튕겨 쳐내고 그 다음 원에 떨어지면 두번, 맨 가의 원에서는 세번, 그런 식으로 쳐낸다. 어느때나 수비측은 공중에 떠 있는 작은 막대기를 잡으면 공격편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승부는 미리 정한 자수 (100자 등)에 먼저 도달한 편이 승리한다. 대개 이와 같은 놀이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가지 재미있는 방법을 덧붙여 본다.

◆ 땅구멍 파고 놀기 :

놀이방법은 원긱고 놀기와 같으나 원대신 땅바닥에 배모양의 땅구멍을 파서 노는것이 다르다.

즉 땅바닥에 작은 막대기를 비스듬이 세울만한 적당한 크기와 깊이의 구멍을 파내어 그 곳에 작은 막대기를 놓고 긴 막대기로 내리 쳐서 작은 막대기가 튀어오를 때 이것을 앞으로 쳐서 날린다.

또는 땅구멍위에 작은 막대기를 가로로 얹고 이것의 아래에 긴 막대기를 질러 넣어 앞으로 힘껏 날려보내기도 한다.

이밖의 놀이방법은 원긱고 놀기와 비슷하다.

자치기 놀이에 관한 문헌기록은 별로 찾아볼 수 없고 1972년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에서 펴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남편)의 세시풍속 및 놀이에 자치기에 관한 조사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이조사는 경남 창원군 사도리에서 한 것이다.

한편 공격편이 멀리 날려 보낸 작은 막대를 수비편에서 받지 못할 때 날려보낸 원에서부터 큰 막대로 채는데 이 때 자수를 늘리려고 부정한 방법으로 쥔 때는 수비편이 다시 쥔 수 있는데 만약 부정이 들통나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작은 막대를 멀리 날려보내는 기술과 함께 얼마나 합리적으로 거리를 재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 이 놀이는 공간의 넓고 좁음에 따라 자기의 역량과 기술, 요령을 발휘하게 되므로 환경과 여건에 순응하는 노력과 함께 거리를 목측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알맞은 놀이다.

그러나 잘못하면 친구나 지나가는 사람과 얼굴에 상처를 줄 수도 있으므로 넓은 공간 한적한 장소가 알맞은 놀이공간이다. **문**



전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에 '문화원CUG' 개설

전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에 '문화원CUG'가 개설됐다. CUG(Closed User Group)는 문화원 간 업무효율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 97년부터 PC통신 천리안에 개설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근래 PC통신의 활용도가 급감하면서 천리안의 문화원 CUG도 활용빈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홈페이지(www.kccf.or.kr)내에 문화원CUG를 개설하게 됐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중간에 위치한 문화원 CUG는 지방문화원 관계자만 사용 권한이 있으며 패스워드를 알아야 한다(연합회에 문의). 구성은 자료실과 일간게시판 등 메뉴에 글쓰기, 파일등록, 답변기능, 자료삭제, 수정 등의 기능이 있다.

서울특별시

서울시지회

통장계좌번호 및 사무실전화번호 변경

▷사무실주소 : (우)135-09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8-28
▷전화 : (02)543-8084
▷계좌번호 : 한빛은행 : 540-285059-02-001

부산광역시

동래문화원

제6기 문화학교 개강

▷일시 : 2월 1일 ~ 4월 30일
▷장소 : 동래문화회관
▷주관 : 동래문화원
▷내용 : 1999년 11월에 1기로 시작한 문화교실이 이번에 들어 6기를 맞으면서 (준)문화학교로서 한층 성숙된 해를 맞았다. 앞으로 수료자들을 위한 수료식 및 정기적 발표회등으로 기존 수강생들의 자긍심을 더욱 높이는 한

편 새로운 수강생들을 위한 편의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동태학춤, 한국무용, 민요장구, 풍물, 사군자, 서예, 도자기, 크로마하프, 영어, 스포츠댄스, 차밍댄스 등)

동래 3·1 독립만세운동 재현

▷일시 : 3월 1일
▷장소 : 동래시장터-동래구청-마안산 3.1기념탑

월간 '우리문화'

구독 · 광고문의 T.(02)704-2311

부산강서문화원

3.1정신을 되새기자!

부산강서문화원은 3.1운동 제82주년을 맞아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이 과거 일본의 침략행위를 부인할 뿐 아니라 도



리어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며 삼일정신을 되새기자"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김해국제공항 입구를 비롯해 일본인이 많이 드나드는 지역에 걸어 일본정부의 각성을 유도하는 한편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게 새로운 민족적 가치관을 일깨우게 했다.

북한 그림수예작품 전시회

부산강서문화원은 두상통상의 협조를 얻어 북한의 그림 수예작품 및 조개판화작품 전시를 3월 9일부터 3월 17일까지 문화원 전시실에서 개최해 구민들에게 평소에 볼 수 없는 귀한 볼 거리를 제공했다.

대구광역시

달서문화원

제2회 달서 전국사진공모전

▷작품내용 1) 자유작 부문 : 미발표 자유작, 2) 주제작 부문 : 대구 달서구를 소재로 한 미발표 작품 (발전상/발자취/구민생활상/문화관련/관광/환경/행사/풍광/풍물 등)

▷응모자격 : 제한없음

▷작품규격 : 11"× 14", 흑백 또는 컬러사진 (판넬 불요)

▷출품요령 : 작품뒷면에 제목, 촬영장소,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를 명기 (출품표 활용)

▷출품료 : 없음

▷출품수 : 제한없음 (필름 동시 제출)

▷시상내역 : •금상 1점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은상 2점 :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자유작 1점, 주제작 1점), •동상 3점 :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자유작 2점, 주제작 1점), •가작 4점 :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자유작 2점, 주제작 2점), •입선 100점 내외 : 상장 및 기념품, 기타 : 본 공모전 사업추진에 공로가 있는 분에게 특별상 수여 예정. 출품자 전원 작품집 증정.

대전광역시

대전서구문화원

제3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공모

▷출품자격 : 18세 이상의 여성

▷작품종목 : 한국화(구상·비구상), 양화(구상·비구상·수채화), 서예(한글·한문·문인화)

▷원서배부 : 3월 19일~6월 26일

▷원서배부처 : 전국 각 문화원, 한국예총대전지회, 한국미협대전지회, 시내 화방 및 필방

▷작품접수 : 6월 25~26일

▷작품 접수처 : 대전서구 문화원(우편·택배 가능)

▷심사 : 6월 29일

▷출품료 : 1점당 3만원

▷심사결과발표 : 6월 30일

▷시상 : •전체대상 1명:상장및 부상 4백만원(매입상금), •부문별최우수:상장 및 부상 1백 50만원(매입상금), •특선:상장(부문별 약간명), •입선: 상장(부문별 약간명)

▷시상일시및 장소 : 7월 25일 오후3시 대전중구문화원 강당

▷문의:(042)488-5474, 9596

울산광역시

울산중구문화원

송대호 사무국장

울산문화원은 3월 6일자로 사무국장에 송대호씨를 임명했다.

경기도

과천문화원

원소절

과천문화원은 2001년 2월 7일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국태민안과 시화연풍을 기원하는 태평제인 원소절 행사를 단체장을 비롯 3백 50명의 지역주민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문화학교 12개반 개강

과천문화원은 지난 2월 24일 문화회원 대강당에서 문화학교 문화교실 개강식을 가진데 이어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10개월 동안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강식에는 지역 단체장을 비롯 문화원 임원·지도강사·수강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1년간 강좌를 맡아줄 현직 대학교수를 비롯 각 분야 전문인들로 구성된 지도강사를 소



문화원소식

개하고 위촉장도 전달했다. 문화 학교 문화교실 프로그램은 가정 원예교실·국악교실 등 9개분야 12개반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는 가운데 300여명의 수강생이 참여해 1년여 동안 자신들의 정서를 함양하게 된다.

강원도

삼척문화원

수지침 자원 봉사

- ▷일시 : 2월 22일
- ▷장소 : 정라동 나릿골 경로당
- ▷대상 : 여성노인 58명
- ▷참가 : 조일선 단장외 13명



실직문화 연구회 월례회

- ▷일시 : 2월 24일
- ▷장소 : 본원 회의실
- ▷주제 : 조선 후기 부조 조사연구
- ▷발표 : 배재홍 연구위원

2001년 정기총회

- ▷일시 : 2월 27일
- ▷장소 : 문화사랑방
- ▷의안 : • 2000년도 사업실적 심의, •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 2001년도 사업 계획 심의, •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 임원 개·보선

제2회 3.1만세 운동 기념행사

- ▷일시 : 3월 1일
- ▷장소 : 죽서루광장 출발 시가 행진후 삼척초등학교 교정
- ▷인원 : 약 3,000명

제9기 문화학교 입교식

- ▷일시 : 3월 3일 (토) 11:00
- ▷장소 : 문화사랑방
- ▷과목 : 서예, 미술, 국악, 풍물, 사군자, 수지침, 꽃꽂이, 한국요리, 영어회화 등 9개교실 14개반
- ▷인원 : 252명

횡성문화원

제2기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개강

- ▷일시 : 3월 2일
- ▷장소 : 횡성문화원 문화사랑방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한문(漢文) 및 보학(譜學) 강좌

-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까지
- ▷장소 : 횡성문화원 문화사랑방
- ▷강사 : 강대덕 교수(강원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 ▷강의 : • 한문(漢文) : 국가 자격취득과정, • 보학(譜學) : 계보(系譜)에 관한 학문
- ▷대상 : 관내 거주자 성별 제한 없음

충청남도

충남도지회

도지회 월례회의

- ▷일시 : 3월 13일
- ▷장소 : 금산문화원

서산문화원

서산문화원 지역문화 학교 개강식

서산문화원은 지난 3월 3일 서산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문화원 임원 및 교육담당강사, 수강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기 지역문화학교 개강식을 가졌다. 학교교육 이외의 모든 교육을 말하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은 생활을 윤택하게 할 뿐 아니라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서산문화원에서는 10년전부터 사회교육 프로그램인 지역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제9기 지역문화학교에서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여 주었던 플루트교실은 올해에도 많은 수강생이 몰려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수지침 교실은 정원이 초과되는 현상을



빛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밖에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일본어교실과 민요를 배우면서 장구도 배우는 민요와 함께하는 장구교실, 그리고 생활용품으로 실속있게 활용하는 켈트교실과 수채화교실이 열리게 된다.

문화원 분원장 회의

- ▷일시 : 3월 9일
- ▷장소 : 서산문화원 회의실
- ▷대상 : 서산문화원 분원장

전라북도

전북지회

사무실이전

- ▷주소 : (우)560-800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가 126-32 전국문화원연합회 전라북도지회
- ▷전화 : (063)287-5509

김병학전북지회장

전국문화원연합회 전북도지회는 도지회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지회장에 김병학김제문화원장(71)을 재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부지회장에 조정승 고창문화원장, 임남근 정읍문화원장을, ▷감사에는 박승진 완주문화원장·성대휴 무주문화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한편 전북지회는 사무국장에 박갑순씨를 임명했다.

경상북도

경주문화원

국악발표회

- ▷일시 : 3월 7일
- ▷장소 : 경주서라벌문화회관
- ▷내용 : 사물놀이, 살풀이, 화관무, 민요, 부채춤, 각설이, 농악 등 2001 지역문화의 해를 맞이해 본원 부설 개나리회 창립 10주년기념 국악발표회를 가졌다. 개나리회는 순수 봉사단체로 평소 불우이웃돕기, 소년 소녀가장 돌보기 등을 하면서 틈틈이 익혀온 농악·사물놀이·민요·부채춤·화관무등을 익혀 왔다. 이날 발표회는 내빈 및 문화가족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영천문화원

임원개선

영천문화원은 지난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임원을 개선했다. 원장에는 김태원씨가 유임됐다.

문경문화원

2001년도 정기이사회

- ▷일시 : 2월 19일

- ▷장소 : 문경문화원 다목적실

생산적선진생활문화 강연회

- ▷일시 : 2월 21일
- ▷장소 : 구미시민문화회관
- ▷참석인원 : 40여명

2001년도 정기총회

- ▷일시 : 2월 24일

문화원소식

▷장소 : 문경문화원 대회의실
 ▷안건 : • 2000년도 사업 및 결산(안)승인의 건, •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임원 선출의 건, • 기타토의
 ▷참석인원 : 문경문화원 문화가족 80여명

제28회 문경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연습

▷일시 : 2월 20일부터 매주 (화, 목)
 ▷장소 : 문경문화원 회의실

제16회 경로효친실천수기 공모

▷공모시간 : 4월 1~25일
 ▷시상일 : 4월 30일

영어·교양교실 개강

문경문화원은 4월 10일 영어교양교실을 개강한다.

고령문화원

제27차 정기총회

▷일시 : 3월 7일
 ▷장소 : 국악당 전시실



무료영화상영

▷제목 : 글래디에이터
 ▷일시 : 3월 9일
 ▷장소 : 국악당 공연장

경상남도

경상남도지회

문화상품 지원 약속 받아

경남지회는 2월 19일 2001년도 정기총회에서 2000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새해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경남도지사와 도내 문화원장들의 대화의 광장에서 지역문화의 해에 걸맞는 문화상품 창출에 김혁규 도지사의 지원을 약속 받았다.

마산문화원

‘우리 것 함께 보소서’ 공연

마산문화원은 2월 19일 마산올림픽 기념생활관에서 지역문화의 해 첫 프로그램인 ‘우리 것 함께 보소서’ 공연물을 제작·공연해 시민들의 격찬을 받았다.

진주문화원

2001년도 정기총회

▷일시 : 3월 6일
 ▷장소 :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내용 : • 장한어머니상(수상자 황영자), • 공로 표창패 시상, • 2000년도 사업실적·수입지출 결산 승인, 2001년도

사업계획·예산안 승인, • 식전공연 : 김경숙무용단, 진주어머니합창단

상반기 무용교실 개강식

▷일시 : 3월 5일 10시
 ▷장소 : 문화원 강당
 ▷과목 : 고전무용, 스포츠댄스
 ▷수강기간 : 3~5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각 2시간 (초급 중급 각 40명)

진해문화원

2001년도 진해문화원 정기총회

진해문화원은 지난 2월 19일 문화원 2층회의실에서 회원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진해문화원 2001년 문화학교 합동개강식

진해문화원은 지난 3월 2일 진해시민회관 3층 소극장에서 10개 강좌 수강생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진해문화학교 합동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은 문화원 이사를 비롯 김병로 진해시장, 김영조 진해시의회의장, 강수명 교육장 등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해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박차생 문화학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는 우리문화가 서구와 일본문화에 경도되어 우리의 빛나는 전통문

화가 소외되고 천시되어 왔다”며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전통문화를 재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장은 “일본 아사히 신문의 세계적인 칼럼니스트 후나바시 요이지씨가 그의 논문 ‘21세기 구상’에서 영어를 일본의 공용어로 쓰자고 제의했듯 글로벌 시대의 세계주류는 우리의 상상보다 더 빠르게 급변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에 발맞추어 일만불 시대에 걸맞은 긍지높은 시민의식과 자기성찰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자”고 말했다. 진해문화원 문화학교는 1년 교육과정으로 컴퓨터·서예·수묵화·유화·수채화·고전무용·오광대 탈춤·풍물사물놀이·민요·한자 등 10개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12월에 합동수료식을 한다.

2001년은
지역문화의 해



김해문화원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초청 공연

▷일시 : 2월 16일
▷장소 : 김해칠암문화센터공연장
▷내용 : 김해문화원은 서울대학교 박세원교수가 지도하는 지오반니 칸타테 오페라단을 초청해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를 공연했다.

2001년 정기총회

▷일시 : 2월 26일
▷장소 : 김해문화원 1강의실

문화학교 문화재가이드반 개강

▷일시 : 3월 27일
▷장소 : 김해문화원 1강의실
▷내용 : 김해문화원은 김해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김해의 문화유적을 안내하고 설명할 수 있

는 안내자를 양성하기 위해 문화학교에 문화재가이드반을 개강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김해문화원은 6개월 동안 향토사학자·교수 등 전문분야의 강사진을 구성해 강의 및 답사를 통한 교육을 거친 뒤 문화재 안내 자원봉사자로 양성, 김해를 찾는 관광객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해문화원은 일어·영어·중국어 등 외국어 가이드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의령문화원

문화가족대표자연석회의

의령문화원은 제29회 의병제전 및 제1회 의령군민의날 기념축제를 맞이해 개최되는 문화예술 행사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의령문화원은 4월21일~24일 군민문화회관 특별전시실에서 서예와 묵화, 서양화 및 동양화, 난(蘭)과 분재, 꽃꽂이, 작품, 사진, 문학회원의 시화전, 전통도자기, 목공예작품등 12개 단체에서 출품한 문화가족의 작품 합동 전시회와 함께 저명 서예가를 초청해 가훈과 좌우명 지어드리고 써드리기 특별행사를 갖기로 결정했다.

주부서예교실 제6기 개강식

의령문화원은 지난 3월 16일 의령군민문화회관 회의실에서 문화

문화원소식

원 부설 주부서예교실 제6기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에는 전원용의령군수님과 김순곤의회 의장님을 비롯해 문화원임원 그리고 주부수강생 25명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허원장 취임이후



중요사업으로 추진해온 주부서예교실은 가정 주부들의 여가선용과 건전한 취미활동은 물론 자기발전과 문화생활을 누리는데 기여한다는 취지로 지난 97년 1월 26일 제1기생을 모집해 6개월 과정으로 무료교습을 실시해 왔다. 주부서예교실은 그 동안 160여명이 수료를 했을 뿐 아니라 특히 창원 MBC여성취미대회, 진주 개천예술제취미대회와 경남도전 등 여러대회에서 8명이 입선을 하는 등 큰 실적을 거뒀다

하동문화원

제16회 정월대보름 행사



▷일시 : 2월 7일(음 1월 15일)

▷장소 : 송림백사장 일원

▷참가인원 : 500명

▷행사내용: • 연날리기 대회, • 민속놀이(제기차기, 투호놀이, 널뛰기, 윷놀이), • 불꽃놀이(전문 이벤트), • 달맞이 놀이와 달집태우기, • 답교놀이

하동문화원

주소이전

(우)667-800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563-6(하동문화예술복지회관내)

2001년도 총회

▷일시 : 2월 23일

▷장소 : 하동문화원

▷참가인원 : 70명

▷내용: • 제1호의안 : 200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심의 건, • 제2호의안 : 2001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안) 심의 건, • 제3호의안 : 기타의건

제주도

제주문화원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유종호' 선생 초청 강연회

▷주최 : 대한민국예술원

▷주관 : 제주문화원

▷일시 : 3월 31일

▷장소 : 중소기업센타 다목적홀

민화초대전시회

▷일시 : 4월 9~14일(6일간)

▷장소 : 제주해변공연장 전시실

월간 '우리문화'

구독 · 광고문의 T.(02)704-2311

신간안내

譯註 조선환여승람(金堤)

조선환여승람에서 김제편을 떼어 내 번역하고 뒷부분에 원문을 함께 게재했다. 수년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각지역 환여승람영인본을 배포한바 있는데 이 책은 그 때 없었던 서문과 조선연혁을 구해 번역하고 원문까지 실어 완벽을 기했다. 신국판 440면.(김제문화원)



家禮解說典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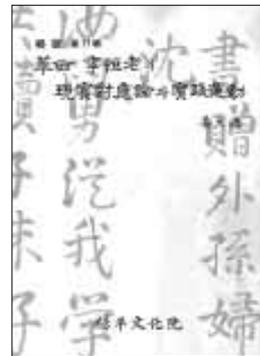
우리 전통의 가정의례인 관례,



혼례, 상례, 제례 등 사례외에 충효와 예의, 사례의 유래, 향교, 생활예절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전통과 현대의 예절을 함께 조명하고 있다. 신승한 문화원장은 이 책에서 “민족의 전통의례 절차와 정신문화를 근원으로써 지

혜로운 조상의 얼을 후손들에게 알리고자 발간했다”고 말하고 있다. 국배판 양장본 320면. (양평문화원)

華西 李恒老의 現實對 應論과 實踐運動



이 책은 강대덕 강원대 사학과 교수가 화서 이항로의 현실대응 실천운동에 대해 쓴 것이다. 화서 이항로는 19세기 중엽 재야지식인으로 위정척사 사상을 형성해 개항 전후 서양세력이 동아시아로 진출하는 정세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현실대응론을 실천운동으로 행동화한 인물이다.(양평문화원)

동작의 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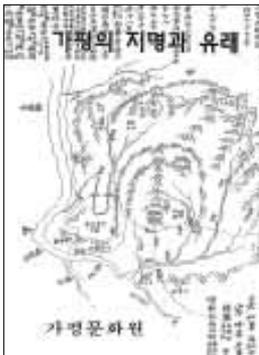
동작구내 문화유산을 조사해 사진과 함께 관련문헌까지 게재했다. 동작구의 개관에선 현대적인 것외에도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발췌해 게재했다. 이 책은 동작의 문화유산과 함께 동작의 옛지명도 조사해 실었다. 연만희 동작문화원장은 발간사에서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문화유산은 새로운 미래 창조의 무한한 보고’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배판 150면. (동작문화원)

동작구내 문화유산을 조사해 사진과 함께 관련문헌까지 게재했다. 동작구의 개관에선 현대적인 것외에도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발췌해 게재했다. 이 책은 동작의 문화유산과 함께 동작의 옛지명도 조사해 실었다. 연만희 동작문화원장은 발간사에서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문화유산은 새로운



가평의 지명과 유래

가평의 개요와 함께 설악·상·하면 등 3개면의 지명과 유래가 실려 있다. 부록으로 가평학도의 용대 6.25 참전기, 각읍면별 유적현황, 가평군 각급 학교현황 및 역대교장 명단, 가평군 노인회장 명단이 실려 있다. “원래 한 권으로 발간하려 했으나 시간, 인력의 제한으로 상·하권으로 나누어 발간하게 되었다”고 신일균문화원장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책에는 상·하권 표시가 없다. 신국판 384면. (가평문화원)



옛사람들의 登漢拏山記

제주목사를 비롯한 옛 선인들이 한라산을 오르며 남겼던 글을 번역해 묶어냈다. (제주문화원)

2001년은
지역문화의 해

大邱지방의 옛風俗

대구지방의 옛풍속을 집대성한 책이다. 관혼상제·수연(壽宴)의 풍속·세시풍속·집단의례·민요·풍속놀이 등 6편으로 짜여져 있다. 채수묵문화원장은 발간사에서 “선조들이 오랜 기간 지키고 가꾸어온 대구의 정신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의무이자 권리이다”고 역설하고 있다. 국배판 420면. (달성문화원)



진주의 역사와 문화

진주의 자연환경과 함께 유구한 역사와 문화재, 진주의 인물, 전설, 진주의 자랑거리를 알기쉽게 엮은 책이다. 김계현문화원장은 “이 책은 강병주 진주시문화재전문위원, 강동욱 경남일보문화부

차장, 양기석 문화원사무국장이 집필하고 김범수 향토사연구소장이 감수를 맡아 수고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신국판 156면. (진주문화원)



寧越王儉城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와 영월군이 함께 발간한 중원문화연구총서 17집이다. 왕검성의 위치와 연혁 및 환경, 왕검성의 현황, 왕검성의 세부구조와 수습유물의 성격, 왕검성 주변의 옛 성터들, 왕검성의 성격과 보존·정비에 대한 조사단의 견해 등 5편으로



짜여져 있는데 현장사진을 2천 9백여장이나 게재하고 있어 현장감을 느끼게 한다.(영월군)

성동구의 세시풍속과 놀이

성동민속대관(2)로 간행된 책이다. (1)권은 '성동구의 구비설화'다. 제1장 조사개관, 제2장 세시풍속, 제3장 민속놀이로 구성된 이 책은 오래전 현대화의 길로 들어선 서울에서 전통문화를 조사하기가 어려운 처지에서 나온데 큰 뜻이 있다. 국배판 218면.(성동문화원)



陝川の文化遺跡(II)

문화의 고장 합천군내 문화유적을 조사해 게재한 책자다. 국보3, 보물17, 사적3, 천연기념물 등 국가

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자료 등이 실려 있다. 모두 컬러사진과 함께 설명을 곁들이고 있는데 합천의 문화사를 자세히 소개해 합천군의 문화유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국배판 166면, 아트지 컬러판.(합천문화원)



소성의 향기(6집)

태안문화원 향토문화지 정기간행

물이다. 서두에 사진으로본 문화원 동정을 컬러판으로 싣고 태안 관련 인터넷사이트 소개, 우리고장 문화소식, 문화원발간 도서목록, 학생문예작품 등이 실려 있다. 특히 태안문화원 윤길상부원장의 '전통예절에 대한 소고'란 글이 주목을 끌고 있다. 신국판 210면.(태안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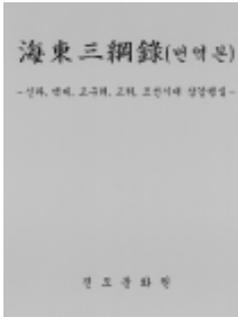


중구문화길잡이



울산중구문화원에서 관내 문화 가이드북으로 만들어낸 소책자이다. 문화재와 특산물, 중구의 역사인물, 함월산과 태화강, 동명유래, 중구의 설화, 문화행사와 민속놀이가 자세히 실려 있다. 김철문화원장은 "이 책에 삶의 기본 모습을 담았다"며 "지역문화의 해 주제인 사람, 삶, 어울림의 여유를 여기서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울산중구문화원)

海東三綱錄 (번역본)



신라 · 백제 · 고구려 · 고려 · 조선시대의 삼강행실을 담았다. 삼강이란 충신 · 효자 · 열녀를 뜻한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의 귀감이 되는 충 · 효 · 열녀를 시대별로 엮은 책을 한글로 번역해 청소년까지 누구나 읽기 쉽게 만들었다. 박문규 문화원장은 “우리의 참된 덕목인 충 · 효 · 열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진도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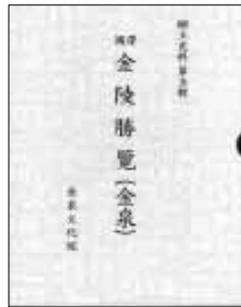
광명의 문헌자료



광명문화원 향토사료조사 9호. 광명에서 조사발굴된 교지와 교

서 원본을 사진으로 찍어 게재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광명문화원)

國譯 金陵勝覽 (金泉)



김천시의 옛 역사와 문화에 대해 상세히 수록된 ‘금릉승람’을 한글로 번역한 책이다. 이 책은 300여 년전 고장의 인재양성과 향토사 연구에 헌신한 수봉 여이명 선생이 집필한 것으로 김천시에서 가장 오래된 향토사 서적이다. 한글

로의 번역은 김천노인학교 김장억선생이 맡았다고 한다. 4×6배판 양장본 356면. (김천문화원)

北門藝門

대구광역시 북구관내 문화유산을 소개한 소책자이다. 지정문화재 현황, 선사 및 고대유적, 석조유물, 전통건축물(비지정문화재), 노리수와 보호수, 부록으로 짜여져 있다. 김덕근 대구북구문화원



청주지역 선사문화



충북대학 박물관장 이용조교수가 지은 책이다. 청주지역의 지형과 지질, 구석기시대 문화와 유적, 신석기시대 문화와 유적, 청동기 문화와 유적, 청주지역의 선사문화 등이 실려 있고 조사결과와 문제점을 맺는말로 정리했다. 앞머리에는 유적발굴과 유물 등의 사진이 컬러로 게재되어 있다. 청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으로 보인다. (청주문화원)

장은 “이제는 가꾸어져야 할 문화와 보존해야 할 문화를 후손들에게 길이 남겨 주어야 하겠다”고 발간사에서 강조하고 있다. (대구북구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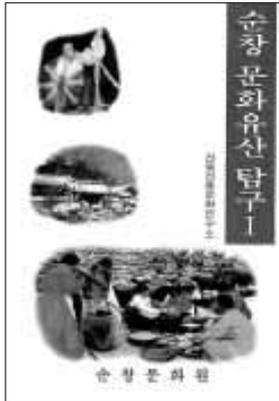
井邑鄕制齣風流

최현식 전 정읍 문화원장의 편저



로 발간된 책자이다. ‘판소리와 풍류는 독특한 형태의 우리고유 음악인데 풍류의 京制와 鄕制중 향제는 호남에서 맥을 이어오고 있고 정음은 세인이 공지하는 풍류의 고장이다’고 편저자는 말하고 있다. 향제줄풍류의 유래, 정음의 향제줄풍류, 향제줄풍류의 악기, 정음풍류의 인물로 구분해 서술했다. (정읍문화원)

순창문화유산탐구(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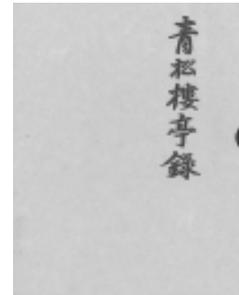
양만정 전북향토문화연구회장 등 12명의 전문가들이 쓴 순창군의 향토사에 대한 글을 게재한 책이다. 설동찬 순창문화원장은 “순창의 지역특성과 전통성이 강한 관광자원으로 내세울만한게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고장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신국판 318면 (순창문화원)

순창문화유산탐구(Ⅱ)



송화섭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소장(文博)과 이해준 국사편찬위 편사부장 등 9명의 순창문화유산에 대한 글을 모아 만든 책자이다. 이 책은 순창의 문화유산을 이해하는데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토사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사계의 권위있는 학자들의 글이어서 향토사에 관심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다. 신국판 264면 (순창문화원)

靑松樓亭錄



청송군내에 산재한 향교, 서원, 누정 등 전통건축물을 읍면별로 조사해 사진과 함께 건물을 세우게된 유래 등을 상세하게 실고 있다. 류기룡문화원장은 발간사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 차원에서 기록물화 작업에 착수해 제 2자료집으로 ‘청송누정록’을 출간했다”고 말하고 있다. 향토사 연구의 좋은 자료이다. 4×6배판 양장본 554면. (청송문화원)

월간 ‘우리문화’

구독·광고문의 T.(02)704-2311

達城文化大要



달성군 문화 전반에 대해 조사연구해 실은 이 책은 총론·지석묘·고분·산성·지정문화재·비지정중요문화재·전통사찰(문화재제외)·유림향사와 서원·문중향사·지역문화행사·종택과 집성촌·명승경관·농악 민요 및 집단 민속놀이·역사적 사건·관광문화자원·산업·문화시설자원 등 총19편으로 구성돼 있다. 국배판 490면. (달성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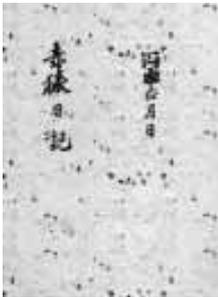
▲ **윤지당유고** 원주의 선비 申光裕의 부인 윤지당의 유고원문과 한글 번역문으로 된 책이다. 4×6배판 450면. 원주시에서 발간

▲ **전통사찰총서(15)** 사찰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한 경북의 전통사찰 둘째권이다. 신국판 402면. 값12,000원.

▲ **진주의역사와 문화, 의기 논개** 진주문화원에서는 고장의 향토사 교육을 위해 진주시내 중고등학교에 학급당 각 1권씩 진주의 역사와 문화, 의기논개 각900권을 배부했다.

▲ **노굴시집·화암시집** 향토사료로 노굴·화암 선생의 한시를 국역으로 번역해 발간했다.(제주문화원)

赤猿日記



을미년 국모(민비) 시해후 전국 각지에서 왜적의 만행에 대항하는 의병이 많이 일어났는데 '적원일기'는 병신년 청송인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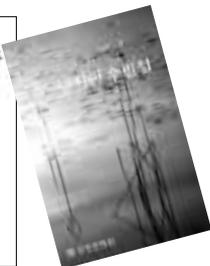
의병을 모아 의진을 결성하니 이를 '丙申倡義'라 했다. 적원 일기는 병신창의를 일기로 쓴 내용인데 한문으로 돼 있는 것을 영인하고 뒤편에 한글로 번역해 출간한 것이다. 국배판 98면. (청송문화원)

▲ **청자굽는 마을** 김해등 지음. 강진문화원 발간. 신국판 112면

▲ **당진인수필집** 도서출판 당진시대·당진문화원 공동발간. 82편의 당진사람 수필이 실려있다. 신국판 354면.

CD롬·비디오

- ▲ '충주문화유적총람' CD롬 (충주문화원)
- ▲ '증평문화유적을 찾아' 비디오테이프(증평문화원)



바로잡습니다

3월호 67면 상단 신간안내 '양주사료총서'는 의정부문화원에서 발간한 것인데 양주문화원으로 잘못 인쇄돼 바로잡습니다.

한양의 용문화 오방토룡제에 대한 연구 ①

1. 序論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우리의 선조들은 삶의 터전인 하늘, 땅, 산, 강 등의 자연과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자신의 행복에 감사하고 자신의 불행에 복을 내릴 것을 기원하였다.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막중한 행사로서 임금에게 상소하고 제례를 성심성의로 모시고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현대의 시각으로 볼 때 자연신에 대한 기복신앙이 강한 미신적 속성을 담지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통의 뿌리는 언제나 새롭게 해석됨으로써 싱싱한 잎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뿌리깊은 전통의 의미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과거 반만년의 농업국가적 민족문화를 현대의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앞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함으로써 지난 일제수탈시대와 경제발전의 그림자에 묻혀왔던 선조의 옥토를 새로운 지평으로 일구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선조들이 남긴 옥토 중의 하나로서 제사문화는 우리 민족에게는 삶과 직결되어 상하의 구별이 없이 이어져 내려왔으며 그것은 단지 숭배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을 설정하여 개인과 사회의 依託的 존재유지를 위함이 아니라 전인간사의 정신적 근거로서 완성된 인격모델과 사회윤리의 전형을 체계화시켜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민족에게는 고유의 문화를 성립해온 반만 년의 역사 동안 다양한 종교적 원천들이 있었고, 수많은 종교의 전시장으로 불릴 수 있는 현재까지도 그 전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제 35년과 급속한 근대화의 길을 걸은 현재에 민족의 전통이 왜곡되고, 정신적 뿌리들이 무분별하게 배척당하면서 몇 가지 남지 않은 전통마저 미신으로 오해되는 상황이 종종 연출



김영섭(金榮燮)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동대문문화원 원장. 청룡문화재보존위원회위원장.
저서로 『이것이 침향이다』外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타의에 의한 역사가 가져왔던 정체성 부재상황에 대한 재고가 차츰 확산되고 있는 것도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민족적 정신문화들이 새롭게 해석되어 우리 사회에서 내딛는 앞날에 훌륭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오방토룡제에 대한 연구는 1990년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에 전해 내려오던 마을제사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하여 일제시대 때까지 마을제사가 이어졌다는 증언을 채집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본 연구자를 중심으로 1991년 5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명을 따서 '용두제'라는 이름으로 제향을 올렸으며 동부교육청관내의 초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에 지역 전통행사로 용두제 부문이 수록되면서 본 연구자는 용두제향이 용신신앙의 한 갈래라는 막연한 추측에서 탈피하여 본 제사의 연원에 관심을 갖고 동대문구 용두동의 지역적인 배경을 탐구하게 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을 접하고부터 이 지역의 제사가 조선시대의 祈雨의식과 연관이 있으며 그 근원이 오방토룡제에 있다고 판단되어 조선왕조실록의 사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실행하게 된 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동방토룡제를 발굴·조사함으로써 조선의 도성인 한양의 용 문화를 연구하게 되었다.

(2) 연구목적

동대문구 용두동은 조선시대 한성부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 국왕이 직접 선농제를 올리고 친경하던 중요한 장소이며 우사와 동방토룡제를 행하던 유서 깊은 고장이다. 그동안 이런 사실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선농단이 파괴되고 동방토룡단과 우사단이 흔적도 찾지 못하도록 말살당하면서 제사의 형태도 사라져 버렸다. 민간에서 대신하여 제사를 올리면서 존속하였으나 대동아전쟁시 제기(祭器)를 모두 공출 당하는 연유로 폐기되었다고 한다.

본연구를 통하여 첫째, 오랜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잃어버린 우리의 전

통문화를 발굴 계승케 하고, 둘째, 조선시대의 도성인 한양에서 거행된 용에 대한 제사와 문화의 개발로 중국과 동남아는 물론 심지어 일본에조차 뒤쳐진 龍에 대한 문화를 활성화하여 한국과 지방자치단체의 表象(이미지 또는 캐릭터)으로 승화하고 龍전설을(역사적 배경을 원천으로 하는)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고, 셋째,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유구히 전승되어가는 문화행사의 역사적 연원(배경)을 보유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전통문화의 향수를 충족과 더불어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적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역사의 굴절과 함께 단절된 지역의 固有性을 전통문화축제로 발전시켜 향후 전국적인 행사로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자료의 접근

① 오방토룡제는 물론 기우제의 한 형태였으며 기우는 고대국가의 일반적인 관심사였으며 통치자의 자질을 재는 척도가 되기도 했다. 이것은 1차산업이 국가의 근간을 이룬 농경시대에 가장 필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국가기우의 여러 상황과 기록을 살펴봄으로 오방토룡제의 역사적 연원을 규찰한다.

② 국조오례의는 국가전례의 대부분의 의식상항이 기록되어 있다. 국가 제례인 길례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에 오방토룡제만 제외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오방토룡제에 대한 국왕의 관심도 및 빈번한 기록에 비추어 매우 의심스러운 사항이다. 제사가 기우와 관련한 항목이 번갈아가며 나타나 있고 國行祈雨祭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오방토룡제에 대한 독특한 상황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국조오례의의 길례를 분석하여 국가기우의 사례를 살펴봄으로 오방토룡제의 규격을 유추하도록 한다.

③ 조선왕조실록상의 기사를 분석하여 오방토룡제의 실행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기타의 전적상의

용(龍)은 인간의 상상(想像)을 형상화(形象化)한 영물(靈物)로 현무(玄武)·주작(朱雀)·봉황(鳳凰)·붕(鵬)·곤(鯤) 같은 영물(靈物)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영물(靈物)이다. 용(龍)에 대한 상징성(象徵性)은 모든 민족이 다 가지고 있으며, 설화(說話)속에서 광범위하게 등장하고 있다. 문명(文明)의 발상(發祥)에서부터 신화(神話)나 전설(傳說)의 중요한 소재(素材)로 등장되었으며, 민간신앙(民間信仰)의 대상으로 큰 몫을 차지하여 왔다. 현재에도 인류학(人類學)이나 민속학(民俗學)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기록을 분석한다.

④ 오방토룡제 중 동방토룡제와 용두동 지역의 역사·지리적인 연관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⑤일제 강점기의 조선문화말살 정책 중 용문화 말살정책에 대한 재고

2. 용 문화에 대한 개념과 이해

용(龍)은 인간의 상상(想像)을 형상화(形象化)한 영물(靈物)로 현무(玄武)·주작(朱雀)·봉황(鳳凰)·붕(鵬)·곤(鯤) 같은 영물(靈物)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영물(靈物)이다.

용(龍)에 대한 상징성(象徵性)은 모든 민족이 다 가지고 있으며, 설화(說話)속에서 광범위하게 등장하고 있다.

문명(文明)의 발상(發祥)에서부터 신화(神話)나 전설(傳說)의 중요한 소재(素材)로 등장되었으며, 민간신앙(民間信仰)의 대상으로 큰 몫을 차지하여 왔다. 현재에도 인류학(人類學)이나 민속학(民俗學)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동양(東洋)에서 용(龍)은 기린(麒麟)·봉황(鳳凰)·거북(龜)과 더불어 사대상서수(四大祥瑞獸)로 일컬어져 왔으며 태평성대(太平聖代)와 성군탄생(聖君誕生)의 전조(前兆)로 민간(民間)에서 널리 신앙(信仰) 되어 왔다.

이중 거북(龜)을 제외한 나머지 세 영물(靈物)은 순전히 상상의 소산(所産)으로 실제 존재형태는 있

을 수 없지만 고대고분(古代墳墓)의 벽을 비롯하여, 현대 서책의 도식표현(圖式表現)등 우리의 일상 생활과도 상당히 친근하게 접근하여 왔다.

이러한 정황(情況)에서 용(龍)은 많은 전설(傳說)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상(實狀)을 가지고 나타난다. 한국(韓國)의 어디를 가나 용(龍)의 출처(出處)는 상당히 많다. 이것이 용(龍)을 실상(實像)의 동물로 생각하였던 증거다.

용(龍)은 어떠한 인간 의식(意識)에서 생겨났으며,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고고학적(考古學的) 발견에 의해 거대한 파충류인 공룡(Dinosaurian)이 중생대(中生代)에 있었으나, 공룡(恐龍)은 인류(人類)가 생겨나기 훨씬 전에 소멸했으므로, 현재 인류가 상상하고 있는 용(龍)은 다른 원인(原因)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파악된다.

용(龍)의 분포는 아주 광범위(廣範圍)하여 실제 존재하는 호랑이(虎)의 분포보다 넓다. 고대 이집트, 바빌로니아, 인도, 중국 등 이른바 인류 문명의 발상지 어디에서나 다 발생하여 세계 각처로 전파되었고, 각 지역은 각 지역대로 고유한 용(龍)과 외래적인 용(龍)이 결합되어 복잡한 양상을 이루고 있으므로 용(龍)의 발생에 대한 단적인 설명은 매우 어렵다.

종교들과 용(龍)과의 관계에서 용(龍)의 의미와 상징성은 변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처럼 복잡한 다종다양(多種多樣)의 용(龍)이 생긴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어떤 국가적(國家的)인 신앙, 예를 들어서 중국의 유교 등과 대립되다가 이에 수용된 용(龍)은 호국룡(護國龍)이 되었고, 또 용(龍)이 가진 장엄(莊嚴)하고 화려한 성격 때문에 흔히 왕권(王權)이나 왕위(王位)가 용(龍)으로 상징(象徵)된다.

용(龍)에 대한 근대적(近代的) 학문연구(學問研究)는 1899년 북경주재(北京駐在) 독일(獨逸) 대사관에 근무하던 자연과학자 K.A. Haberer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후로도 동서양(東西洋)의 학자에 의해 논문(論文)이 발표되었으나, 본격적인 연구의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인류학(人類學), 문학(文學), 종교학(宗敎學), 민속학(民俗學), 박물관학(博物館學) 등의 주변소재(周邊素材)의 구실을 하였다.

필자는 용(龍)이 타학문의 단순한 보조적(補助的) 연구개념으로 전락한 것에 대하여 우려(憂慮)하며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용신사상(龍神思想)으로 정립되고 인류(人類)의 문화유산(文化遺産)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데 일조(一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용(龍)은 어디까지나 상상적 동물이기 때문에 민족(民族)에 따라 또는 시대(時代)에 따라 그 모습이나 기능(機能)이 조금씩 달리 파악되어왔고, 용(龍)의 구분에 따라서 형상화(形象化)나 묘사(描寫)의 표현 역시 차이를 보여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해온 용(龍)은 대개 일찍이 중국인(中國人)들이 상상(想像)하였던 용(龍)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중국(中國)의 고대문헌(古代文獻)의 용(龍)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용(龍)은 인충(鱗蟲)중의 우두머리로서 그 모양은 다른 짐승들과 아홉 가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즉 머리는 낙타(駝)와 비슷하고, 뿔(角)은 사슴(鹿)과, 눈(眼)은 토끼(兎)와 귀(耳)는 소(牛)와, 목덜미(項)는 뱀(蛇)과, 배(腹)는 큰 조개(蟹)와, 비늘(鱗)은 잉어(鯉)와, 발톱(爪)은 매(鷹)와, 주먹(掌)

은 호랑이(虎)와 비슷하다. 그 중에서 99 양수(陽數)인 81개의 비늘이 있고, 그 소리는 구리로 만든 쟁반(銅盤)을 울리는 소리와 같고, 입 주위에는 긴 수염이 있고, 턱 밑에는 명주가 있고, 목 아래에는 거꾸로 박힌 비늘이 있으며, 머리 위에는 박산(博山)이 있다.”

이처럼 각 동물이 가지는 최고의 무기(武器)를 모두 갖춘 것으로 상상된 용(龍)은 그 조화능력이 무궁무진(無窮無盡)한 것으로 믿어져 왔으며, 특히 물과 깊은 관계를 지닌 수신(水神)으로 신앙(信仰)되어 왔다. 그래서,

“용은 물에서 나오며, 그 색깔은 오색(五色)을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조화 능력이 있는 신이다. 작아지고자 하면 번데기처럼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지고자 하면 천하를 덮을 만큼 커질 수도 있다. 높이 오르고자 하면 구름 위로 치솟을 수 있고, 아래로 들어가고자 하면 깊은 샘 속으로 잠길 수도 있는 변화무일(變化無日)하고 상하무시(上下無時)한 신(神)이다.”

라고 설명되기도 하였다.

한국(韓國)의 용(龍)을 고찰할 때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인도의 용(龍)과 중국의 용(龍)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두 용(龍)은 서로 혼합되어 한국에 들어왔으므로 엄밀한 구분이 곤란하다. 이점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인(中國人)이 상상해온 용(龍)의 모습이나 능력은 그대로 한국에 수용되었으나 고대시대(古代時代) 이후로 점차 한국에서는 다른 양상(樣相)이 나타난다.

한국(韓國)에서 용(龍)과 관련된 지명(地名) 또는 설화(說話)는 막대한 문화유산(文化遺産)이며 이것에 대한 연구(研究)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韓國)의 용신사상(龍神思想)은 재조명

한국(韓國)의 용(龍)을 고찰할 때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인도의 용(龍)과 중국의 용(龍)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두 용(龍)은 서로 혼합되어 한국에 들어왔으므로 엄밀한 구분이 곤란하다. 이점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인(中國人)이 상해온 용(龍)의 모습이나 능력은 그대로 한국에 수용되었으나 고대시대(古代時代) 이후로 점차 한국에서는 다른 양상(樣相)이 나타난다.

되어야 하며 향후 2000년대의 용문화(龍文化)로 재인식(再認識)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1) 민간신앙에서의 용(龍)

민간신앙에서 보면 용은 오복(五福)을 수호하는데, 오복이라 함은 수(壽), 부(富), 강령(康寧), 덕(德)을 좋아하고, 천명(天命)을 다함이다.

용은 실재하지 않는데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실존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신앙심이 뿌리깊기 때문인데, 대륙민족(大陸民族)이 유토피아를 산중의 무릉도원(武陵桃源)에 설정한데 비해 해동민족(海東民族)은 바다 속에 설정하고 용궁이라 불렀으며 뱃사공이 잉어를 먹지 않는 것은 용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용은 수신으로 풍요와 복을 가져다주는 선신(善神)임으로 용신께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며 풍년을 기원했다.

농촌 부녀자들간에는 '용알뜨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상진날(上辰日 - 용해 첫용날) 전날 자정에 남보다 먼저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오는 것으로 용해를 맞는 그 전날에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알을 낳는데 이 알을 낳은 물을 먼저 떠가면 그 해 자기 집에 행운 즉, 길상을 얻기 위한 것이다.

용꿈은 길조를 뜻하며 임신 중의 용꿈은 득남을 의미하고 그 아이는 커서 성인, 위인, 영웅이 될 것으로 여겼다.

인간 삶에서 물은 외면할 수 없는 필요사항이다. 특히 농경민족(農耕民族)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과

같다. 따라서 물을 지배하는 것으로 믿어졌은 용(龍)은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민간신앙에서의 용은 물을 지배하는 수신(水神)으로 신앙되면서 많은 용신신앙(龍神信仰)을 발생하게 하였다. 신라시대의 '사해제(四海祭)' '사독제(四瀆祭)', 고려시대의 '사해사독제(四海四瀆祭)', 조선시대의 각처에서의 각종 용신제(龍神祭) 등이 모두 그러한 용을 대상으로 한 거국적인 의식(儀式)으로서, 그것은 생명의 원천이면서 농경의 절대적 요건인 물을 풍족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한 의식의 잔형은 아직껏 일부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용왕굿, 용신제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농가에서는 음력 6월 15일, 즉 유두일(流頭日)이 되면 논외 물꼬에 보리개떡이나 밀개떡을 한덩이 찌다 놓고 마음 속으로 풍년을 비는 일이 있는데 이를 유두제(流頭祭) 또는 용신제(龍神祭)라고도 한다. 특히 운행우시(雲行雨施), 즉 마음대로 비를 오게 하거나 멈추게 할 수 있는 조화능력을 지닌 수신으로 신앙된 용은 한발(旱魃)에 기우(祈雨)의 주요한 대상신(對象神)이 되었다. 신라시대에서부터 기우(祈雨)에 용이 등장하였던 사실은 여러 문헌을 통하여 살필 수 있다. 즉 용의 화상을 그려 놓고 비를 빌었다거나 흙으로 용상(龍像)을 만들어놓고 무당들로 하여금 비를 빌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뭄이 계속되면 오해신(五海神)에게 기우(祈雨) 하였으니 이러한 일은 조선조에 이르러서도 거의 그대로 전승되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 동교(東郊)에서 토룡제(土龍祭)를

거행하기도 하였고, 오방토룡제(五方土龍祭)로써 기우십이제차(祈雨十二祭次)의 마지막 의식을 끝맺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일반 민가에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 특히 용(龍)자(字)가 들어 있는 연못(池) 연(淵) 담(潭) 소(沼)이나 내, 강, 바다, 산, 바위 등지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것은 천한시(天旱時)에 호골(虎骨)을 못에 투침(投沈)하면 득험(得驗)한다는 속신이 간간히 보이는데, 이를 보면 용과 호는 속적(宿敵)으로서 세력을 다투어 왔던 것 같다.

또 용은 농경민(農耕民)들에게 뿐만아니라 어민(漁民)들에게 있어서도 어로신앙(漁撈信仰)의 중요한 대상으로서 숭배되어왔다. 그것은 용이 바다 밑의 용궁(龍宮)에 살면서 바다를 지배하는 용왕으로 전승되어왔기 때문이다. 용왕의 음우(陰祐)로써 안전한 항해와 조업, 그리고 풍어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용왕제 풍어제이다. 용왕제는 주로 어촌의 부녀자들이 음력정초(陰曆正初)나 2월초의 만조시(滿潮時)를 택하여 해변에 간단한 제물을 차려 놓고 사해(四海) 용왕에게 가족의 안전과 풍어를 비는 의식이다. 풍어제는 어촌의 전주민들이 온갖 정성을 모아 공동의 제장(祭場)에서 그들의 공동목적인 항해의 안전, 안전한 조업, 풍농, 풍어, 그리고 마을의 태평(泰平)을 기원하는 집단 의식이다. 이를 당굿이라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용(龍)은 풍수학(風水學)에서도 매우 중요시되어 왔다. 풍수학(風水學)에서는 토지(土地)의 기복(起伏)인 산(山)을 용(龍)이라 한다. 그것은 기복변화(起伏變化)가 심한 산(山)이 마치 음양조화(陰陽造化)를 마음대로 하는 용(龍)의 조화와 서로 통한다는 뜻에서 이루어진 표현이다. 모든 산은 반드시 종산(宗山)이 있고 그로부터 수만리에 이르는 큰 산맥들을 이룬다. 풍수학(風水學)에서는 모든 산의 종산(宗山)을 태조산(太祖山)이라 하며 이 태조산에서 뻗어나오는 큰 산맥을 간룡(幹龍)이라 하고, 주산맥에서 분류하는 지맥을 지

룡(枝龍)이라 한다. 용에는 귀천(貴賤), 장단(長短), 노약(老弱)이 있고, 또 용의 생김새로 보아서 길룡(吉龍), 흉룡(凶龍), 생룡(生龍), 사룡(死龍)으로 분류하여 지기를 분별하는 것이 풍수학의 요체(要諦)이다.

2) 설화 속의 용

용(龍)은 인간이 감지(感知)할 수 있는 개념을 초월(超越)하는 초자연적(超自然的)인 공간에서 군림(君臨)하며 거대하고 신비적인 힘을 지닌 신상(神像)으로 인식(認識)되어 왔다. 이와같이 상상(想像)으로만 느껴지는 용(龍)은 우리들 생활에 정신적(精神的)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많은 예술(藝術)을 탄생시켰다.

동양(東洋)에서 최초의 용(龍)의 발생은 서쪽에서 온 용(龍) totemism 민족(民族)으로부터인데 이는 동쪽에서 온 봉(鳳) totemism 민족(民族)과 항상 대립하면서 중화민족(中華民族)을 형성하여 중국의 주도권을 장악했고 인도신화(印度神話)에 나오는 용족(龍族)은 탐욕과 모략의 용신(龍神)이었으나 긴 세월 불교와의 투쟁끝에 불법(佛法)에 감화받은 용(龍)이 되어 후세에 용왕(龍王)으로까지 비약했다. 이와같이 인도에서는 4000년 전부터 용(龍)에 대한 설화가 전해지고 경전(經典)에도 기록이 있는데 용(龍)은 불교를 수호하는 영물(靈物)로 인식(認識)되었다.

한국(韓國)의 고문헌(古文獻)에도 용(龍)에 대한 기록이 많은데 신라(新羅) 박혁거세(朴赫居世)의 부인(婦人) 알영(閼英)은 용(龍)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용녀(龍女)였고, 처용랑(處容郎)은 동해용왕(東海龍王)의 아들로 헌강왕(憲康王)을 따라 입경(入京)하였다는 기사(記事)가 보인다

필자(筆者)의 견해(見解)로는 한국(韓國) 용신(龍神)의 근원은 서양과 중국·인도지만 한국적 고유의 풍속과 종교적인 흐름에 대부분 각색되었고 통일신라시대 이후에는 제왕의 위력이나 수호신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한국의 용(龍)은 일견(一見)해서 인도와 중국에서 발생한 용관념(龍觀念)의 도입(導入)으로 보이고, 한국만의 고유한 용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용의 한국 고유(固有)의 명칭인 '미리'가 계림유사(鷄林類事), 두시언해(杜詩諺解) 등에서 발견된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고유한 용의 존재가 부인(否認)될 수 없다.

또한, 고유한 형태의 용(龍)에 관한 설화가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로 보아 한국 용(龍)의 독자성과 함께 용신사상이 중요한 민족사상(民族思想)의 일부였다는 것을 증명(證明)한다.

(1) 삼국유사의 용설화

민족고유의 용(龍)에 대한 자료는 우선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대량으로 발견되어 호교(護敎)의 상징으로 또는 호국(護國)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호교룡 혹은 호국룡에서 파생되는 설화 중에도 연구해야 할 좋은 대상이 많다.

용(龍)은 많은 설화(說話)에서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되어왔다. 문헌의 내용에서만 보더라도 용(龍)이 등장하는 설화의 양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각종 설화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86편이 용(龍)과 관련된 설화들이다. 이 중 삼국유사(三國遺事)에만 하여도 대량으로 발견된다. 용(龍)에 대한 자료는 대체로 호교(護敎)의 상징 내지는 호국(護國)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호교룡 혹은 호국룡에서 파생되는 설화 중에는 연구하여야 할 좋은 대상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하여야 할 자료는 『삼국유사』 권 2 진성여왕 거타지조에 나오는 용에 관한 설화이다. 이 설화는 『고려사』 세계(世系)에 나오는 작제건이 용을 구하여준 설화와도 연결되며 『용비어천가』 제22장 도조(度祖)가 용을 도와준 설화와도 비교될 수 있어서 용설화의 역사적 변천의 한 기본형태를 밝

힐 수 있으며, 또한 용의 상징적 문제를 깊이 파고 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2) 용의 지명설화

용(龍)이 등장하는 설화 중에는 용(龍)의 출현(出現)으로 인하여 명명되었다는 용과 관련된 지명(地名)이나 호수 샘 바위 산이름 등의 전설 또한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용소(龍沼) 용정(龍井) 용연(龍淵) 용혈암(龍血岩) 용마연(龍馬淵) 등은 전국 어디서나 쉽게 들어볼 수 있는 이름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용소설화(龍沼說話)
- ② 용연설화(龍淵說話)
- ③ 용정설화(龍井說話)
- ④ 용혈암설화(龍血岩說話)
- ⑤ 용꿈설화(龍夢說話)
- ⑥ 입신출세에 대한 설화

용은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큰 희망과 성취의 상징으로도 여겨져왔다. 그래서 입신출세의 관문을 등용문(登龍門)이라 하고, 사람이 출세하면 '개천에서 용났다' 라고도 한다.

⑦ 기타 설화

3) 종교에서의 용

불교에서는 용은 팔부(八部) 신상(神象)의 하나로 불법(佛法)을 지키는 외호신(外護神)의 성격을 지닌다. 이 중에서 용은 주수신(主水神)으로 생계를 운택하게 하는 덕과 본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불사(佛寺)의 단청(丹青)이나 벽화(壁畫)등으로 그려져 사천왕(四天王), 금강력사(金剛力士) 등과 같이 호도량신(護道場神) 혹은 호법신(護法神)의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신앙되고 있다. 이와같은 호법용신앙에 대해서는 신이적(神異的)인 영험(靈驗)이 다양하게 설(說)해져 더한층 불교에 있어 용신앙(龍神仰)을 성행하게 하고 있다.

이와같이 신앙은 인도불교에서 이미 인도 토속신앙의 용(龍)이 불교적 전개를 가져오는데서 호법용

(護法龍)의 일차적 성격을 살필수 있고 한편 우리나라 재래의 용신앙의 바탕위에 호법용신앙을 수용한 데서 한국불교와 용신앙의 습합현상이 용이(容易)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용을 상상할 때 우리들의 머리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중국 용의 모습이다. 그런데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원래 상상되었던 중국 용의 모습에 새로운 인도 용의 관념이 혼입되었다. 용은 오랫동안 불교와의 대립투쟁을 거쳐 마침내 불교의 호교자(護敎者)가 되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용왕 용신은 불법을 수호하는 신(神)이며, 산스크리트어(梵語)의 Naga의 역(譯)이다.

『인도백과사전』(印度百科事典) 번역명의집(翻譯名義集) 팔부중편(八部衆篇) Naga조(那伽條)에 보면 용을 천궁(天宮)을 수호하는 용, 비(雨)를 부르는 용, 지룡(地龍) 회전륜왕(回轉輪王) 대복팔장(大福八藏)을 운(輪)하는 용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용은 원시불교성전 이래 등장하며, 불교에서의 용은 선악 양면의 관계로 나타난다. 선룡(善龍)은 불법을 수호하는 용으로서 특히 8대 용왕으로 분류한다. 용왕은 불법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적시에 비를 오게하여 오곡풍작을 가져오게도 하는 바, 특히 팔대용왕 중의 사가라용왕은 바다의 용왕으로 기우의 본존(本尊)으로 신앙(信仰)되어 왔다.

이처럼 용이 기우의 대상이 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용이 수중(水中)에 살면서 구름을 부르고 비를 오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신화엄경(新華嚴經) 제43에 보면 용왕 대룡(大龍)이 큰 비를 오게 한다는 내용이 있고, 대지도론(大智度論)제 3에도 “대해(大海)에서 대용왕(大龍王)이 나와 대운(大雲)을 일으켜 허공을 덮고 대전광(大電光)으로 천지를 비추고 대홍우(大洪雨)를 내리게 하여 만물을 윤택하게 하듯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처럼 불교에서의 용은 큰 바다에 살고 때로 운우전광(雲雨電光) 등의 사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용왕이 사는 궁전을 용궁이라 하며, 용궁은 물 속

이나 물 위에 있다고 믿었다. 현세의 불법이 유행하지 않게 될 때 용왕은 용궁에서 경전을 수호한다고도 한다. 인도의 대승불교를 크게 드날린 용수(龍樹, Nagarjuna)가 용궁에 들어가 『화엄경(華嚴經)』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우리나라의 불교가 삼국통일 이래 독자적인 호국신앙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에 수용된 용은 호국룡으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영원한 왕권과 호국을 기원하는 데 용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불교에 있어 관련된 용의 압권은 무엇보다 구룡세신의 설화라고 보여진다.

한 가지 주목하여야 할 사실은 용이 대부분의 설화 속에서는 불교와 혼합되어 호교자로서 나타남에 반하여 일부의 설화 속에서는 불교와 용이 대립하고 그 결과 용이 추방당하는 예도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불교와 용의 갈등을 말해 주는 것으로 용이 불교에 동화되어가는 과정의 단계라고 판단(判斷) 된다.

기독교에 있어서도 용은 예외없이 등장하는데 Dragon은 Serpent와 동음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Serpent 성서에서 찾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할 수 있다.

“Now the Serpent was more cunning than any beast of the field which Lord God had made, He said to the woman……”

한편 동양의 고전인 『사기(史記)』의 포사(褒似) 잉태설화 초두에

“夏后氏之衰也 有二神龍 止於夏帝庭而言曰 余褒之二君……”

이라 되어 있다. 동서를 막론하고 용에게 인격을 부여하였던 의인관(依人觀)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다음호에 계속…)

인터넷 인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보화의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개인용 컴퓨터가 일반화되기 10여년전 이미 전문가들은 컴퓨터를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며 자유와 분권을 가져오는 ‘꿈의 기계’로 간주했다. 인터넷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도 ‘네트사회’의 선구자들이 꿈꾸는 장미빛 환상의 세계에 대한 기대는 아직 유효하다. 그러나 분명히 주시해야 할 사실이 있다. 인터넷에 대한 믿음과 환상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엽기적 자살사이트 등장을 시작으로 각종 범죄를 부추기는 역기능 현상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컴퓨터가 창조한 무한대의 사이버공간이 가상 공동체의 장이 되기도 하지만 ‘악의근원’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인터넷 확산 보급에 앞서 사이버 문화를 바로 정착해야 할 시점을 맞고 있다.(柳)

한국 경제계의 거목’ 정주영씨가 눈을 감았다는 소식이 세간에 알려진날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린 단어는 ‘허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에너르기가 넘친다고한 사람 그 사람의 일생이 고작 86년이라니 허망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아침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하루를 쏘다닙니다. 일하고, 싸우고, 울고, 웃고... 그렇게 지내는 순간에도 생명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목상을 하거나 잠에든 시간에도 생명의 시계는 계속 째깍거립니다. 아무리 대업을 이루고 이름을 떨친 사람일지라도 죽음앞에선 그저 초라할 뿐입니다. 1백년도 채 못사는 인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미야같은 인간, 바로 1초 후의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장님같은 인간. 도대체 인간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하루는 어느 소설에도 나오듯 ‘죽음을 앞둔 이들이 살고 싶어한 내일’ 일지 모릅니다.우리가 내일 세상을 떠난다면 오늘 우리는 모두 성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점을 알지 못하는 완행버스를 타고 가다 예기치 않게 내릴 수 밖에 없는 인간. 오늘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啟)

알림

본회 편집실에는 전국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사료나 향토지를 비치하고 있어 수시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 ◎ 史料 및 情報資料 提供
전국 시·군지, 향토사 자료등 각종자료 3천여권이 비치되어 있는 본회에 訪問하면 됩니다.
- ◎ (향토지) 각종 圖書 復刊相談
지방에서 발행할 각종 책자의 편집 및 출간을 위해 자료, 견본 등을 제공하고 편간에 대한 자세한 상담도 해드립니다.
- ◎ 海外 刊行物 交流
해외에서 발행되는 여러 간행물을 통하여 우리의 文化遺産에 대한 올바른 評價와 자료의 수집을 위해 “海外刊行物交流事業”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關係者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서적이나 關係자료 또는 정보를 교류추진을 알선해 드립니다.

정기구독안내

月刊 우리문화는 5천여년 간 숨쉬어 온 民族文化를 아름답게 꽃 피워보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自矜心을 기르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특히 海外에서 한민족의 自矜心을 갖고 곳곳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권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구독료(권당 3,000원)
국내 : 1년 정기구독료 36,000원 (우송료 본회 부담)
6개월 구독료 18,000원
海外 : 1년 정기구독료 36,000+우송료
6개월 구독료 18,000+우송료
(*문화원 회원은 1권당 2,000원)

- 송금방법
송금은 농협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십시오.
• 온라인번호 농협 032-01-013084 문화원연합회

- 보낼곳
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국문화원연합회 우리문화 편집실

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지회 · 종로문화원 · 중구문화원 · 용산문화원 · 성동문화원 · 광진문화원 · 동대문문화원 · 중랑문화원 · 성북문화원 · 강북문화원 · 도봉문화원 · 노원문화원 · 은평문화원 · 마포문화원 · 양천문화원 · 강서문화원 · 동작문화원 · 관악문화원 · 강남문화원 · 송파문화원 · 강동문화원 · 금천문화원 · 영등포문화원 · 부산광역시 · 동래문화원 · 북구낙동문화원 · 부산강서문화원 · 연제문화원 · 기장문화원 · 사상문화원 · 금정문화원 · 대구광역시 · 중구문화원 · 달성문화원 · 남구대덕문화원 · 대구북구문화원 · 대구서구문화원 · 달서구문화원 · 대구동구팔공문화원 · 인천광역시 · 인천문화원 · 부평문화원 · 강화문화원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지회 · 동구문화원 · 광주서구문화원 · 광주남구문화원 · 광주북구문화원 · 광산문화원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지회 · 동구문화원 · 중구문화원 · 서구문화원 · 유성문화원 · 대덕문화원 · 울산광역시 · 울산문화원 · 울주문화원 · 울산중구문화원 · 경기도 · 경기도지회 · 수원문화원 · 성남문화원 · 의정부문화원 · 안양문화원 · 부천문화원 · 광명문화원 · 평택문화원 · 동두천문화원 · 안산문화원 · 고양문화원 · 과천문화원

· 구리문화원 · 남양주문화원 · 오산문화원 · 시흥문화원 · 군포문화원 · 하남문화원 · 용인문화원 · 파주문화원 · 이천문화원 · 안성문화원 · 김포문화원 · 양주문화원 · 여주문화원 · 화성문화원 · 광주문화원 · 연천문화원 · 포천문화원 · 가평문화원 · 양평문화원 · 의왕문화원 · 강원도 · 강원도지회 · 춘천문화원 · 원주문화원 · 강릉문화원 · 동해문화원 · 태백문화원 · 속초문화원 · 삼척문화원 · 홍천문화원 · 횡성문화원 · 영월문화원 · 평창문화원 · 정선문화원 · 철원문화원 · 화천문화원 · 양구문화원 · 인제문화원 · 고성군문화원 · 양양문화원 · 충청북도 · 충청북도지회 · 청주문화원 · 충주문화원 · 제천문화원 · 청원문화원 · 보은문화원 · 옥천문화원 · 영동문화원 · 진천문화원 · 괴산문화원 · 음성문화원 · 단양문화원 · 증평문화원 · 충청남도 · 충청남도지회 · 천안문화원 · 공주문화원 · 서산문화원 · 논산문화원 · 금산문화원 · 부여문화원 · 서천문화원 · 청양문화원 · 홍성문화원 · 예산문화원 · 태안문화원 · 당진문화원 · 대전문화원 · 온양문화원 · 조치원문화원 · 아우내문화원 · 성환문화원 · 전라북도 · 전라북도지회 · 전주문화원 · 군산문화원 · 익산문화원 · 정읍문화원 · 남원문화원 · 김제문화원 · 완주문화원 · 진

안문화원 · 무주문화원 · 장수문화원 · 임실문화원 · 순창문화원 · 고창문화원 · 부안문화원 · 전라남도 · 전라남도지회 · 목포문화원 · 여수시문화원 · 순천문화원 · 나주문화원 · 광양문화원 · 담양문화원 · 곡성문화원 · 구례문화원 · 고흥문화원 · 보성문화원 · 화순문화원 · 장흥문화원 · 강진문화원 · 해남문화원 · 영암문화원 · 무안문화원 · 함평문화원 · 영광문화원 · 장성문화원 · 완도문화원 · 진도문화원 · 신안문화원 · 경상북도 · 경상북도지회 · 포항문화원 · 경주문화원 · 김천문화원 · 안동문화원 · 구미문화원 · 영주문화원 · 영천문화원 · 상주문화원 · 문경문화원 · 경산문화원 · 군위문화원 · 의성문화원 · 청송문화원 · 영양문화원 · 영덕문화원 · 청도문화원 · 고령문화원 · 성주문화원 · 칠곡문화원 · 예천문화원 · 봉화문화원 · 울진문화원 · 울릉문화원 · 경상남도 · 경상남도지회 · 창원문화원 · 마산문화원 · 진주문화원 · 진해문화원 · 통영문화원 · 사천문화원 · 김해문화원 · 밀양문화원 · 거제문화원 · 양산문화원 · 의령문화원 · 함안문화원 · 창녕문화원 · 고성문화원 · 남해문화원 · 하동문화원 · 산청문화원 · 함양문화원 · 거창문화원 · 함천문화원 · 제주도 · 제주도지회 · 제주문화원 · 서귀포문화원